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체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문화예술생태계 구성원 의견조사 연구

FGI·IDI 기초분석 보고서

문학

2025.05



담당부서 : 기획조정팀
Tel : 061)900-2147
연구 기획 · 진행 : 문학 연구협의체(정대훈, 조강주)
작성 : ㈜케이스탯리서치

Contents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1
2. 조사 목적 1
3. 조사 설계 및 내용 1

제2장. 조사 결과

Ⅰ. 진입 7
[그룹1-1] 교육기관 관계자 7
[그룹1-2] 예비 창작자 20
Ⅱ. 창작 33
[그룹 2-1] 작가, 평론가 등 : G1. 작가 - 수도권 35
[그룹 2-1] 작가, 평론가 등 : G2. 작가 - 지역 54
[그룹 2-1] 작가, 평론가 등 : G3. 아동문학가 69
[그룹 2-1] 작가, 평론가 등 : G4. 평론가 86
[그룹 2-2] 활동 조력자 102
Ⅲ. 분배 117
[그룹 3] 유통·홍보 마케팅 서비스 지원 주체 118
Ⅳ. 소비 137
[그룹 4] 문학 독자 137
Ⅴ. 공공 및 민간 지원 153
[그룹 5] 예술위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 담당자 154

Contents

표 목차

[표 1-1] FGI 진행 경과 및 내용 1
[표 2-2] 그룹 구성 - Ⅰ. 진입 7
[표 2-1] 참석자 명단 - [그룹 1-1] 교육기관 관계자 7
[표 2-2] 참석자 명단 - [그룹 1-2] 예비 창작자 20
[표 2-3] 그룹 구성 - Ⅱ. 창작 [그룹 2-1] 작가, 평론가 등 33
[표 2-4] 그룹 구성 - Ⅱ. 창작 [그룹 2-2] 활동 조력자 34
[표 2-5] 참석자 명단 - [그룹 2-1] 작가, 평론가 등 : G1. 작가 - 수도권 35
[표 2-6] 참석자 명단 - [그룹 2-1] 작가, 평론가 등 : G2. 작가 - 지역 54
[표 2-7] 참석자 명단 - [그룹 2-1] 작가, 평론가 등 : G3. 아동문학가 69
[표 2-8] 참석자 명단 - [그룹 2-1] 작가, 평론가 등 : G4. 평론가 86
[표 2-9] 참석자 명단 - [그룹 2-2] 활동 조력자 102
[표 2-10] 그룹 구성 - Ⅲ. 분배 117
[표 2-11] 참석자 명단 - [그룹 3] 유통·홍보 마케팅 서비스 지원 주체 118
[표 2-12] 그룹 구성 - Ⅳ. 소비 137
[표 2-13] 참석자 명단 - [그룹 4] 문학 독자 137
[표 2-14] 그룹 구성 - Ⅴ. 공공 및 민간 지원 153
[표 2-15] 참석자 명단 - [그룹 5] 예술위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 담당자 154

01

조사 개요



Ⅰ.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 주관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수행기관 : ㈜케이스탯리서치
■ 조사기간 : 2024년 8월 20일(화) ~ 2025년 1월 20일(월)
■ 조사방법 : FGI 및 심층면접

2. 조사 목적

■ 정부의 예술위원회 역할 재설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해 온 주요 장르별·기능별 지원사업들이 문화예술생태계에서 잘 작동했던 것과 한계가 무엇인지를 진단하는 한편 새로운 도전과 변화 상황에서 예술위원회의 역할 모색의 근거 수집 필요
■ 이에 문학 생태계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현장 전문가와 연구협의체(문학 분야, 관련 지원정책·연구 전문가)로 참여 인원을 구성하여 FGI 및 IDI를 진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3. 조사 설계 및 내용

■ 인터뷰는 총 56회 이루어졌으며, 가치사슬 단계 및 세부 참석자를 고려하여 5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의견 정리를 진행함

[표 1-1] FGI 진행 경과 및 내용

[그룹]	대상자	주요 논의 내용 및 참가자
[그룹 1-1] 교육기관 관계자	예술고등학교 강사 대학 교수 민간 아카데미 고교 국어 교사	ㅇ 문학 창작과 생계 ㅇ 문예창작과 교육 변화 ㅇ 문학 생태계와 지역성 ㅇ 문학과 독서 교육 ㅇ 문학의 대중화와 확장성 ㅇ 공공 지원과 정책 개선
		ㅇ 협의체 : LA-A, LA-B, LA-C ㅇ 참석자 : LA001, LA002, LA003, LA004, LA005, LA006, LA007
[그룹 1-2] 예비 창작자	예비 창작자	ㅇ 문학 창작자의 진입 장벽과 교육 환경 ㅇ 등단 제도의 구조와 대안 모색 ㅇ 창작과 생계 병행 문제 ㅇ 문학 창작 공간과 지원 사업 ㅇ 문학의 대중화와 청년 창작자의 지면 확보
		ㅇ 협의체 : LA-A, LA-B, LA-C ㅇ 참석자 : LA008, LA009, LA010

[그룹]	대상자		주요 논의 내용 및 참가자
[그룹 2-1] 작가, 평론가 등	G1. 작가 - 수도권	소설가 시인 수필가	ㅇ 문학 창작과 출판 환경 변화 ㅇ 문학 교육과 작가 양성 ㅇ 문학 생태계와 지속 가능성 ㅇ 문학과 대중화 ㅇ 정부 지원과 정책 개선
			ㅇ 협의체 : LA-A, LA-B, LA-C ㅇ 참석자 : LA011, LA012, LA013, LA014, LA015, LA016, LA017, LA018, LA019, LA020, LA021, LA022, LA023, LA024, LA025, LA026, LA027, LA028, LA029, LA030, LA031, LA032, LA033, LA034, LA035
	G2. 작가 - 지역	소설가 시인 수필가	ㅇ 지역 기반 작가의 창작 환경 ㅇ 공동체적 문학 실천의 확산 ㅇ 청년 창작자와 제도적 사각지대 ㅇ 문학 공간과 생태계 기반의 위기 ㅇ 지역 문학의 수도권 중심 평가 구조 ㅇ 공공지원의 지속성과 현실성 부족
			ㅇ 협의체 : LA-A, LA-B, LA-C ㅇ 참석자 : LA036, LA037, LA038, LA039, LA040, LA041, LA042, LA043
	G3. 아동문학	아동문학가	ㅇ 창작과 생계를 병행하는 작가 현실 ㅇ 문학 생태계의 불균형 구조 ㅇ 지역 기반 창작 활동의 중요성 ㅇ 문학의 외연 확장과 융복합 경향 ㅇ 정책과 지원의 유연성 부족 ㅇ 해외 진출 인프라의 미비
			ㅇ 협의체 : LA-A, LA-B, LA-C ㅇ 참석자 : LA044, LA045, LA046, LA047, LA048
	G4. 평론	평론가	ㅇ 문학평론 등단과 활동 구조 ㅇ 문학 평론가의 생계와 직업 안정성 ㅇ 평론 생태계의 구조적 한계 ㅇ 문학평론의 세대 간 소통 단절 ㅇ 문학평론 활성화를 위한 공공 지원
			ㅇ 협의체 : LA-A, LA-B, LA-C ㅇ 참석자 : LA049, LA050, LA051
[그룹 2-2] 활동 조력자	출판 편집자 및 전문가 번역가 기획자 기자		ㅇ 문학 창작과 생계 기반 ㅇ 문학 유통 구조와 독립 서점 위기 ㅇ 문학과 마케팅, 브랜드 전략의 전환 ㅇ 문학의 해외 진출과 번역 생태계 ㅇ 문학 생태계 내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과 협력 ㅇ 장르 경계 변화와 제도 미비
			ㅇ 협의체 : LA-A, LA-B, LA-C ㅇ 참석자 : LA052, LA053, LA054, LA055, LA056, LA057, LA058, LA059, LA060, LA061, LA062, LA063

[그룹]	대상자	주요 논의 내용 및 참가자
[그룹 3] 유통·홍보 마케팅 서비스 지원 주체	출판사 마케터 서점 종사자 도서관 사서 문학분야 에이전시 관계자 온라인 유통 플랫폼 관계자 북클럽 운영 종사자	ㅇ 문학 유통 구조의 변화와 디지털 전환 ㅇ 전문 인력 부족과 마케팅 체계 미비 ㅇ 플랫폼 중심 구조와 정보 비대칭 문제 ㅇ 문학 소비 환경 변화와 독자 접점 약화 ㅇ 공공지원의 단편성과 유통 기반 부재 ㅇ 지역·독립 문학의 유통 사각지대 문제 ㅇ 유통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필요
		ㅇ 협의체 : LA-A, LA-B, LA-C ㅇ 참석자 : LA064, LA065, LA066, LA067, LA068, LA069, LA070, LA071, LA072, LA073, LA074, LA075, LA076, LA077, LA078, LA079
[그룹 4] 문학 독자 그룹	동호회 참여자	ㅇ 독서 플랫폼과 커뮤니티의 확장 ㅇ 세대별 독서 문화의 양상 ㅇ 공간과 기반 시설의 제약 ㅇ 문학 향유의 사회적 인식과 가치 ㅇ 공공지원과 프로그램 설계
		ㅇ 협의체 : LA-A, LA-B, LA-C ㅇ 참석자 : LA080, LA081
[그룹 5] 예술위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 담당자	지역재단(공공) 및 민간재단 종사자 문학관 종사자 번역원 관계자	ㅇ 문학의 해외 진출과 번역 기반 구축 ㅇ 문학 지원 체계의 분절성과 행정 중심 운영 ㅇ 창작자 환경과 장르 불균형 ㅇ 성과 중심의 단기 지원 한계 ㅇ 통합 거버넌스와 생태계 중심 지원 필요
		ㅇ 협의체 : LA-A, LA-B, LA-C ㅇ 참석자 : LA082, LA083, LA084, LA085, LA086, LA087, LA088, LA089, LA090, LA091, LA092, LA093

02

조사 결과



Ⅰ. 진입

1. 그룹 구성

■ 문학 분야 Ⅰ. 진입 단계에 대해 [그룹 1-1] 교육기관 관계자, [그룹 1-2] 예비 창작자의 2개 그룹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함

■ [그룹 1-1] 교육기관 관계자(인터뷰 3회, 참석자 7인), [그룹 1-2] 예비 창작자(인터뷰 1회, 참석자 3인)의 구성임

[표 2-2] 그룹 구성 - Ⅰ. 진입

그룹	연번	날짜	장소	참석자
[그룹 1-1] 교육기관 관계자	1	2024-08-30	패스트파이브 용산점 23C	LA001, LA002
	2	2024-10-24	포에트리앤	LA003, LA004
	3	2024-11-21	화상회의(Zoom)	LA005, LA006, LA007
[그룹 1-2] 예비 창작자	1	2024-12-09	화상회의(Zoom)	LA008, LA009, LA010

[그룹1-1] 교육기관 관계자

1. 참석자 명단

■ [그룹 1-1] 교육기관 관계자의 참석자 명단은 아래와 같이 협의체 3인, 참석자 2인으로 구성됨

[표 2-1] 참석자 명단 - [그룹 1-1] 교육기관 관계자

그룹	참석자 구분	참석자 분류	참석자 코드	성별	연령대	경력
[그룹 1-1] 교육기관 관계자	연구협의체(n=3)	공공	LA-A	-	-	-
		공공	LA-B	-	-	-
		민간	LA-C[1)]	-	-	-
	참석자(n=2)	예술고등학교 강사	LA001	여	30대	11년
		예술고등학교 강사	LA002	남	40대	10년
		대학 교수	LA003	남	50대	25년
		민간 아카데미	LA004	여	50대	24년
		고교 국어 교사	LA005	여	40대	24년
		고교 국어 교사	LA006	남	50대	23년
		고교 국어 교사	LA007	여	50대	32년

1) LA-C의 경우, 연구 용역사 진행 담당자로 성별, 연령대, 경력에 대해 작성하지 않음

2. 주요 논의 사항

■ 문학 창작과 생계
- 전업 작가로서의 생계 문제와 겸업 실태, 창작 지속성을 위한 지원 방안

■ 문예창작과 교육 변화
- 문예창작과 입시·교육의 변화와 한계, 실무 중심 교육 강화 필요성

■ 문학 생태계와 지역성
- 지역 문학 생태계의 폐쇄성 및 외부 창작자 진입 장벽, 네트워크 확장의 필요성

■ 문학과 독서 교육
- 학교 문학 교육의 입시 중심 문제와 대안적 독서 프로그램 운영 방안

■ 문학의 대중화와 확장성
- 웹소설·대중문학·콘텐츠 산업으로의 확장 가능성과 전통 문학의 역할 변화

■ 공공 지원과 정책 개선
- 창작자 지원 정책의 한계와 창작 지속성을 위한 공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

3.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창작자의 생계 수단, 문예창작과 교육과 진로, 출판사의 출간 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다변화되고 있는 문학 생태계

1) 문학 창작자들의 다양화된 생계 전략

■ 문학 창작자의 다변화된 생계 전략,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마련 필요
- 문학 창작자들은 강의, 대필, 출판사 기고, 이메일 구독 서비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순수 창작만으로는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어려워 창작 외 활동이 필수적인 현실임. 창작자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 정책과 안정적인 수익 모델이 필요함. 창작 지원금 확대, 출판사와의 정기 원고 계약 도입, 공공기관의 창작 기금 확충 등이 요구됨.

■ 창작과 겸업의 병행, 창작 지속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 많은 문학 창작자들이 창작 활동과 겸업을 병행하고 있으나,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특히 강의와 대필, 기고 등은 불규칙한 수익 모델로 작용하며,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됨.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작자 전용 레지던시 확대, 공공기관과 연계한 집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함.

■ 디지털 플랫폼 활용 확대, 창작자의 수익 다변화 필요
- 이메일 구독 서비스, 온라인 창작 플랫폼, 디지털 출판 등은 문학 창작자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전통적인 출판 시장에 의존하는 구조가 강해, 디지털 기반의 창작 활동이 주요한 수익원으로 자리 잡기 어려운 실정임. 창작자들이 온라인 기반의 콘텐츠 유통과 수익 창출 방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공공 지원 확대와 민간 협력 강화,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 구축

- 문학 창작자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공공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출판사, 플랫폼 기업 등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창작자 지원 모델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출판사와의 공동 기획 프로젝트, 공공기관 주도의 창작 기금 및 장기 집필 지원 등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문학 창작자가 안정적으로 창작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네. 저도 소설집 두 권에 에세이 한 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편 소설을 단편으로 등단을 해도 항상 장편의 압박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편 소설을 지금 계약해놨고. 장편 및 경장편이 지금 3권 정도 계약이 돼 있어서, 네, 내년까지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사실 오늘 이제 여기에 이렇게 겸업 작가로 왔지만 아마 내년에는 강의를 못 하지 않을까 싶어요." (LA001)

"저는 이제 조금 거칠게 말하면 대필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윤문 작업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책 한 권을 내는데 외주를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제 문장 가지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로 이제 받은 것들이 이제 관에서 조금 들어오는데 일들이. 이제 관에서 이제 무슨 수기 공모전 같은 거를 하면은, 이제 예전에는 별로 이렇게 문제가 안 됐는데 요즘에는 감수성 문제도 굉장히 예민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과 또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조금 윤색을 해가지고 이제 있는 그대로, 날것 그대로 이제 발표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밑 작업들을 좀 하더라고요, 관에서." (LA002)

"남성 패션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가 이제 유입이 잘되도록 제목을 자극적으로 짓고, 거기에 이제 배너 수익 같은 거를 버는 건데. 그래서 거의 매일매일 기사가 하나씩 올라가야 돼요. 정말 요새 뭐, 인기 있는 거는 저속 노화 식단 추천 이런 거 이제 제가. 소개받아서." (LA001)

"저는 이제 많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한 거긴 한데 저만의 방식으로 되게 이제 커피 한잔 값으로 하는데. 들어와서 한 3년 정도 운영하다가 제가 이제 양해를 구하고. 잠정적으로 조금 쉬겠다, 너무너무 뭐 다른 글들이 너무 현실적으로 좀 버려야 되는 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까지 쓰기가 저는 진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거 꽤 열심히 했었어요. 재밌어 했었고." (LA002)

2) 문예창작과의 변화와 현황

■ 문예창작과 입시 방식 변화, 실기와 성적 병행 평가 필요

- 과거 문예창작과 입시는 실기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실기와 성적을 함께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 일부 대학은 여전히 실기 평가를 유지하지만,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입학 후 학생들의 창작 역량 차이가 발생하며,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유불리가 뒤바뀌는 현상이 나타남. 보다 균형 잡힌 평가 방식과 기초 교육 과정의 강화가 요구됨.

■ 창작 중심 교육의 한계, 실무 기반 융합 교육 확대 필요

- 문예창작과 교육은 여전히 창작 실습과 작품 발표 중심으로 운영되며, 콘텐츠 기획, 편집, 번역 등 실무적인 역량을 배양하는 과정이 부족함. 졸업 후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생계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임. 창작뿐만 아니라 콘텐츠 산업, 출판 기획,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융합형 커리큘럼 도입이 필요함.

■ 문예창작과 진로 다변화, 창작과 산업 연계 강화 필요

- 문예창작 전공자들은 전통적인 등단 외에도 웹소설, 방송 대본, 번역, 교육, 콘텐츠 기획 등으로 진출하고 있음. 그러나 대학 교육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졸업 후 직접 경험을 통해 실무 역량을 쌓아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겪고 있음. 문예창작과와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창작자들이 실질적인 직업적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일단 그 문예창작과 입시제도 [...] 과거에는 실기 위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실기 무슨 뭐 전국 고등학교 [...] 101장에서 수상자들은 또 데려가고 입학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실기가 80%, 어떤 데는 서울예대 뭐 이런 데는 실기가 100%인 적도 있고. [...] 그런데 지금은 기본적인 소양 위주로 약간 바뀐다고 보면 돼요. 예전처럼 실기만으로 평가하는 곳도 있지만, 성적만 보는 학교도 있고, 실기와 성적을 함께 반영하는 곳도 있어요." (LA003)

"처음에는 입시 실기를 준비한 학생들이 조금 유리한데, 2학년 3학년으로 갈수록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 예고 출신들이 처음에는 두각을 나타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공부만 하다가 들어온 친구들이 성장해서 역전하는 경우도 많아요. 결국에는 입시 실기보다 중요한 건 대학에 들어와서 얼마나 꾸준히 창작을 이어가느냐의 문제 같아요." (LA003)

"사실 요즘 문창과 학생들이 문학을 전공한다고 해서 꼭 소설가나 시인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웹소설이나 웹툰 시나리오, 게임 시나리오, 드라마 극본 같은 쪽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지죠. [...] 과거에는 등단이 거의 유일한 길처럼 여겨졌는데, 지금은 등단하지 않아도 다양한 형태로 창작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LA004)

"문창과 학생들이 졸업하면 꼭 창작을 하지 않고 출판 편집자, 번역가, 콘텐츠 기획자로도 많이 가요. [...] 문학을 전공했지만, 결국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고 봐야죠. 다만 학교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창작 중심 교육이 많아서, 실무적인 역량을 키울 기회가 부족한 건 아쉬운 부분이에요." (LA004)

3) 문학 생태계에서의 출판사 역할 변화

■ 선계약 방식 축소, 완성 원고 기반 출판 계약 증가

- 과거 출판사들은 기획 단계에서 작가와 계약을 맺고 원고를 의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문학 시장의 축소와 출판사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러한 방식이 줄어들고 있음. 대신 출판사들은 이미 완성된 원고를 검토한 후 출간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는 신진 작가뿐만 아니라 기존 작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창작자의 사전 집필 부담 증가, 출간 기회 확보 어려움

- 출판 계약을 위해 미리 원고를 완성해야 하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창작자들은 출간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먼저 집필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음. 이는 경제적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창작을 지속해야 하는 문제를 초래하며, 특히 전업 작가가 아닌 겸업 작가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함.

■ 출판사-작가 협력 모델 변화, 새로운 유통 방식 필요

- 기존의 출판 계약 방식이 변화하면서 작가들은 출판사와의 협력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디지털 콘텐츠 시장 확대와 자가 출판 플랫폼 활성화를 고려한 새로운 유통 방식이 요구되며, 작가들이 창작 단계부터 출판 이후 유통까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요즘에는 출판사들이 기획 단계에서 작가랑 먼저 계약하는 게 거의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출판사에서 먼저 제안이 오기도 하고, 기획안만 가지고 계약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다 완성 원고를 가져와야 하죠. 그러니까 출판사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줄이려는 거고, 작가 입장에서는 원고를 먼저 완성해야 하니까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 등단한 작가들도 요즘은 계약을 위해 미리 써놔야 해요. 신진 작가들은 더 어려운 상황이고요." (LA004)

"출판사에서 먼저 계약을 해주던 시절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저는 소설을 쓰는 입장에서 보면, 원고가 없으면 아예 출판사랑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단행본 시장이 줄어들다 보니까, 출판사들도 신인 작가보다는 이미 검증된 작가의 원고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요. [...] 그러다 보니까 창작자들이 완성 원고를 들고 여기저기 출판사를 직접 찾아다니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LA003)

"출간을 위한 사전 계약이 거의 없어지면서, 작가들이 미리 원고를 완성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죠. 사실 이게 전업 작가들에게도 힘든데, 겸업 작가들은 더 어렵죠. 생업을 하면서 원고를 완성해야 하니까, 집필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웹소설 같은 빠른 소비가 가능한 콘텐츠로 가는 작가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LA002)

"출판 계약 방식이 바뀌면서, 작가들도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전통적인 출판 시장만 바라보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웹소설 플랫폼이나 전자책 자가 출판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 출판사랑 계약이 안 되면 아예 자기 힘으로 출판하고 홍보하는 방식도 있는데, 문제는 이런 과정이 작가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거죠. 결국 창작 외적인 일에 신경 써야 하니까 본업인 글 쓰는 시간이 줄어드는 게 문제예요." (LA004)

나. 생태계 이슈

생태계 변화에 따라 떠오르는 한계점과 이에 대한 개선 요구

1) 작가들의 겸업 실태와 창작 환경의 한계

■ 전업 작가의 생계 유지 어려움, 겸업 필수적 환경

- 전업 작가로서 활동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교육, 출판, 대필,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음. 문학 시장의 한정적인 수익 구조와 출판 산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많은 작가들이 창작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창작 외적인 활동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이는 작가들의 지속적인 창작 활동에 영향을 미침.

■ 창작과 겸업의 병행, 창작 지속성 확보 필요

- 강의, 출판 기고, 대필, 홍보 콘텐츠 제작 등 작가들의 겸업이 일반화되었지만, 이로 인해 창작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함. 특히 불규칙한 수입 구조 속에서 안정적인 창작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창작보다 생계 활동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현실이 지속됨.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작가 지원금 확대, 창작 레지던시 운영, 정기적인 원고료 지급 모델 마련이 필요함.

■ 디지털 플랫폼과 창작자 경제 모델, 수익 구조 다변화 필요

- 최근 이메일 구독 서비스, 유료 뉴스레터, 온라인 강의 플랫폼 등 디지털 기반 수익 창출 모델이 등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문학 창작자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 잡기에는 한계가 있음. 기존 출판 시장과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이 연계된 창작자 수익 구조를 개발하고, 공공 및 민간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전업 작가로 사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죠. 출판만으로는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결국 강의도 하고, 원고 청탁이나 대필도 하고, 여기저기 글 쓰는 일도 해야 해요. [...] 예전에는 그래도 한 권 출판하면 몇 년은 버틸 수 있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는 안 되니까, 글을 쓰면서도 계속 다른 일들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LA002)

"저도 강의하면서 글을 쓰고 있지만, 강의가 많아지면 창작 시간이 줄어드는 게 문제예요. [...] 원래는 강의가 창작 활동을 보조하는 개념이었는데, 요즘은 강의가 주가 되고 글 쓰는 시간이 뒷전이 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강의를 줄이면 생계가 어려워지니까, 결국은 계속 병행할 수밖에 없고요." (LA004)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글을 쓰려면 기본적으로 원고료가 꾸준히 나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메일 구독 서비스나 유료 뉴스레터 같은 걸로 독자들한테 직접 수익을 얻는 방식을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결국 창작 외적인 일이라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아지는 문제가 있어요." (LA003)

"출판 시장이 불확실하니까, 저도 온라인 강의 같은 걸 병행하면서 수입을 만들어야 했어요. [...] 처음에는 출판사와 계약해서 책을 내는 게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것만으로는 어렵다는 걸 실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 강의나 창작 컨설팅 같은 부가적인 활동을 더 고민하게 되는 거죠." (LA004)

2) 문예창작과 교육의 한계와 방향성

■ 문예창작과의 전통적 교육 방식, 변화하는 창작 환경과 괴리 발생

- 문예창작과는 여전히 전통적인 등단 시스템과 문학 중심 교육을 중시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들의 관심은 웹소설, 방송 대본, 게임 시나리오 등 다양한 창작 분야로 확장되고 있으며, 기존 문예 창작 교육이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등단을 목표로 한 창작 실습 위주의 교육 방식은 일부 학생들에게는 유용하지만, 다변화된 콘텐츠 산업 환경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학생들의 창작 관심 변화, 실무 중심 교육 필요

- 과거에는 문예창작과 학생들이 등단을 통해 시인이나 소설가로 데뷔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현재는 웹소설 작가, 방송 작가, 게임 시나리오 작가 등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대학의 교육 과정은 여전히 순수 문학 중심으로 운영되며, 콘텐츠 산업과 연계된 실무형 교육이 부족한 상황임. 학생들은 창작 기술뿐만 아니라, 시장 이해, 장르별 스토리텔링 기법, 디지털 콘텐츠 기획 등의 실용적인 역량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원하고 있음.

■ 문예창작과 커리큘럼 개편 필요, 창작과 산업 연계 강화

- 문학 중심 교육을 유지하면서도, 웹소설, 시나리오, 콘텐츠 기획 등 실무형 창작 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게임, 웹툰, 드라마 제작사와 협력하여 산업 연계형 커리큘럼을 도입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창작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 방식을 개편해야 함. 창작자의 역할이 다변화하는 만큼, 문예창작과도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융합형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문예창작과에서는 여전히 등단이 목표처럼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웹소설이나 시나리오, 게임 서사 같은 쪽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 그런데 학교 수업은 그런 걸 반영하기보다는 기존 문학 중심으로만 짜여 있어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과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LA003)

"요즘 학생들은 출판보다는 영상화, 웹 콘텐츠 같은 데 더 관심을 가지는데, 정작 학교에서는 그런 걸 배울 기회가 많지 않아요. [...] 등단이라는 길이 있긴 하지만, 그게 유일한 목표가 될 수는 없잖아요. 특히 웹소설 같은 건 창작 방식도 다르고, 플랫폼에 맞는 스토리텔링 기법도 필요하니까, 이런 걸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가 필요해요." (LA004)

"기본적으로 문예창작과 학생들이 졸업하면 꼭 시인이나 소설가가 되는 게 아니라, 출판 편집, 번역, 콘텐츠 기획 같은 일들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런 실무적인 교육이 거의 없어요. [...] 결국은 졸업하고 나서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배워야 하는데, 학교에서 미리 그런 교육을 해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LA003)

"문학을 공부하는 건 중요한데, 요즘은 문학이 다른 미디어랑 연결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게임 서사나 웹툰 대본, 드라마 기획 같은 것도 결국은 창작인데, 학교에서는 이런 걸 배울 기회가 별로 없어요. [...] 학교에서도 좀 더 산업과 연계된 교육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LA004)

3) 지역 문학 생태계의 배타성

■ 지역 문학 단체의 폐쇄적 운영, 외부 창작자의 진입 장벽 형성

- 지역 문학 단체와 행사는 기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외부에서 온 창작자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특정 지역 출신이거나 기존 문단과의 관계가 형성된 작가들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 신진 작가나 외부 작가들은 활동 기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구조는 지역 문학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지역 기반 창작자들의 활동 제한, 문학적 교류 활성화 필요

- 특정 지역에서 활동하는 창작자들이 지역 내 문학 단체와 연계하지 못할 경우, 문학적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함. 출판 기회 부족, 문학 행사 참여 제한, 창작 지원금 배분의 불균형 등이 주요한 문제로 지적됨. 이로 인해 지역 기반 창작자들은 외부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며, 장기적으로 지역 문학 생태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 개방적 문학 네트워크 구축, 외부 창작자와의 협력 강화 필요

- 지역 문학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외부 창작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창작자 교류 프로그램, 지역 기반 창작 레지던시 확대, 공모전 및 문학 행사에서 외부 창작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이 요구됨. 이를 통해 지역 문학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을 조성해야 함.

"지역에서 문학 활동을 하려면 결국 기존 단체나 네트워크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 지역 문학 단체들은 기존 멤버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외부에서 온 창작자들이 들어갈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활동하려는 신진 작가들이 자연스럽게 고립되는 경우도 많아요." (LA003)

"문학 행사가 지역 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외부 작가들에게는 참여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 사실 문학은 지역을 넘어서 더 넓게 교류해야 하는데, 지역 단체 안에서만 행사나 출판 기회를 나누는 경우가 많아서, 외부에서 들어가려면 네트워크를 만들거나 누군가의 추천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 지역 기반 창작자들끼리만 도는 폐쇄적인 구조가 생기는 거죠." (LA004)

"지역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가려면 결국 출판이나 행사 같은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 지역 단체나 행사에서 외부 작가들에게도 문을 열어주면 좋은데, 대부분 기존 작가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 그런 변화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신진 작가들은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LA002)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도 많고, 지역과 상관없이 문학 활동을 이어갈 방법이 많은데, 지역 문학계는 아직 그런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 온라인을 활용하면 더 많은 창작자들이 교류할 수 있고, 지역 문학도 더 넓게 확장될 수 있을 텐데, 아직은 기존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LA004)

4) 문학과 독서 교육의 현실적인 제약

■ 수행평가와 입시 중심의 문학 교육, 학생들의 문학적 흥미 저하

- 학교에서 문학 교육은 수행평가와 입시 대비를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학생들이 문학을 자유롭게 즐길 기회가 부족함. 문학 작품을 창의적으로 감상하고 토론하는 과정보다는 분석적인 해석과 정형화된 답안을 요구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어, 학생들이 문학을 단순한 평가 대상이나 학습 과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 이로 인해 문학에 대한 자연스러운 흥미와 감상 능력이 저하되고 있음.

■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한계, 평가 방식 개선 필요

-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문학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한 학기 한 권 읽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러한 활동이 수행평가와 연계되는 순간 학생들의 자발적인 독서 의욕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함. 감상문 작성, 시험 문제 출제 등의 방식이 강조되면서 독서가 평가의 도구로 전락하고, 학생들이 문학을 즐기기보다 학업 부담으로 느끼게 됨.

■ 문학 교육의 자율성 확대, 체험형 문학 활동 강화 필요

- 학생들이 문학을 보다 주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감상 활동과 체험형 문학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독서 토론, 창작 워크숍, 작가와의 대화 등 평가와 무관한 문학 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이 문학을 단순한 평가 대상이 아닌 개인적 경험과 사고를 확장하는 기회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방식을 개선해야 함.

"학교에서 문학을 배우는 방식이 결국 시험을 위한 공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 문학 작품을 읽고 자유롭게 감상하는 게 아니라, 문제 풀이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 학생들이 문학을 분석해야 하는 과제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방식이 계속되면 문학이 흥미로운 게 아니라 공부해야 하는 부담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어요." (LA005)

"한 학기 한 권 읽기 같은 프로그램이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시작됐는데, 결국 수행평가랑 연결되면서 학생들이 흥미를 잃는 경우가 많아요. [...] 감상문을 제출해야 하고, 시험에서 관련 문제가 나오다 보니, 학생들이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정해진 답을 찾아야 하는 과정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LA006)

"문학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기회가 많아져야 해요. [...] 독서 토론이나 작가와의 대화 같은 활동이 단순히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문학을 즐길 수 있는 경험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기회가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시험과 수행평가를 벗어나서 문학을 접할 수 있는 방식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LA007)

"결국 학생들에게 문학이 재미있어야 하는데, 현재 방식은 문학을 즐기는 게 아니라 분석하고 외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 교실에서 문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좀 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학생들도 문학을 학업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LA005)

5) 독서 프로그램과 문학 행사의 효과와 한계

■ 문학 행사와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 지속성 확보 필요

- 학교에서 진행하는 문학 행사는 학생들에게 문학적 흥미를 유발하고 창의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작가 초청 강연, 독서 토론, 글쓰기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문학을 입시 과목이 아닌 문화적 경험으로 받아들이도록 돕는 기회가 됨. 그러나 이러한 행사들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인 문학 교육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짐.

■ 예산 및 행정적 지원 부족, 교사의 부담 증가

- 문학 행사는 대부분 교사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운영되며, 예산과 행정적 지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외부 강사 초청, 행사 기획, 자료 제작 등 다양한 요소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공식적인 지원 체계가 미비하여 교사들이 개인적인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는 사례도 발생함. 이에 따라 문학 행사의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학교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

■ 체계적인 문학 교육 지원 정책,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 마련 필요

- 문학 행사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과 학교 차원의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교사들이 부담 없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또한, 지역 문학 기관 및 공공 도서관과 협력하여 정기적인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문학 행사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문학적 경험을 쌓고, 문학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문학 행사 같은 걸 하면 학생들이 정말 좋아해요. 작가 초청 강연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문학을 어렵게 생각하던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 그런데 문제는 이런 행사가 한 번 열리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 매년 새롭게 준비해야 하다 보니 연속성이 부족해요." (LA005)

"학교에서 문학 행사를 진행하려면 교사들이 직접 나서서 기획하고 운영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 외부 강사 초청이나 자료 준비 같은 것들도 결국 예산이 필요하지만,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일도 생기죠. 행사를 이어가고 싶어도 매번 새롭게 예산을 확보해야 하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LA006)

"학생들이 문학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려면 행사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예산이나 인력 문제 때문에 한두 번 열리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 교육청이나 지역 문학 기관 같은 곳에서 학교와 연계해서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훨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A007)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도 많으니까, 오프라인 행사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학생들이 문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 예를 들면 작가와의 대화 같은 것도 온라인으로 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을 거고, 문학 토론 같은 것도 디지털 방식으로 운영하면 접근성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LA006)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경제적 안정성을 위한 지원 확대, 실무형 교육 강화, 지역 문학 네트워크 개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 구축

1) 창작자 생계 지원 및 다각화된 지원 모델 구축

■ 창작자의 경제적 안정성 확보, 정기적 창작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

- 창작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 형태의 창작 지원금이나 정기적인 원고료 지급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재 창작 지원은 공모전, 프로젝트 기반 지원 등이 중심이지만, 단발적인 지원만으로는 장기적인 창작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임. 지속적인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인 원고료를 지급하는 정책이 요구됨.

■ 창작 외 활동의 제도적 인정, 공식적인 지원 체계 마련

- 많은 창작자들이 강의, 출판 컨설팅, 기획 및 편집 등 창작 외 활동을 병행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창작자로서의 공식적인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지원이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창작자의 다변화된 활동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강의 및 컨설팅 등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함.

■ 공공·민간 협력 기반 창작 지원 확대,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 조성

- 창작자들이 경제적 불안 없이 창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민간 출판사가 협력하여 장기적인 지원 모델을 개발해야 함. 공공 부문의 창작 레지던시 확대, 민간 출판사와 연계한 정기 원고료 지급 프로그램 도입, 창작자의 저작권 및 유통 수익 구조 개선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해야 함.

"창작을 지속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공모전이나 프로젝트 지원 같은 게 있긴 하지만, 한 번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되지는 않거든요. [...] 결국은 창작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 다른 일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정기적으로 원고료를 지급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창작자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지원이 부족한 게 현실이죠." (LA003)

"작가들이 강의나 출판 컨설팅 같은 일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활동이 창작자로서의 경력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 창작 외 활동도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면 좋겠어요. 강의를 하면서도 창작을 병행해야 하는데, 강의 일정이 많아지면 정작 창작에 집중할 시간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LA004)

"출판사와 계약을 맺어도 정기적으로 원고료를 지급받는 경우가 드물어요. [...] 원고료 지급이 한 번에 끝나거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작가들은 꾸준히 창작하면서도 수입을 보장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출판사 차원에서 정기적인 창작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LA002)

"창작을 전업으로 하려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서 지속적인 지원 모델을 만들어야 해요. [...] 예를 들면 창작 레지던시 같은 게 확대되거나, 정기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작가들이 좀 더 창작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안정적인 창작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좋은 작품도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LA003)

2) 문예창작과 교육 개편 및 실무형 콘텐츠 강화

■ 문예창작과 교육의 전통적 모델 한계, 실무형 교육 확대 필요

- 문예창작과 교육은 여전히 등단 중심의 전통적인 창작 교육에 집중되어 있으나, 변화하는 문학 시장과 콘텐츠 산업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학생들은 웹소설, 대중문학, 방송 대본, 게임 시나리오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의 교육 과정은 이러한 실무적 역량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창작 실습뿐만 아니라 출판·기획·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실무형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실무 중심 커리큘럼 개편, 창작과 산업 연계 강화

- 기존의 창작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웹소설, 웹툰 스토리, 시나리오, 콘텐츠 기획 등 산업과 연결된 창작 교육이 필요함. 학생들이 졸업 후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출판사, 플랫폼 기업, 영상·게임 제작사와 협력한 실습형 커리큘럼을 도입해야 함. 또한, 창작자들에게 필요한 저작권 교육, 디지털 유통 방식, 마케팅 전략 등의 교육도 병행하여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학생들의 진로 다변화 지원, 창작 교육의 실용성 확대

- 문예창작과 졸업생들이 단순히 등단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 기획, 출판 편집, 교육, 번역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를 위해 대학 내 창작 지원 센터 운영, 창작 관련 스타트업 연계, 창작 실습 프로그램 확대 등의 방안이 요구됨. 문예창작 교육이 변화하는 시장과 조화를 이루며, 학생들이 실질적인 창작자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해야 함.

"문예창작과에서는 여전히 등단을 목표로 한 교육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웹소설, 드라마 대본, 게임 시나리오 같은 다양한 창작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학교 수업에서는 그런 걸 배울 기회가 많지 않아요. [...] 결국 산업 흐름과 교육이 따로 가는 느낌이 드는 거죠." (LA003)

"창작 실습이 중요하긴 하지만, 단순히 창작만 배우는 걸로는 졸업 후에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해요. [...] 예를 들어 웹소설을 쓰려면 단순한 문학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플랫폼 특성, 연재 전략 같은 것도 알아야 하는데, 그런 걸 배울 기회가 거의 없어요. 결국 학생들이 독학을 하거나 졸업 후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워야 하는 상황이에요." (LA004)

"문예창작과를 졸업한다고 다 작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출판 편집, 번역, 콘텐츠 기획 같은 다양한 길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이런 걸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가 부족해요. [...] 콘텐츠 산업과 연계된 교육이 더 많아지면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LA003)

"저작권 문제나 디지털 유통 방식 같은 것도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런 실무적인 부분을 배울 기회가 별로 없어요. [...] 결국 창작만이 아니라, 창작을 산업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가르쳐야 학생들이 졸업 후에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LA004)

3) 지역 문학 네트워크 개방 및 외부 창작자 지원

■ 지역 문학 단체의 개방성 강화, 외부 창작자 참여 확대 필요

- 현재 많은 지역 문학 단체와 행사가 지역 내 네트워크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외부 창작자들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구조는 문학 활동을 지역적으로 고립시키고, 신진 작가나 외부 문인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문학 단체는 외부 창작자들에게 보다 개방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공모전, 문학제, 공동 창작 프로젝트 등을 통해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플랫폼 활용, 지역 문학과 외부 문학계 연계 강화

- 지역 문학 활동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지역 문학 단체가 디지털 공간을 통해 외부 작가들과 교류하고, 작품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문학 활동의 확장성이 높아질 수 있음. 이를 위해 지역 문학 행사와 연계한 온라인 문학 포럼, 디지털 창작 플랫폼, 비대면 작가 네트워크 구축 등의 방안이 요구됨.

■ 지속 가능한 지역 문학 생태계 구축, 협력 기반 확대

- 지역 문학이 활발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부 창작자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공공기관, 대학, 출판사, 문화재단 등과 협력하여 창작 레지던시, 문학 교류 프로그램, 공동 출판 기획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지역 문학이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넘어 보다 개방적이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지역 문학 단체들이 오랫동안 형성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새롭게 유입되는 작가들이 쉽게 적응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어요. [...] 기존 멤버들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되다 보니, 외부 창작자들이 참여하려면 누군가의 추천이나 연결고리가 필요하고,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되는 경우도 많아요." (LA003)

"지역에서 문학 행사를 열어도 결국은 같은 사람들끼리 반복적으로 모이는 경우가 많아요. [...] 외부 작가들이 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열어두면 더 다양한 문학적 교류가 가능할 텐데, 아직 그런 변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LA004)

"요즘은 온라인을 활용하면 지역을 넘어 창작자들이 쉽게 연결될 수 있는데, 지역 문학 단체들은 여전히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 온라인 문학 포럼이나 디지털 창작 플랫폼 같은 게 활성화되면 지역 문학도 더 확장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LA002)

"지역 문학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외부와의 교류가 필수적인데, 아직까지는 지역 내에서만 문학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 지역 문학 단체가 대학이나 공공기관과 협력해서 창작 레지던시나 문학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더 많은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LA004)

[그룹1-2] 예비 창작자

1. 참석자 명단

■ [그룹 1-2] 예비 창작자의 참석자 명단은 아래와 같이 협의체 3인, 참석자 3인으로 구성됨

[표 2-2] 참석자 명단 - [그룹 1-2] 예비 창작자

그룹	참석자 구분	참석자 분류	참석자 코드	성별	연령대	경력
[그룹 1-2] 예비 창작자	연구협의체(n=3)	공공	LA-A	-	-	-
		공공	LA-B	-	-	-
		민간	LA-C	-	-	-
	참석자(n=3)	예비 창작자	LA008	여	10대	0년
		예비 창작자	LA009	여	20대	4년
		예비 창작자	LA010	남	30대	2년

2. 주요 논의 사항

■ 문학 창작자의 진입 장벽과 교육 환경
- 문예창작 교육의 수도권 집중 문제와 비수도권 창작자들의 교육 접근성 부족

■ 등단 제도의 구조와 대안 모색
- 등단 제도의 높은 진입 장벽과 창작자의 개성 제한 문제, 비등단 출판의 현실

■ 창작과 생계 병행 문제
- 문학을 전업으로 삼기 어려운 현실과 문화예술 관련 직업을 통한 창작 지속 가능성

■ 문학 창작 공간과 지원 사업
- 창작촌과 레지던시의 접근성 문제, 청년 창작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사업 확대 필요

■ 문학의 대중화와 청년 창작자의 지면 확보
- 청년 창작자들이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공공 지면 마련 필요

3.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청년 창작자 교육, 등단, 생계 현실과 대안

1) 문학 창작자의 진입 장벽과 교육 환경

■ 문예창작 교육의 수도권 집중, 지역별 균형 발전 필요

- 문예창작을 준비하는 청년 창작자들은 대학의 문예창작과, 외부 교육기관, 사설 강의를 통해 창작 역량을 키우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 거주 청년들은 동일한 기회를 얻기 어려움. 이는 지역 간 창작 인프라 격차를 심화시키며, 지방 창작자들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함. 지역 기반 창작 교육을 강화하고, 권역별 교육 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창작 교육 접근성 문제, 온라인 및 원격 교육 지원 강화 필요

- 비수도권 청년들은 문예창작 교육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우며,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데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느낌. 특히, 외부 강의나 창작 워크숍에 참여하기 위해 교통비와 체류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강의, 원격 창작 멘토링, 비대면 합평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여 지역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지역 창작 공간 및 네트워크 부족, 창작 커뮤니티 활성화 필요

- 수도권에서는 문학 창작 스터디, 창작촌, 문예지 출판사 등의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운영되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러한 창작 커뮤니티가 부족함. 창작자 간 교류 기회가 적어 문학적 성장을 도모하기 어려우며, 창작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동기 부여가 약해지는 문제도 있음. 지역 내 창작 공간을 확충하고,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창작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속적인 문학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저는 부산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고등학교 3학년이고요. 저는 시 자체는 초등학교 5학년, 아니면 그 전 더 어릴 때부터 써왔고. 시인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 건 중학생 때부터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건강상의 이유로 예술고등학교는 진학하지 못하고, 부산에서 쭉 시를 써오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인분들 외부 수업이나 아니면 대학생분들의 과외를 들었고, 그렇게 해서 특기자 전형으로 내년에 대학 문예창작과에 들어가게 될 거 같고요. [...] 그런데 수도권에는 문예창작과도 많고, 문학 캠프나 창작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지방에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다 보니까, 저도 결국 수도권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차이가 좀 아쉬웠습니다." (LA008)

"저도 여러 프로그램 다녔을 때 느꼈던 거는 대부분의 커리큘럼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스타일의 시를 써야 하고 개개인마다 어떤 시가 더 잘 어울리고 장점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교류를 대부분 하고, 딱히 서로서로 차이가 있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지방에서는 그런 걸 접하기가 어렵죠. 수도권에서는 독립서점이나 문학관에서 창작 수업도 많고, 유명한 작가님들이 수업을 열기도 하는데 지방에는 그런 기회가 너무 적어요. 결국 서울까지 올라와야 하는데, 교통비도 부담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지역에서도 좋은 강의가 많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LA009)

"수업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스터디도 만들고 하면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게 큰 도움이 됐어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이런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지방에서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더라고요. [...]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는 출판사에서 주최하는 낭독회라든가, 문예지 편집자들과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행사들이 많은데, 지방에서는 그런 걸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무래도 창작자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까, 외롭게 글을 쓰는 경우도 많고, 지속적으로 창작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LA010)

"저는 그래서 캠프 같은 거 초대해 주신 그런 건 상대적으로 비용의 부담이 덜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해주시는 글틴 청소년 캠프도 갔었고, 그다음에 대산 청소년 캠프랑 중앙대 시 문학 캠프 이 정도를 중복해서 한 6번 정도 다 합쳐서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얘기를 나눌 때마다 친구들이 아쉬워하는 거는 예술계 고등학생이 아닌 이상은 커뮤니티 형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 지방에서는 글 쓰는 친구들끼리 모일 기회도 적고,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거의 없어요. 창작 네트워크가 아예 없다고 해도 될 정도예요. 그래서 수도권으로 가야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답답했어요." (LA008)

2) 청년 창작자의 문학 생태계 진입 과정

■ 등단을 위한 경쟁 심화, 창작자의 심리적 부담 증가

- 청년 창작자들은 주로 신춘문예나 문예지를 통한 등단을 목표로 하지만, 등단 과정에서 과도한 경쟁과 높은 진입 장벽을 경험함. 특히, 등단이 작가로서의 공식적인 출발점으로 여겨지는 환경에서, 기회를 얻기 위한 압박감이 크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작 활동의 지속성을 위협함. 보다 다양한 등단 경로를 마련하고, 청년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함.

■ 문예지 및 신춘문예의 획일화, 창작 개성 위축 문제

- 신춘문예와 문예지는 각각 고유한 스타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창작자들이 특정한 문체나 주제를 따라가는 경향이 강함. 이는 창작자의 개성을 제한하고 창작 활동의 자유로움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함. 문학 생태계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등단 시스템을 보완하고, 창작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대안적 등단 방식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비등단 창작 경로 확대, 창작자들의 선택지 다양화 필요

- 기존의 신춘문예 및 문예지 중심 등단 구조를 벗어나, 출판사나 독립 문학 플랫폼을 통한 등단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안적 경로 역시 편집자의 기준에 의해 선별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등단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한계가 존재함. 창작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작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온라인 문학 플랫폼, 독립 문예지, 공공 창작 지원 사업 등의 다각적인 경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신춘문예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 돼요. 한 번 떨어지면 1년을 다시 준비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한 신문사에만 내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내야 하고, 결국에는 거의 모든 곳에 맞춰서 글을 쓰게 되는 거죠. [...] 저는 아직 등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위에서도 신춘문예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걸 봤어요. 당장 이번에 떨어지면, 또 1년을 투자해야 하니까요. 그런 심리적 부담이 창작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요." (LA008)

"등단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 내가 정말 내 스타일대로 글을 쓸 수 있을까 하는 거였어요. 등단을 하려면 신춘문예든 문예지든 거기에 맞춰서 글을 써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 그런데 그렇게 하면 결국 다 비슷한 스타일이 되더라고요. 개성을 지키면서 등단하는 게 사실상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요." (LA009)

"비등단으로 책을 낼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출판사들이 신춘문예 출신 작가들을 더 선호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비등단 출판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 아무래도 출판사 입장에서는 등단을 한 사람이 이미 검증된 작가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래서 출판사에서도 '이런 작품이 잘 팔린다'는 식의 기준이 있는 것 같고, 결국 신춘문예나 문예지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LA010)

"등단을 안 해도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다고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등단을 하지 않으면 작품을 발표할 곳이 많지 않고, 작품을 공개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 그래서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 같은 걸 활용하려고도 하지만, 그게 문학적으로 인정받는 분위기는 또 아니니까요. 뭔가 공식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대안적인 등단 경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LA008)

"결국 새로운 발표 경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예지 말고도 다양한 발표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독립 문예지라든지, 웹진이나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게 더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아요. [...]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문학을 접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쪽으로도 창작자들이 등단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으면 합니다." (LA009)

3) 창작과 생업의 병행 문제

■ 전업 작가로서의 어려움, 창작과 생계의 병행 필요

- 청년 창작자들은 전업 작가로 활동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으며, 창작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인식하고 있음. 문학 시장의 규모가 작고, 출판사와 문예지에서 신진 작가들에게 제공하는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창작자들은 창작과 생업을 병행할 수밖에 없음.

■ 문화예술 관련 직업을 통한 창작 지속 가능성 모색

- 창작자들은 출판사, 전시기획, 문화재단 등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서 직업을 가지면서 글을 쓰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음. 이는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는 동시에 창작 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며 작품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업무 부담이 클 경우 창작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예술가를 위한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이 필요함.

■ 창작 지원 정책 확대,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 조성 필요

- 전업 작가로 활동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작품을 발표할 수 있도록 공공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창작 지원금, 레지던시 프로그램, 공공 창작 공간 제공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생계 부담을 줄이면서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전업 작가로 살기 어려운 현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막상 창작을 하다 보면 고민이 많아져요. 전업을 한다고 해서 책이 꾸준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일을 하면서 창작을 병행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 그래서 대부분은 출판사 편집자나 강사,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면서 글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에는 생계를 유지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창작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LA008)

"지금 당장 등단을 해도 지속적으로 작품을 발표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요. 예를 들면, 신춘문예에 당선돼도 그다음 책을 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작가들이 문화예술 관련 직업을 가지면서 글을 쓰는 방식도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 출판사에서 일하거나 문예강사를 하면서 글을 쓰면 창작 환경과 가깝게 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업무가 많아지면 정작 창작에 집중할 시간이 줄어드는 게 현실이에요." (LA009)

"공공 지원이 좀 더 확대되면 좋겠어요. 지금도 창작 지원금이나 레지던시 프로그램 같은 게 있지만, 신진 작가들이 활용하기에는 문턱이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 창작 공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일정 기간만 이용할 수 있거나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지역 창작자들은 접근하기 어렵고요. 지속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창작과 생계를 병행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LA010)

"사실 창작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작가는 극소수예요. 대부분은 강의를 하거나, 기고를 하거나, 출판계에서 일하면서 글을 쓰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런 방식도 결국 안정적이지 않아요. [...] 강의는 계약직인 경우가 많고, 출판업계 일은 업무 강도가 세서 글을 쓸 시간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작을 지속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LA008)

"창작을 위한 지원이 좀 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청년 창작자들이 단기적으로라도 경제적 부담 없이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 창작 지원금이나 창작 공간 제공 같은 지원책이 확대되면, 적어도 생계 때문에 창작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은 줄어들 것 같아요." (LA009)

나. 생태계 이슈

교육 기회의 불균형, 등단의 부담, 창작 공간과 네트워크 부족 속에서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 모색 필요

1) 문학 창작 교육의 수도권 집중 현상

■ 수도권 중심의 창작 교육, 지역 창작자들의 부담 가중

- 문학 창작 교육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 거주 청년 창작자들은 교육을 받기 위해 대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함. 이는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초래하며, 창작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킴.

■ 지역 기반 창작 교육 프로그램 부족, 균형 있는 교육 환경 조성 필요

- 비수도권 지역에는 문예창작과가 개설된 대학이 적고, 외부 강의나 문학 창작 워크숍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청년 창작자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어려움. 지역 내 문학 창작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문예창작 교육을 위한 공공기관 및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창작 교육과 지역 맞춤형 지원 확대 필요

-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창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 원격 멘토링, 지역 문화재단과 연계한 창작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함. 지방 창작자들이 창작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수도권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지방에서는 창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적어요. 저도 문학을 배우고 싶어서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봤지만, 대부분 수도권에서 진행되더라고요. 결국 서울로 가야 하는데, 교통비랑 숙박비까지 부담해야 하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죠. [...]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은 학교나 지역 기관에서 자연스럽게 창작 교육을 접할 수 있는데, 지방에서는 그런 기회를 얻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LA008)

"요즘 온라인 강의가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문예창작 관련 강의는 많지 않아요. 문학 특강 같은 건 있어도 정기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과정이 적고, 창작 피드백을 받을 기회도 부족해요. [...] 원격 멘토링이나 온라인 창작 합평 모임 같은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지방에서도 창작을 배우는 게 훨씬 쉬워질 것 같아요." (LA008)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문예창작과가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작을 배우려면 서울로 가거나 온라인 강의를 찾아야 하는데, 문학 창작 강의는 많지도 않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 같아요. [...] 학교에서도 문예반 같은 활동이 거의 없어서 혼자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역에서도 문예창작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어요." (LA009)

"서울에서는 독립 문예지나 창작 스터디 같은 모임이 많아서 창작자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지방에서는 그런 걸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 문학관이나 도서관에서 창작 강의를 여는 경우도 있지만, 단발성 강의가 많아서 꾸준히 배울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창작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LA010)

2) 등단 제도의 중압감과 변화 필요성

■ 신춘문예와 문예지 중심 등단 구조, 높은 경쟁률로 인한 심리적 부담

- 신춘문예와 문예지를 통한 등단이 전통적인 작가 데뷔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극도로 낮은 합격률과 경쟁 심화로 인해 많은 청년 창작자들이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음. 등단이 작가로서의 공식적인 시작점으로 인식되면서, 창작 활동보다 등단 자체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경향도 나타남.

■ '비등단 출판'의 대안 가능성, 그러나 여전히 높은 진입 장벽

- 신춘문예 외에도 독립 출판사나 문학 플랫폼을 통한 '비등단 출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 역시 편집자에 의해 작품이 선별되는 구조를 가지며 기존 등단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음. 특정한 문학적 경향이나 출판사의 스타일에 맞춰야 하는 부담이 존재하며, 신진 작가에게 문이 완전히 열린 것은 아님.

■ 등단 경로 다변화 및 창작 기회 확대 필요

- 창작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문학적 시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등단 방식의 다변화가 필요함. 공공기관 및 독립 문예지가 주도하는 신진 작가 발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온라인 창작 플랫폼이나 디지털 문예지 등을 활용하여 보다 자유롭게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함.

"신춘문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글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각 신문사마다 선호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심사위원이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도 다르니까, 결국 제 글을 거기에 맞추게 되더라고요. [...] 그러다 보니까 등단 자체가 목표가 되고, 정작 내가 쓰고 싶은 글을 놓치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심리적으로 부담이 컸어요." (LA008)

"등단을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길고 힘들어요. 한두 번 도전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몇 년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불안해요. [...] 만약 떨어지면 다시 1년을 준비해야 하니까 계속 신춘문예에 매달리게 되고, 그게 반복되면 창작 자체가 즐겁지 않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결국에는 신춘문예가 아니라 다른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LA009)

"비등단 출판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거기도 기준이 있잖아요. 출판사에서 선호하는 스타일이나 방향이 정해져 있어서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 비등단 출판이라고 해도 이미 이름이 알려진 작가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고, 신인 창작자가 출판까지 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LA010)

"등단을 하지 않고도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독립 문예지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작품을 발표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여전히 공식적인 경로로 인정받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 문학계에서도 신진 작가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LA008)

"출판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온라인 문예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창작 지원 프로그램이 좀 더 많아진다면, 청년 창작자들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꼭 신춘문예나 문예지를 통하지 않더라도 작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LA009)

3) 창작자의 지속적인 창작 환경 부족

■ 청년 창작자들의 창작 공간 부족, 안정적 창작 환경 조성 필요

- 청년 창작자들은 지속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주거와 창작 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 집중하기 어렵고, 독립적인 창작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현실이 존재함.

■ 기존 창작촌의 접근성 문제,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예버덩, 토지문화관 등 일부 창작촌이 운영되고 있지만,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낮고 일정 기간 동안 머물러야 하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함. 특히, 학생이나 직장인 창작자의 경우 장기간 거주하며 창작에 몰입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활용도가 낮음.

■ 도심형 창작 공간 확충 및 유연한 창작 지원 필요

- 청년 창작자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심형 창작 공간을 확충하고, 단기 레지던시나 창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시간 단위 대여가 가능한 창작 공간, 카페형 창작 스튜디오, 공공 도서관 내 문학 창작실 등의 모델을 도입하여 창작자들이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저는 창작을 위한 공간이 정말 부족하다고 느껴요. 주거공간과 창작 공간이 같은 곳에 있다 보니까 집중하기가 어렵고, 또 창작할 공간을 따로 마련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 그러다 보니 집에서 글을 쓸 때도 작업에 몰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창작 환경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힘들어요." (LA008)

"현재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 있는 창작촌을 이용하려면 이동이 어렵고, 일정 기간 동안 창작에만 몰입하기도 어렵죠.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은 장기간 그곳에 머물 수 없어서, 사실상 창작촌의 활용도가 낮은 편인 것 같아요. [...] 그런 공간들이 수도권 근처나 더 접근 가능한 지역에 있었다면 더 많은 창작자들이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에요." (LA009)

"사실 창작촌도 좋긴 하지만, 오래 머무르기 힘든 게 현실이에요. 대부분 일정 기간 동안만 지원되니까, 그 기간 안에 결과물을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죠. [...] 도심 근처에서 유연하게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시간 단위로 대여할 수 있는 창작 공간이나,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페형 창작 스튜디오 같은 모델이 있으면 창작자들이 훨씬 편하게 창작할 수 있을 거예요." (LA010)

4) 창작 지원사업의 접근성과 정보 부족

■ 문학 창작 지원사업 인지도 부족, 청년 창작자의 참여 저조

- 문학 창작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지만, 청년 창작자들에게 충분히 홍보되지 않아 활용도가 낮음. 특히, 신진 작가를 위한 창작 지원금, 창작 공간 제공, 교육 프로그램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무료 창작 교육 프로그램 접근성 문제, 홍보 및 안내 강화 필요

- 일부 공공기관 및 민간 단체에서 무료 창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상 청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아 참여율이 저조함.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나, 특정 커뮤니티를 통해서만 정보가 공유되는 경우가 많아 비수도권 및 독립 창작자들의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함.

■ 지원사업 정보 통합 및 창작자 맞춤형 안내 시스템 구축 필요

- 청년 창작자들이 손쉽게 창작 지원사업 및 교육 프로그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주도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온라인 공지, 뉴스레터, 창작자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별 창작 지원 담당 기관과 연계하여 창작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저는 창작 지원사업에 대해 알지 못해서 여러 기회를 놓쳤어요. 사실 지원사업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 그리고 지원사업을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도 구체적으로 안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많은 청년 창작자들이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LA008)

"저는 무료 창작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참여하기 어려웠어요. [...] 수도권 중심으로만 프로그램이 홍보되고, 그 정보도 어느 커뮤니티에만 공유되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비수도권 창작자들에게는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LA009)

"지역에서 문학 창작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데, 정보가 부족해서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창작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통합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 각 지역별 창작 지원 사업도 더 많이 알려지면, 그만큼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을 텐데, 아직도 정보가 산발적이라 접근이 어렵습니다." (LA010)

5) 작가 지망생들의 네트워크 부족

■ 창작자 간 네트워크 형성 중요성, 비공식 창작 모임 활성화

- 청년 창작자들은 외부 교육기관이나 문예창작과에서 만난 동료들과 스터디 그룹을 결성하거나, 독립 문예지·창작 워크숍 등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모임은 창작 피드백을 주고받고, 문학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창작 지원 구조로 기능함.

■ 일반 고등학교 창작자들의 네트워크 부족, 접근성 확대 필요

- 예술계 고등학교나 문예창작과를 거치지 않은 청년 창작자들은 공식적인 창작 커뮤니티에 접근하기 어려우며,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문학 창작을 함께할 동료를 찾기가 쉽지 않음. 이로 인해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부재하거나, 창작 활동을 독학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창작 환경 조성이 어렵게 됨.

■ 공공 및 온라인 창작 커뮤니티 활성화, 창작 교류 기회 확대

- 청년 창작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 창작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지역 도서관·문화재단과 연계한 창작 모임을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또한, 예술계 고등학교 외 일반 학교에서도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문학 네트워크에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저는 교육기관이나 워크숍에서 만난 사람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창작에 대해 피드백을 주고받고 있어요. 이런 모임들이 큰 도움이 되고, 창작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 그 덕분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창작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더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LA008)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창작에 관심이 있었는데, 문예창작과나 예술고등학교에 다닌 친구들이 아니어서 문학 창작을 같이 할 동료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사실 창작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거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학으로 글을 쓰며 계속 고민해야 했죠. [...] 이런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창작을 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LA009)

"기회가 된다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른 창작자들과 교류하고 싶어요.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창작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 그러나 그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라서, 좀 더 많은 창작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A010)

"대부분 창작 모임이나 창작 활동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찾기가 힘들어요. [...] 지역 도서관이나 문화재단에서 창작자들이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창작자들끼리 의견을 나누고 배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LA009)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청년 창작자의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을 위한 교육, 발표 기회, 창작 공간 확대 방안 마련

1) 지역 기반 창작 교육 프로그램 확대

■ 문예창작 교육의 수도권 집중 완화, 지역 창작 프로그램 확대 필요

- 현재 문예창작 교육 기회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 거주 창작자들은 교육을 받기 위해 대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부담을 겪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창작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지역 기반 창작 지원 인프라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작가 파견 및 정기 창작 워크숍 운영, 교육 격차 해소

- 지역 창작자들이 보다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작가를 지역으로 파견하여 정기적인 창작 워크숍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수도권 이동 없이도 전문적인 창작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지역 내 창작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 공공 도서관 및 문화재단 연계 창작 강좌 개설, 지속적 교육 환경 조성

- 지역 공공 도서관이나 문화재단과 협력하여 창작 강좌를 개설하고, 지역 창작자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창작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에서도 체계적인 창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창작 생태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함.

"저는 서울에 있는 문예창작 교육을 듣기 위해 매번 수도권으로 올라와야 했어요. 교통비도 많이 들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 창작에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어요. [...] 지방에서 문예창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창작 프로그램이 확충되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부담이 줄어들고 더 많은 창작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LA008)

"지방에서도 좋은 작가들이 많이 계시는데, 수도권으로 오지 않아도 창작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작가를 지역으로 파견해서 정기적인 워크숍을 진행한다면, 지역 창작자들이 더 쉽게 창작 지도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 이렇게 하면 지방 창작자들도 수도권과 비슷한 기회를 얻을 수 있겠죠." (LA009)

"저는 지역에서 창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요. 공공 도서관이나 문화재단이 주도하는 창작 강좌가 있으면, 창작자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죠. [...] 특히,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면, 창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LA010)

2) 미등단 창작자를 위한 지면 제공 및 홍보 강화

■ 청년 창작자의 작품 발표 기회 부족, 대안적 발표 채널 필요

- 등단 이전의 청년 창작자들은 작품을 발표할 공식적인 기회가 부족하여 창작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신춘문예나 문예지를 통한 등단 외에도, 보다 자유롭게 작품을 공개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발표 채널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기반 창작 플랫폼 활성화, 접근성 확대

- 문학 웹진, SNS 기반 문학 플랫폼, 독립 문예지 등의 온라인 공간을 활용하여 청년 창작자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음. 이를 통해 기존 문예지와 출판사의 문턱을 낮추고, 창작자들이 독자와 직접 소통할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음.

■ 공공 주도의 문학 발표 지면 및 창작자 지원 사업 강화

- 공공기관이나 문학 단체가 주도하여 청년 창작자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웹진을 운영하거나, 정기적으로 창작 공모전을 개최하는 방식으로 작품 발표 기회를 늘릴 필요가 있음. 또한, 독립 문예지 및 온라인 문학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등단 경로를 마련하고, 신진 창작자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저는 등단 전에 작품을 발표할 기회가 부족해서 많이 고민했어요. 신춘문예나 문예지 외에는 작품을 발표할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 그런 이유로 창작을 계속하는 게 어렵고, 결국 어떻게 하면 내 작품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다양한 발표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A008)

"등단을 하지 않으면 문예지에 작품을 실을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온라인 문학 플랫폼이나 웹진을 통해서도 작품을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요즘은 SNS나 인터넷 공간에서 직접 독자와 소통할 수 있어서, 그런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창작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LA009)

"독립 문예지나 온라인 문학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어요. 이런 곳에서 작품을 발표하면, 기존 문예지와 출판사의 문턱을 낮출 수 있어서 신진 창작자들도 더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죠. [...] 그런데 그런 플랫폼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해요." (LA010)

3) 창작 공간 지원 및 주거 환경 개선

■ 청년 창작자의 창작 공간 부족, 지속 가능한 지원 확대 필요

- 청년 창작자들은 안정적으로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작품 활동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기존 창작촌이나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일정 인원만 수용할 수 있어 기회가 제한적이며,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접근성이 떨어짐.

■ 창작촌 및 레지던시 프로그램 확대, 참여 기회 확대 필요

- 현재 운영 중인 창작촌의 수를 늘리고, 신진 창작자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일정 기간 거주하며 창작에 몰두할 수 있는 장기 레지던시뿐만 아니라, 단기 창작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함. 이를 통해 학생, 직장인 창작자들도 부담 없이 창작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수도권 및 도심형 창작 공간 조성, 접근성 강화

-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에서도 단기 창작 공간을 제공하여 청년 창작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공공 도서관, 문화재단, 예술기관과 연계하여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창작 스튜디오, 공유 작업실, 카페형 창작 공간 등을 조성하면 보다 많은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임.

"저는 창작 공간이 부족해서 계속 창작에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어요. 주거지와 창작 공간이 같은 곳에 있다 보니 집중이 안 되고, 독립적인 창작 공간을 마련하려면 경제적으로 너무 큰 부담이 되더라고요. [...] 그래서 창작 활동을 지속하기가 힘들었어요. 안정적인 창작 환경이 필요한 것 같아요." (LA008)

"현재 창작촌이나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몇 개 있지만, 거기에서 일정 기간만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활용도가 낮은 것 같아요. [...] 그런 프로그램의 수가 적고,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 위치해 있어 창작자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창작에 몰두할 기회가 한정적이에요." (LA009)

"수도권 내에서도 창작 공간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공공 도서관이나 문화재단과 연계해서 창작 공간을 시간 단위로 대여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창작자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 [...] 이런 공간들이 많이 마련되면, 창작자들이 창작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A009)

"장기적으로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창작촌도 그렇고, 장기간 머무는 프로그램은 정말 적은데, 단기적인 창작 공간을 제공하는 곳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학생들이나 직장인 창작자들이 부담 없이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LA010)

Ⅱ. 창작

1. 그룹 구성

■ 문학 분야 Ⅱ. 창작 단계에 대해 크게 [그룹 2-1] 작가, 평론가 등, [그룹 2-2] 활동 조력자 2개 소그룹으로 구분하여 의견 수렴을 진행함

■ [그룹 2-1] 작가, 평론가 등의 경우 23회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41인의 참석자로 구성하였고,, G1. 작가 - 수도권(25인), G2. 작가 - 지역(8인), G3. 아동문학(5인), G4. 평론(3인)의 4개 소그룹으로 나누어 정리를 진행하였음

[표 2-3] 그룹 구성 - Ⅱ. 창작 [그룹 2-1] 작가, 평론가 등

그룹	소그룹	연번	날짜	장소	참석자
[그룹 2-1] 작가, 평론가 등	G1. 작가 - 수도권	1	2024-08-20	패스트파이브 용산점 23C	LA011, LA012
		2	2024-08-20	패스트파이브 용산점 23D	LA013, LA014
		3	2024-08-27	패스트파이브 용산점 23D	LA015, LA016, LA017
		4	2024-08-29	패스트파이브 용산점 23C	LA018, LA019
		5	2024-09-03	패스트파이브 용산점 23D	LA020, LA021
		6	2024-09-03	패스트파이브 용산점 23C	LA022, LA023
		7	2024-09-04	패스트파이브 용산점 23C	LA024, LA025
		8	2024-09-04	패스트파이브 홍대2호점 L1A	LA026, LA027
		9	2024-09-09	패스트파이브 용산점 23C	LA028
		10	2024-10-15	패스트파이브 용산점 23C	LA029, LA030
		11	2024-10-29	패스트파이브 용산점 23C	LA031, [그룹3] LA079
		12	2024-11-07	패스트파이브 용산점 23D	LA032, LA033
		13	2024-11-12	패스트파이브 용산점 23C	LA034
		14	2025-01-17	블러썸 스튜디오	LA035, [그룹3] LA077
	G2. 작가 - 지역	1	2024-09-02	광주 전일빌딩245 소회의실	LA036, LA037
		2	2024-09-09	패스트파이브 용산점 23A	LA038
		3	2024-09-10	순천 연경인문문화예술연구소	LA039
		4	2024-09-11	구례 인근 자택	LA040
		5	2024-12-05	제주문학관	LA041, LA042, LA043
	G3. 아동문학	1	2024-08-22	원주시그림책센터	LA044, LA045
		2	2024-09-10	전남 화순군 인근	LA046
		3	2024-10-08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LA047, LA048
	G4. 평론	1	2024-08-29	패스트파이브 용산점	LA049, LA050, LA051

■ [그룹 2-2] 활동 조력자의 경우 9회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12인의 참석자로 구성됨

[표 2-4] 그룹 구성 - Ⅱ. 창작 [그룹 2-2] 활동 조력자

그룹	분류	연번	날짜	장소	참석자
[그룹 2-2] 활동 조력자	편집자	1	2024-09-23	패스트파이브 홍대3호점 5A	LA052, LA053
	편집자	2	2024-10-15	패스트파이브 용산점 23B	LA054
	번역가	3	2024-12-03	화상회의(Zoom)	LA055
	번역가	4	2024-12-03	화상회의(Zoom)	LA056
	기획자	5	2024-12-26	예술위원회 나주 청사 회의실	LA057
	기획자	6	2024-09-12	패스트파이브 용산점 23B	LA058
	기획자	7	2024-10-17	패스트파이브 용산점 23C	LA059, [그룹3] LA064
	기획자	8	2024-12-17	패스트파이브 용산점 23A	LA060, LA061
	기자	9	2024-11-28	패스트파이브 용산점 23C	LA062, LA063

[그룹 2-1] 작가, 평론가 등 : G1. 작가 - 수도권

1. [그룹 2-1] : G1 참석자 명단

■ [그룹 2-1] 작가, 평론가 등 : G1. 작가 - 수도권 소그룹은 소설가, 시인, 수필가 등 참석자 25인으로 구성하였음

[표 2-5] 참석자 명단 - [그룹 2-1] 작가, 평론가 등 : G1. 작가 - 수도권

구분	참석자 구분	참석자 분류	참석자 코드	성별	연령대	경력
[그룹 2-1] 작가, 평론가 등 : G1. 작가 - 수도권	연구협의체(n=3)	공공	LA-A	-	-	-
		공공	LA-B	-	-	-
		민간	LA-C	-	-	-
	참석자(n=25)	소설가	LA011	남	40대	14년
		소설가	LA012	여	40대	12년
		소설가	LA013	남	20대	6년
		시인	LA014	남	40대	10년
		소설가	LA015	여	50대	10년
		소설가	LA016	여	40대	25년
		소설가	LA017	여	60대	32년
		소설가	LA018	남	40대	20년
		시인	LA019	남	40대	20년
		소설가	LA020	여	40대	10년
		시인	LA021	여	30대	6년
		소설가	LA022	남	60대	36년
		소설가	LA023	남	40대	10년
		소설가	LA024	여	40대	5년
		시인	LA025	여	40대	24년
		소설가	LA026	남	50대	11년
		소설가	LA027	남	40대	14년
		소설가	LA028	여	40대	13년
		소설가	LA029	남	30대	7년
		소설가	LA030	남	30대	3년
		소설가	LA031	남	40대	13년
		시인	LA032	여	30대	5년
		수필가	LA033	여	30대	7년
		수필가	LA034	여	50대	13년
		소설가	LA035	남	50대	25년

2. 주요 논의 사항

■ 문학 창작과 출판 환경 변화
- 디지털 플랫폼 확대, 독립 출판 증가 등 변화하는 출판 환경 속에서 작가들의 적응과 생계 유지 문제

■ 문학 교육과 작가 양성
- 문학 교육의 접근성, 차세대 작가 양성을 위한 창작 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 필요성

■ 문학 생태계와 지속 가능성
- 전업 작가 감소, 불공정 계약 문제, 지역 문학 활성화 등 문학 생태계의 자립 및 지속 가능성을 위한 방안

■ 문학과 대중화
- 독자층 감소, 문학 기반 문화산업과의 협업,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및 공공기관 연계 전략

■ 정부 지원과 정책 개선
- 창작 공간 및 거점 지원, 출판 계약 보호, 디지털 환경에서의 공정한 유통 구조 마련 등 정책적 개선 방향

3.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문학 시장의 변화와 작가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1) 출판 시장의 변화와 작가 생태계의 적응

■ 출판 시장의 디지털화 가속, 전통적 유통 방식과의 조화 필요
- 출판 시장은 전자책, 웹소설, 크라우드 펀딩 등의 확산으로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작가들은 기존 출판 시스템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활용한 새로운 유통 방식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임. 그러나 전통적인 출판 방식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두 방식이 조화를 이루며 상생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지원이 필요함.

■ 작가들의 창작 방식 변화, 수익 모델 다변화 필요
-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으로 인해 작가들은 기존의 단행본 출판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을 공개하고 있음. 웹소설 연재, 전자책 출간, 후원 기반 창작 등 새로운 창작 방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익 모델도 변화하고 있음. 작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통 구조에 적합한 계약 모델과 저작권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플랫폼 기반 유통 확산,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필요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출판이 증가하면서, 작가와 플랫폼 간의 계약 및 수익 배분 구조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일부 플랫폼에서는 높은 수수료와 불리한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 작가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이 필요함. 이를 위해 플랫폼과 작가 간 협력 모델을 정립하고, 공정한 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독립 출판 활성화, 창작자 지원체계 마련 필요

- 1인 출판사 및 독립 출판을 선택하는 작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한 출간 사례도 늘어나고 있음. 기존 출판사 중심의 시장 구조에서 벗어나 창작자들이 직접 유통을 담당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나, 자금 조달, 홍보, 판매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독립 출판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과 유통 채널을 구축하여 창작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음.

"출판 시장이 디지털화되면서 작가들이 창작과 유통 방식에서 선택해야 할 요소들이 많아졌어요. 전통적인 출판 시스템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전자책, 웹소설, 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유통 방식이 대두되고 있죠. 기존 출판사의 역할과 독립적인 유통 방식을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갈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LA022)

"작가들도 이제 기존 출판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독립 출판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출판사와 계약하는 방식이 아니라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거나 1인 출판사를 운영하는 방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식은 마케팅과 유통의 부담이 커서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죠." (LA014)

"크라우드 펀딩이 이제 하나의 출판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봐야 해요. 작은 출판사들은 예전부터 활용했지만, 이제는 대형 출판사들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출판 시장에서 수익 구조가 바뀌면서 기존 방식과 새로운 방식이 혼재하는 과도기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LA031)

"출판 계약에서 작가들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이 여전히 많아요. 일부 플랫폼에서는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수익 배분도 불투명한 경우가 많죠. 작가들이 공정한 거래 환경에서 창작할 수 있도록 표준 계약서 도입과 공정한 유통 구조 마련이 시급합니다." (LA026)

"디지털 플랫폼에서 전자책이나 웹소설이 활성화되면서, 작가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작품을 공개할 기회는 많아졌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졌어요. 플랫폼과 작가 간의 계약 관계가 투명해야 하고, 작가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LA020)

2) 문학 작가의 직업적 불안정성과 겸업 현실

■ 작가의 전업 유지 어려움, 생계 대책 마련 필요

- 문학 작가의 전업 유지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부업을 병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강연, 창작 강의, 번역, 출판 편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러한 활동이 창작 시간을 확보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음. 작가들이 경제적 이유로 창작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생계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창작과 생계 활동의 균형, 유연한 지원책 필요

- 현재 문학 작가들은 부업과 창작을 병행하며 지속적인 부담을 안고 있음. 작품 집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문학 창작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창작자들을 위한 유연한 지원 프로그램, 장기 창작 지원금, 안정적 원고료 지급 시스템 등의 도입이 필요함.

■ 공공 및 민간 지원 확대,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 조성

- 작가의 창작 시간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려면, 정부와 민간 차원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예술 창작 기금 확대, 문학 관련 레지던시 프로그램 확충, 기본소득형 지원 모델 도입 등을 통해 창작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전업 작가로만 활동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생계를 유지하려면 강연, 출판 편집, 번역 같은 부업을 병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많아질수록 창작에 집중할 시간이 줄어드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상 전업 작가라는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LA028)

"작가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방식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원고료나 인세가 주된 수입원이었지만, 이제는 강연이나 창작 강의, 출판 기획 같은 부수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창작을 포기할 수도 없고, 계속 이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LA034)

"출판 시장이 변화하면서 신인 작가들이 전업으로 활동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등단하고 나서도 꾸준히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지원 사업도 한정적이다 보니 결국 다른 일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그런데 생계를 위한 일을 하다 보면 정작 창작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지는 게 문제입니다." (LA021)

"전업 작가로 계속 살아남으려면 결국 자신만의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해요. 그래서 일부 작가들은 아예 1인 출판을 하거나, 창작 외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병행하고 있죠.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모든 작가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창작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LA026)

3)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문학 유통 확대

■ 디지털 플랫폼 중심의 유통 확대, 새로운 기회와 도전 과제

- 문학 작품의 유통 방식이 빠르게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되면서, 작가들은 웹소설, 오디오북, 전자책 등의 새로운 창작 및 유통 방식을 활용할 기회를 얻고 있음. 온라인 독서 모임과 구독형 서비스의 확산으로 독자와의 접점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한 수익 창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기존 출판 구조와의 충돌, 협력 모델 필요

- 디지털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전통적인 출판사와의 관계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일부 작가들은 출판사 없이 직접 작품을 연재하거나 독자 후원 모델을 활용하는 반면, 기존 출판 시스템과 병행하려는 작가들도 있음. 이에 따라 출판사와 플랫폼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작가의 유통 선택권을 보장할 방안이 필요함.

■ 플랫폼 내 작가 권리 보호, 공정한 계약 기준 마련

- 디지털 플랫폼 기반 유통이 확대되면서 작가와 플랫폼 간의 계약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일부 플랫폼에서는 불공정한 수익 배분 구조와 불리한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 작가들의 권익 보호가 필요함. 이에 따라 공정한 계약 기준 마련, 플랫폼의 수익 구조 투명화, 창작자 중심의 유통 정책이 요구됨.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문학 유통이 활성화되면서 작가들이 직접 작품을 연재하는 방식도 많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웹소설 플랫폼에서는 100화까지 연재를 하면 이후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으로 확장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1차, 2차, 3차 유통의 개념이 적용되는 거죠." (LA030)

"웹소설과 전자책이 대중화되면서 작가들이 출판사 없이 독자와 직접 소통하는 모델이 확대되고 있어요. 다만 플랫폼마다 계약 조건이 다르고, 일부는 수익 배분 구조가 작가들에게 불리할 수도 있어서 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LA029)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전자책이 종이책처럼 한 번에 출간되는 게 아니라, 연재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플랫폼마다 편집 방식도 다르고, 수익 배분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작가들이 이를 고려해서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해요." (LA022)

"출판 시장이 점점 더 플랫폼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전에는 출판사를 거쳐야만 작품을 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플랫폼에서 직접 연재하거나 독자 후원을 받을 수도 있죠. 다만 이런 방식이 전통적인 출판 구조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협력 모델이 필요합니다." (LA026)

4) 문학 관련 산업과의 협업 가능성

■ 문학과 미디어 산업 협업 확대, 새로운 창작 기회 제공

- 문학 작품이 영화, 드라마, 게임 등 다양한 미디어 산업과 협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원작을 기반으로 한 영상화, 게임 시나리오화, 오디오 드라마 제작 등 문학의 확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작가들은 새로운 창작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음.

■ 원작 IP 활용 확대, 작가의 권익 보호 필요

- 문학 작품의 2차 저작권(IP) 활용이 활발해지면서,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다양한 방식으로 유통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계약에서는 작가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불공정한 수익 배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보호할 법적 장치와 표준 계약 기준 마련이 필요함.

■ 문학 기반 콘텐츠 산업 활성화, 창작 지원 인프라 구축

- 문학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작가들이 다양한 산업과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미디어 업계와의 협업 기회를 확대하고, 작가들이 영상·게임·오디오 콘텐츠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네트워크 지원이 필요함.

"문학 작품이 다른 산업과 연결되면서 IP 비즈니스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출판사에서 책만 만들었는데, 이제는 IP를 찾고 활용하는 공모전도 열고 있어요. 교보문고, 밀리의서재 같은 곳에서 이런 흐름이 생기면서 작가들도 자신이 보유한 IP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LA031)

"출판사들도 이제 IP팀을 따로 운영하면서 판권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예전에는 해외 판권 문의만 받고 단순 대응하던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원작 소설이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될 경우 어떻게 계약할지, 작가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죠." (LA035)

"웹소설이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작가들도 시나리오 작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물론 소설과 시나리오는 완전히 다른 형식이지만, 작가들이 원작자로서 일정 부분 개입하거나 공동 작업하는 형태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LA028)

"IP를 가지고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하는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원작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명확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표준 계약이 필요해요. 계약서에 '원작 없는 속편'이 만들어졌을 때의 권리, 캐릭터나 문구가 게임에 활용될 경우의 수익 배분 문제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LA031)

5) 독립 출판과 1인 출판사의 성장

■ 독립 출판 및 1인 출판사 증가, 새로운 창작 및 유통 모델 정착

- 대형 출판사 중심의 유통 구조에서 벗어나, 개별 작가들이 직접 출판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기존의 출판사 의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독립적으로 출간 및 마케팅을 진행하는 작가들이 늘어나면서 출판 시장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음.

■ 크라우드 펀딩과 SNS 마케팅 활용, 독립 출판 활성화

- 독립 출판 작가들은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해 독자들의 직접적인 후원을 받고 있으며, SNS와 유튜브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음. 이를 통해 출판 시장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지만, 독립 출판 작가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 독립 출판 지원책 마련, 유통 및 법적 보호 강화

- 독립 출판이 활성화되려면, 자금 지원, 마케팅 교육, 유통망 확보 등의 지원이 필요함. 또한, 개별 작가들이 출판과정에서 불리한 계약을 피하고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통해 독립 출판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함.

"이제는 작은 출판사뿐만 아니라 대형 출판사들도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독립 출판이나 니치 마켓을 위한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출판사들이 직접 뛰어들고 있죠. 펀딩이 잘 되면 출간을 결정하는 식으로 활용되기도 하고요." (LA031)

"1인 출판사가 많아지면서 기존 출판사에서 경력을 쌓은 편집자나 마케터들이 독립적으로 출판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만 있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LA011)

"출판 시장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독립 출판 쪽으로 변하면서, 이제는 책을 내는 과정 자체가 기존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과거에는 출판사가 결정한 대로 진행됐지만, 요즘은 독자들의 선호도에 따라 출간 여부가 결정되는 흐름도 있습니다." (LA031)

"1인 출판을 고민했었는데, 유통이나 마케팅, 편집을 다 직접 해야 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종이값이나 인쇄비 부담이 크고, 홍보도 혼자 해야 하다 보니 지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LA026)

나. 생태계 이슈

문학 창작 환경 변화에 발 맞춘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 조성 필요

1) 전업 작가 감소와 창작 지속 가능성 문제

■ 전업 작가의 생계 유지 어려움, 다중 직업화 가속

- 문학 시장이 침체되면서 전업 작가들이 창작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작가들은 강연, 창작 강의, 번역, 출판 편집 등 다양한 부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는 창작 시간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창작 지속 가능성 보장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 전업 작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창작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함. 문학 기금 확대, 창작 지원금 제도 개선, 출판 계약 투명화 등의 정책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창작자 복지 및 수익 모델 다변화 필요

- 문학 작가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형 지원 모델, 공공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안정적인 원고료 지급 체계, 문학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 산업과의 연계 기회 제공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이 시급함.

"전업 작가로 활동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생계를 유지하려면 글쓰기 강의나 강연을 병행해야 하는데, 이런 부업이 창작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소설을 쓰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에요." (LA034)

"출판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강연이나 독서 모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역시 일정한 수익을 보장받기 어렵고, 지속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보다 안정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LA027)

"창작 기금을 활용할 수 있지만,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고 선정 과정도 불투명하다는 문제가 있어요. 작가들이 꾸준히 활동할 수 있도록 보다 장기적인 창작 지원금이나 안정적인 원고료 지급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LA020)

"작가가 창작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지원 사업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창작을 지속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전업 작가가 점점 줄어들 거라고 봐요." (LA011)

2) 출판사와 작가 간 불공정 계약 및 인세 문제

■ 출판 계약의 불공정성 문제, 인세 지급 투명성 확보 필요

- 출판사와 작가 간 계약에서 인세 비율과 저작권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일부 출판사는 작가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제시하거나, 인세 지급을 지연·미지급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공정한 계약 관행을 확립하고 인세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요구됨.

■ 표준 계약서 도입, 저작권 보호 강화 필요

- 작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표준 계약서 도입이 필수적이며,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또한, 2차 저작권(IP) 활용과 관련한 계약 조항을 명확히 하고, 작가가 자신의 저작물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공정한 수익 배분 모델 구축, 작가의 협상력 강화

- 출판사와 작가 간 수익 배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작가들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디지털 유통 확산에 따른 새로운 저작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작가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출판 계약을 맺을 때 계약금이 있는데, 출판사가 책이 예상보다 잘 팔리지 않으면 나중에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100만 원 같은 소액이라도 작가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죠. 이런 관행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LA031)

"출판사마다 인세 지급 방식이 다르고, 정해진 기준이 없어요. 보통 정가의 10%를 작가에게 지급하지만, 출판사 재정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가 늦어지거나 선인세를 명목으로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도 많아요." (LA019)

"해외의 경우 인세 구조가 다르게 운영되는데, 초판일 때는 10%지만 판매량이 증가하면 12~15%로 조정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반면, 한국에서는 10%가 고정적이고, 유명 작가가 아닌 이상 협상력이 거의 없어요." (LA035)

"문학 잡지를 통해 연재하는 경우에는 원고료를 미리 지급하지만, 단행본 계약에서는 선인세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다만 선인세를 지급받았어도 책이 일정 부수 이상 팔리지 않으면 추가 인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A019)

3) 문학 지원 사업의 실효성과 한계

■ 문학 지원 사업의 형식적 운영, 실질적 혜택 부족

- 공공기관의 문학 지원 사업이 특정 계층에만 집중되거나, 형식적인 절차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창작자의 필요보다는 행정적 요건을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에 따라 지원이 절실한 작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지원 기준의 불명확성, 창작보다 유통 중심 지원 문제

- 현재 문학 지원 사업은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창작보다 유통 지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음. 특히, 출판사 및 특정 단체와 연계된 유통 지원이 강화되면서, 정작 창작 단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창작 공간 제공 등의 정책이 부족한 실정임.

■ 작가 중심의 지원 구조로 개편, 창작 지속 가능성 확보

- 문학 지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창작자의 필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함. 창작 지원금 확대, 신진 작가 지원 프로그램 강화, 공공 레지던시 프로그램 확충 등을 통해 작가가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다 다양한 계층의 작가들에게 공정하게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문학 지원 사업이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불신이 있어요. 특히 문예 창작학과 교수들이 자기 제자를 띄워준다는 인식이 강하고, 공모전이든 발간 지원이든 내부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뢰도를 높이려면 블라인드 심사나 평가 기준을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LA031)

"지원금을 받지 못한 문예지는 원고료를 줄이면서 운영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 부담이 결국 작가들에게 전가되는 거죠. 지원을 받지 못한 문예지와 지원을 받는 문예지 간의 격차가 커지면서, 지원 사업이 오히려 불평등을 조장하는 구조가 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LA031)

"현재 지원 사업은 창작보다는 출판과 유통 쪽에 더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창작을 돕기 위한 공간 지원이나 장기적인 지원이 부족하고, 단발적인 지원금 형태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보다 지속적인 창작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LA013)

"작가들은 문학 지원 사업이 기대만큼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기대했지만, 운영되는 방식이 비효율적이거나 실질적으로 창작을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다른 수익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죠." (LA028)

4) 독자층 감소와 문학 시장의 위기

■ 독서 인구 감소, 문학 시장 축소 가속화

- 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면서 독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학 시장도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특히 종이책 판매량 감소가 두드러지며, 출판사와 작가 모두 기존의 수익 모델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음. 독자층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

■ 문학 유통 방식 다변화, 디지털 플랫폼 활용 확대

- 문학 작품이 기존의 출판 시장을 넘어 웹소설, 오디오북, 구독형 서비스,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등 새로운 유통 방식을 통해 확장되고 있음. 독자들의 콘텐츠 소비 방식이 변화하는 만큼, 문학도 다양한 미디어와 결합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독자층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독자층 확보 전략 필요, 참여형 문학 콘텐츠 강화

- 전통적인 독자층을 유지하는 동시에, 젊은 세대를 포함한 새로운 독자층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함. 독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온라인 독서 모임, 라이브 북토크, 팬덤 기반의 문학 커뮤니티 활성화 등 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콘텐츠 기획이 요구됨. 문학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출판사와 작가가 협력하여 혁신적인 독서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함.

"책을 내는 사람은 있는데 책을 읽는 사람이 줄어드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출판 시장이 어려운 이유는 책을 쓰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책을 구매하는 독자층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독서 모임 같은 게 새로운 가능성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LA031)

"문학 콘텐츠 소비 방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단행본 중심으로 책을 사서 읽는 것이 아니라, 웹소설이나 오디오북, 구독형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죠. 출판 시장도 이런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A019)

"현재 플랫폼 기반 문학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특히 1차 유통에서 2차, 3차로 확장되는 과정이 중요해졌어요. 예를 들어, 웹소설 플랫폼에서 연재된 작품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이후 해외 시장으로도 나아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LA030)

"젊은 세대가 문학을 소비하는 방식이 기존과는 다르죠.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독서 모임을 통해서 경험을 공유하거나, SNS를 활용해서 작가와 직접 소통하는 방식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출판사와 작가들도 이런 흐름에 맞춰서 독자층을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LA018)

5) 문학 창작자의 복지와 공공 지원의 필요성

■ 문학 창작자 복지 정책 부족,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필요

- 창작 지원금, 거점 공간 제공 등 문학 창작자를 위한 복지 정책이 충분하지 않아, 작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특히, 신진 작가나 중견 작가들조차도 창작 환경이 불안정하여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음. 이에 따라 장기적인 문학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안정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함.

■ 창작자의 사회 안전망 미흡, 기본 복지 제도 적용 필요

- 의료보험, 연금, 실업급여 등 기본적인 사회 복지 제도가 문학 창작자들에게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음. 문학 작가들은 대부분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며, 별도의 고용 보호 체계 없이 개인적인 경제적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창작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 복지 지원 확대가 요구됨.

■ 창작 지원 인프라 강화, 지속 가능한 문학 생태계 조성

- 창작 거점 공간 확대, 문학 창작 지원금 및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함. 단기적인 프로젝트 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창작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문학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또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협력을 통해 문학 작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문학하는 사람들은 정말 기댈 곳이 없어요. 문학관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처음 생길 때 기대가 컸는데, 지금은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죠. 결국 작가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창작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A028)

"창작 공간이 제공되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단순히 집필을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강의나 독서 모임, 독자와의 만남까지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조성되면 창작자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거예요." (LA026)

"작가들이 글을 쓰면서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해요. 생활임금이나 창작 지원금이 있으면 좋겠고, 최소한 일정한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창작자들이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LA034)

"작가들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창작 공간뿐만 아니라,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되는 구조가 필요해요. 몇 년 동안 꾸준히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작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을 거예요." (LA013)

6) 지역 문학 활성화 필요성

■ 지역 문학 지원 확대, 창작 기회의 수도권 편중 해소 필요

- 현재 문학 지원 정책이 서울 및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지역 문학 창작자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지방에서도 지속적으로 창작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문학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창작자들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 지역 문학 공간 확충, 창작 환경 개선 필요

- 지역 내 문학 창작 공간과 커뮤니티가 부족하여, 작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이 미흡함. 지방에서도 문학 창작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거점 창작 공간, 문학 레지던시 프로그램, 창작 스튜디오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 도서관 및 문화재단과 연계한 창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기반 창작자들의 활동을 지원해야 함.

■ 지역 창작자 대상 지원금 확대, 지역 문학 생태계 활성화

- 창작 지원금이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되면서, 지방 문학 작가들은 공적 지원을 받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창작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 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문학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 또한, 지역 작가들의 작품이 더욱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지역 문학상 운영, 출판 지원, 문학 축제 개최 등을 통해 지역 문학 생태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지방에서 창작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수도권에 비해 창작 공간도 부족하고, 지원금 규모도 작아요. 서울에서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있지만, 지역에서는 7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최대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역 작가들은 수도권 작가들보다 지원 기회를 얻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LA020)

"작가들이 창작을 지속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토지문학관 같은 곳이 있지만, 기존 문학관들은 주로 기념 공간이거나 관광 요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창작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역에서 문학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LA026)

"지역에서 문학을 활성화하려면 단순히 창작 공간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역 문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필요해요. 지역에서 등단한 작가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홍보나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사업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LA018)

"지역 도서관이 문학 지원의 중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서관들이 문학 사업을 진행할 예산이 부족해서 큰 규모의 행사를 열기가 어렵습니다. 문학주간이나 독서 축제 같은 행사들이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열릴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LA028)

7) 문학 교육과 차세대 작가 양성 문제

■ 문학 창작 교육의 접근성 부족, 교육 기회 확대 필요

- 현재 문학 창작 교육이 주로 대학과 일부 전문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일반인이나 신진 작가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제한적임. 창작을 희망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문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기반 창작 프로그램과 온라인 교육 과정 확대가 필요함.

■ 차세대 작가 양성을 위한 실용적 교육 프로그램 도입

- 기존의 문학 창작 교육은 문예 창작 이론과 분석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창작과 유통 경험을 쌓기가 어려움. 출판, 디지털 콘텐츠 기획, 자기 출판 등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을 도입하고, 창작 워크숍, 멘토링 프로그램, 창작 레지던시 등 실전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함.

■ 다양한 창작 기회 제공, 신진 작가 지원 시스템 구축

- 차세대 작가들이 등단이나 전통적 출판 경로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창작 공모전, 웹소설 및 오디오북 창작 프로그램, 지역 문학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신진 작가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이를 통해 문학 시장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창작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현재 문학 창작 교육은 대학이나 특정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접근성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 지역에서는 문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온라인 강의나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이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는 코로나19 이후로 온라인 창작 클래스들이 늘어나긴 했지만, 이와 별개로 문학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공공 사업이 있으면 좋겠어요." (LA032)

"창작 교육이 단순히 문예 창작 이론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창작 경험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예를 들어, 출판 과정, 디지털 콘텐츠 제작, 웹소설 집필 같은 실무적인 부분까지 포함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재의 문학 창작 교육은 전통적인 등단 시스템 중심이라, 새로운 환경에 맞는 창작자 양성 과정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LA023)

"B2B 방식으로 문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요. 도서관이나 문학관 같은 기관에서 창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작가들을 초청해 교육을 진행하는 형태죠.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지역별로 연계된 창작 교육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요." (LA013)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문학 창작과 유통의 혁신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1) 출판 계약 및 원고료 지급 시스템 개선 필요

■ 인세 지급 시기 명확화, 계약 기준 정립 필요

- 작가의 수익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세 지급 시점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고, 지연 시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원고료 체불 방지, 공적 기구 개입 강화

- 원고료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 기구의 감독이 필요함. 공공기관이 중재 역할을 하여 계약 불이행 사례를 감시하고,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또한, 작가들이 계약 위반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강화해야 함.

■ 표준 계약서 도입, 공정한 계약 이행 감시 시스템 구축

- 출판사와 작가 간 계약에서 불공정한 조항을 방지하고, 작가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표준 계약서를 도입해야 함. 특히, 2차 저작권(IP) 활용, 수익 배분, 계약 해지 조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작가들이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지 않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계약 이행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작가들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이 필요함.

"이제 계약서 출판사마다 다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계약을 계약서에 천 권을 보통 이제 선인세를 100만 원 주면 천 권을 찍었으면 단가가 1,200원이면 20만 원을 더 드리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1쇄가 딱 끝났어요. 그러면 2쇄부터는 1쇄가 안 팔린 상태에서 이제 선인세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1쇄가 다 소진되고 2쇄가 팔리면 그때 이제 2쇄가 다 팔리면 3쇄를 찍잖아요. 그러니까 3쇄 찍을 때 2쇄 인세를 줘요. 근데 이제 출판사마다 다 달라요." (LA018)

"근데 이제 잡지가 있는 데는 출판사는 문학 잡지에다 원고 청탁을 해요. 이제 장편 연재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작가는 인기 작가니까 장편 일들을 먼저 시켜요. 그럼 원고료를 미리 주는 거예요. 그리고 책 낼 때 인세 또 줘요." (LA018)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차등 인세라고 해요. 초판일 때는 10% 기준으로 세가 넘어갈 때 만 부 이상 됐을 때는 12%. 이렇게 사실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는데. 그리고 해외에서는 잘 나가는 작가, 이미 책을 판매할 때부터 판매량이 많을 걸로 예상되는 작가는 15%를 주기도 한단 말이죠. 유명 작가들은. 신인 작가는 10%를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8% 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LA035)

2) 문학 창작 공간 및 거점 지원 강화

■ 청년 작가를 위한 창작 공간 부족, 지속적인 지원 필요

- 청년 작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창작 활동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독립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창작의 질과 지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창작촌, 레지던시 프로그램, 도심형 창작 공간 등을 확대하여 청년 작가들의 창작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공공·민간 협력 모델 도입, 창작 공간 운영 활성화

- 공공기관과 민간이 협력하여 작가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는 모델을 도입해야 함. 지방 및 도심 지역에 창작 거점을 조성하고, 공공 도서관, 문화재단, 민간 기업과 연계한 공간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작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창작 공간과 연계한 창작 지원 프로그램 필요

- 단순한 창작 공간 제공을 넘어, 창작 공간과 연계한 멘토링, 공동 창작 프로젝트, 출판 및 유통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청년 작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또한, 창작 공간이 지역 문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 독립서점, 문학관, 커뮤니티 공간과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저는 원래 집에서 작업을 잘 못해서 카페에서 많이 했는데, 원룸에 살다 보니까 작업 공간이 너무 협소했어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비용 절감 때문에 집에서 작업해야 했고, 카페에서 돈 쓰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작업 공간이 필요해졌어요. 이전에는 이런 걸 신청해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창작 공간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LA011)

"레지던시나 창작반 같은 집필 공간이 작가들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때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월세 7만 원짜리 반지하방을 얻어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다양한 지원이 생겼죠. 다만, 여전히 많은 작가들이 이런 공간에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좀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되면 좋겠습니다." (LA022)

"작가들이 창작에 몰입하면서도 동료 작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창작자들은 보통 좁은 생태계에서 활동하다 보니 서로의 작업 환경이나 정보를 공유할 기회가 부족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창작 공간을 마련하고,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LA013)

"공간 지원이 단순히 작업실 제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체류하며 창작할 수 있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연희문학창작소 같은 곳에서 작가들이 입주하여 작업하는 방식이죠. 이런 공간이 많아져야 창작 환경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해요." (LA025)

3) 디지털 환경에 맞춘 문학 지원 정책 확대

■ 디지털 플랫폼 기반 문학 창작·유통 지원 확대 필요

- 문학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자책, 오디오북, 웹소설 등 다양한 형태의 창작과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음. 이에 따라 기존 출판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문학 창작과 유통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작가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함.

■ 디지털 콘텐츠 창작 지원, 기술 기반 문학 확장

- 작가들이 웹소설, 오디오북, 인터랙티브 스토리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창작 지원금과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 또한, AI 기반 창작 도구,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독자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 기술과 문학이 결합된 창작 환경을 조성하여, 작가들이 새로운 창작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플랫폼과 작가 간 공정한 계약 관계 조성 필요

- 디지털 유통 시장이 성장하면서 일부 플랫폼에서 작가들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요구하거나, 수익 배분 구조가 불공정하게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작가의 저작권과 수익을 보호하기 위한 표준 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 필요함. 이를 위해 플랫폼과 작가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수익 배분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해야 함.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너무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되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장기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 AI 플랫폼도 이제 시나리오라든가 아니면 소설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AI를 통해서 글을 빨리 만들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고, 그런 거 안에서 이제 서로 이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몇 년 전부터 많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LA015)

"그래서 작가들이 많이 이제 글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하고의 연계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들어오는 다른 작가들 가운데 AI하고 연계거든요. [...] 웹소설, 웹툰 이제 그분들이 학위가 필요한 거죠. 어딘가에서 강의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대학 강의는 박사 과정 이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 있는 거예요." (LA020)

"내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창구도 되겠지만 어쨌든 출판사의 형태니까 내가 좋은 원고를 발견했을 때 다시 좀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 이 플랫폼 자체의 목적 자체는 예술 강사를 좀 많이 고용을 하자. 하다못해 월에 한 160만 원만 벌어도 주에 1회 강의해서 160만 원만 벌어도 어느 정도의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문화 생태계 안에서 벌 수 있는 수익보다 많은 형태니까 그렇죠." (LA013)

"AI의 엄청난 발전을 기대라고 이걸 통하여. [...] 전자책 지금 기술이 좀 달라지잖아요. 제가 이제 늘 생각하는 건데 이런 기술이 곧 나올 것 같거든요. 책이 있어요. 그냥 종이 빈 종이로 만들어진 책이에요. 케이블 덕분에 바운드가 되면 각 페이지에 그게 인쇄가 됩니다." (LA035)

4) 문학 기반 문화산업과의 협업 강화

■ 문학과 문화산업 간 협업 확대, 창작 기회 다변화 필요

- 문학 작품이 영화, 드라마, 게임, 웹툰 등 다양한 문화산업과 협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문학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보다 폭넓은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 기회를 확대하는 지원이 필요함. 문학 기반의 IP(지식재산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계약 시스템 구축

- 문학 작품이 다른 산업에서 2차 콘텐츠로 제작될 때, 작가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저작권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함. 계약 과정에서 불공정한 수익 배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 계약서를 도입하고, 작가들이 자신의 IP를 공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함.

■ 문화산업과의 협력 지원, 중개 시스템 마련

- 문학과 영상·게임 산업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해 작가와 제작사 간의 중개 시스템이 필요함.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작가와 미디어 산업 종사자들이 연결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IP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 이를 통해 문학이 단순한 출판 콘텐츠를 넘어, 다양한 미디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요즘은 제일 최근 계약서에 뭐까지 있냐면 제가 쓴 소설에 어떤 대사를 가지고 상품이 나오면 이건 어떻게 나눈다. 그리고 제가 쓴 소설에 어떤 캐릭터가 무슨 게임에 활용이 되면 그럼 어떻게 나눈다. 이런 것까지 계약에 명시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점점 세분화되고 있어서 작가들이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졌습니다." (LA031)

"이전에는 출판사들이 IP 관련된 부분을 전담했었는데, 이제 작가들이 직접 권리를 챙기려고 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어요. 기존에는 판권 에이전시가 없었지만, 지금은 네이버, 블러썸 크리에이티브 같은 에이전시들이 생기면서 작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저작권과 수익 배분을 관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LA031)

"출판사들이 이제 IP팀을 따로 만들고 있고, IP를 활용한 수익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예전에는 해외 판권 문의가 들어오면 단순히 대응하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플랫폼 사업까지 고려하면서 작가들의 저작물을 더욱 폭넓게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LA035)

5) 공공 도서관과 연계한 독서 문화 활성화

■ 공공 도서관 기반 독서 문화 활성화, 지역 사회와의 연계 강화

- 공공 도서관이 단순한 자료 보관소가 아닌, 지역 사회의 독서 문화를 촉진하는 중심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도서관을 활용하여 독서 모임, 북토크, 작가와의 만남, 창작 워크숍 등을 확대하고, 주민들이 문학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작가와 독자 간 소통 기회 확대, 문학 커뮤니티 형성

- 지역 도서관을 기반으로 작가와 독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문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창작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할 필요가 있음. 신진 작가 발굴을 위한 창작 지원 행사, 지역 작가 소개 프로그램, 문학 강연 등을 통해 지역 문학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함.

■ 공공 도서관과 지역 문화기관 협력, 지속 가능한 독서 환경 조성

- 공공 도서관과 지역 문화재단, 독립 서점, 출판사 등이 협력하여 독서 캠페인, 문학 축제, 지역 서점과 연계한 도서 보급 사업 등을 추진해야 함. 또한, 디지털 도서관 시스템을 확충하여 온라인 독서 모임, 전자책 대출 서비스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이 독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근데 약간 상충되는 게 제가 기억하면은 우리나라 도서관이 너무 잘해요. 잘한다고요. 도서관 지원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여기 도서관 바로 옆에 가면은 책 다 있는데, 막 없는 책이 없다고 그러고. 거기 가면 무료 행사하고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뭔가 좋아야 되는데 이게 서로." (LA025)

"그게 뭐냐 하면 책과 관련된 정보 그리고 그 작가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웹 서비스를 하는데 이제 그게 그러면 이 수익이 여기 그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기 고객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도서관 사서들이라는 거예요. [...] 지역에 그런 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미 거점도 다 작은 서점들도 있고 도서관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LA031)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는 작가들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보면 기회가 없어. 강연을 하거나 독자를 만날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다 정말 수줍어서 못하는 건가. 그 생활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분들이 난 더 계시다고 보거든요." (LA028)

[그룹 2-1] 작가, 평론가 등 : G2. 작가 - 지역

1. [그룹 2-1] : G2 참석자 명단

■ [그룹 2-1] 작가, 평론가 등 : G2. 작가 - 지역 소그룹은 소설가, 시인, 수필가 등 참석자 8인으로 구성하였음

[표 2-6] 참석자 명단 - [그룹 2-1] 작가, 평론가 등 : G2. 작가 - 지역

구분	참석자 구분	참석자 분류	참석자 코드	성별	연령대	경력
[그룹 2-1] 작가, 평론가 등 : G2. 작가 - 지역	연구협의체(n=3)	공공	LA-A	-	-	-
		공공	LA-B	-	-	-
		민간	LA-C	-	-	-
	참석자(n=8)	소설가	LA036	여	40대	6년
		시인	LA037	여	30대	5년
		소설가	LA038	여	50대	34년
		시인	LA039	여	50대	15년
		소설가	LA040	여	60대	25년
		시인	LA041	여	30대	11년
		시인	LA042	남	40대	15년
		수필가	LA043	남	40대	18년

2. 주요 논의 사항

■ 지역 기반 작가의 창작 환경
- 이주 작가의 정착 과정과 지역 예술 네트워크 형성, 창작과 생계를 병행하는 현실

■ 공동체적 문학 실천의 확산
- 독립 서점, 소규모 낭독회, 협업 전시 등을 통한 공동체 기반 창작 활동의 확대

■ 청년 창작자와 제도적 사각지대
- 청년 문학인의 창작 여건, 교육·지원의 부족, 지역 내 기회의 한계

■ 문학 공간과 생태계 기반의 위기
- 독립 서점의 소멸 위험, 문학 커뮤니티의 공간적 기반 약화

■ 지역 문학의 수도권 중심 평가 구조
- 공모·평가에서 지역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

■ 공공지원의 지속성과 현실성 부족
- 단기 중심의 지원 체계에서 벗어나 장기 창작 지원, 복합 공간 마련의 필요성

3.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지역 이주 문학 작가의 정착 과정과 창작 실천: 공동체 형성, 생계 병행, 융복합 창작

1) 지역 이주 작가의 문학 생태계 내 정착 과정

■ 지역 기반 창작 환경 구축, 독립 서점과 공간 활용 중심

- 지역으로 이주한 작가들은 서점, 작은 갤러리, 공유 창작 공간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창작 거점을 마련하고 있음. 단순한 작업실 확보를 넘어 지역 주민, 예술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공동체적 창작 문화를 형성하고 있음. 특히 독립 서점은 작품 발표, 낭독회, 전시 등 복합적인 창작 활동의 중심지로 기능하며, 지역 예술 생태계의 실질적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수도권 중심 네트워크에서 벗어난 자율적 예술 관계 형성

- 서울 중심의 문학계 네트워크에서 벗어난 작가들은 지역 내 예술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덜 경직된 창작 환경을 경험하고 있음. 문학을 매개로 한 인간관계와 협업 활동은 작가 정체성 회복과 창작 동기 부여에 기여하고 있음. 기존의 상업적·경쟁적인 구조와 달리, 자율성과 연대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창작 문화가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조성되고 있음.

■ 지역 정착이 창작 지속성 확보의 계기로 작용

- 지역 정착은 단순한 거주의 문제가 아니라 창작 지속성 확보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음. 정주성과 지역성은 작가의 창작 주제, 표현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 문학의 다양성과 고유성을 강화함. 지역에서의 생활과 창작이 맞물리면서 작가는 자신의 예술 세계를 확장하고, 생태계 내에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됨.

"서울 중심의 문학계에서 벗어나서, 여기 내려오니까 처음에는 사실 좀 막막했죠.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그런데 작은 서점들이 저한테는 되게 큰 연결 고리가 됐던 것 같아요. 거기서 책도 읽고, 낭독회 같은 것도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작가들, 예술가들이랑도 많이 알게 됐고요. 이제는 그게 제 문학 활동의 거의 기반이 됐어요." (LA043)
"여기 오니까 예전에는 몰랐던 방식으로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수도권에 있을 때는 공모를 위한 글을 썼다면, 지금은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창작의 원천이 되는 거죠. 저는 그게 더 건강한 창작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LA041)
"혼자서 작업하던 스타일이었는데, 이 동네 와서는 같이 뭘 하게 되더라고요. 서점 운영하시는 분이 시 쓰시는 분인데, 낭독회도 같이 하고, 지역에 있는 사진가랑 작업도 같이 해봤고요. 이런 경험은 서울에서는 못 해봤죠.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생겨나는 느낌이었어요." (LA042)
"지금도 여기서 숙소 운영하면서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별개로 느껴지지 않아요. 생활과 창작이 같이 흘러가는 느낌이죠. 공간 자체가 제 창작 공간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머무는 문화 공간이 되기도 하고요." (LA041)

2) 작가 주도의 창작 공동체 형성 시도

■ 서점과 낭독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 문학 활동의 실천 강화

- 작가들은 지역의 독립 서점을 기반으로 낭독회, 작품 전시, 독서 모임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이는 독자와의 접점을 넓히는 동시에 문학의 일상화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 서점이 단순한 유통 공간을 넘어 창작과 발표, 교류가 이뤄지는 문학적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음.

■ 지역 예술가 간 협업을 통한 융복합 창작 시도

- 문학 작가들은 시각예술가, 음악가 등 타 장르 예술인들과 협업하여 전시, 공연, 다매체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음. 이러한 시도는 창작 방식의 확장을 넘어 문학과 타 예술 간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형식의 문학 경험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지역 문화 자원과의 연결 또한 주요한 창작 자극이 되고 있음.

■ 공동체 기반 창작 활동이 작가 정체성 형성에 기여

- 작가들이 공동의 기획, 교육, 창작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창작자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음. 이는 고립된 개인 창작자에서 벗어나, 문화 주체로서의 역할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 창작 활동이 지역 문화 생태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모색하고 있음.

"작가와 함께 작은 서점 지원 사업을 했었는데, 그게 단순히 책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시, 낭독, 예술가 협업까지 이어졌어요. 음악가나 사진 작가랑도 같이 작업했었고요. 책을 중심으로 예술을 확장하는 작업이 되게 재밌었죠." (LA043)

"저희가 전시를 할 때 그냥 문학 전시가 아니라 서점 공간을 매개로 미술이나 캘리그라피랑 엮어서 했었어요. 낭독을 QR로 들을 수 있게도 만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하는 사람들과 유대도 생기고, 작가로서도 자극이 많이 됐어요." (LA042)

"책방 중심으로 동네 친구들하고 모여서 글쓰기 수업이나 낭독회를 해요. 청년 작가들이 와서 낭독도 하고, 전시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글 쓰는 사람이라는 걸 실감하죠. 이게 그냥 활동이 아니라 정체성이 생기는 거라고 봐요." (LA041)

"서점에서 만난 사람들이랑 문학 행사 기획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 혼자 쓰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만드는 느낌이더라고요. 그게 지역에서만 가능한 방식 같았어요. 자연스럽게 문학이 공동체 안에 스며드는 느낌이 있어요." (LA043)

3) 창작과 생계의 병행 속 지속 가능성 모색

■ 창작 외 생계 병행이 일반화된 지역 작가의 현실

- 지역 문학 작가들은 글쓰기 외에도 숙박업, 음식점 운영, 강의, 문화기획 등 다양한 생계 활동을 병행하고 있음. 이는 창작만으로는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나타나며, 작가의 일상은 창작과 생계의 경계에서 끊임없이 조율되고 있음.

■ 생활 기반 구축을 통한 창작 지속성 확보 시도

- 생계를 병행하면서도 창작을 포기하지 않는 작가들은 생활 기반 위에 창작 기반을 얹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지속 가능한 작업 조건을 만들어가고 있음. 숙박 공간을 전시나 낭독회 공간으로 병행 활용하거나, 강의를 통해 지역 창작자와 연결되는 등 창의적 방식의 병행이 시도되고 있음.

■ 문학 활동의 경제적 취약성에 대한 인식 확산

- 대부분의 작가들은 문학 활동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공유하고 있음. 이로 인해 문학을 '직업'으로 지속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생계 활동과의 병행은 개별 노력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지금도 여기서 숙소 운영하면서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별개로 느껴지지 않아요. 생활과 창작이 같이 흘러가는 느낌이죠. 공간 자체가 제 창작 공간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머무는 문화 공간이 되기도 하고요." (LA041)

"제가 지금 식당도 하고 있고, 숙박업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작가로 살아가고 싶어도 매일 시간 쪼개서 써야 하니까 체력도 그렇고 집중도 잘 안 돼요. 그래도 이 공간 덕에 낭독회도 하고, 글 쓰는 사람들 초대도 하고 그래요." (LA041)

"창작은 하고 싶은데 수입이 전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병행하게 되는 거예요. 강의도 하고, 출판 기획도 하고, 그냥 혼자 글만 써서는 당연히 안 되죠. 여기서 작가로 살아간다는 건 무조건 다중 노동이에요." (LA043)

"문학만으로는 먹고살 수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정착해서 뭔가 하려면, 기본적으로 생계를 먼저 만들어야 창작이 가능하다는 말이 당연하게 나와요. 이건 개인이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LA042)

4) 장르 혼합 및 융복합형 창작 활동 증가

■ 타 예술 장르와의 결합을 통한 문학 표현의 확장

- 작가들은 음악, 영상, 사진 등 다양한 예술 매체와 결합하여 문학의 형식 실험을 시도하고 있음. 전통적인 인쇄 매체를 넘어 다매체적 구성으로 문학의 표현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이는 문학이 타 예술과 교차하며 진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음.

■ 오디오북과 북 트레일러를 통한 새로운 독자 접점 창출

- 문학 콘텐츠를 오디오북이나 북 트레일러 형태로 재구성하여, 시각·청각 중심의 새로운 감상 방식으로 확장하고 있음. 이는 독자와의 소통 방식을 다변화하며, 특히 젊은 세대나 비문자 중심 세대에게 문학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음.

■ 문학의 시대적 변용에 대한 실천적 대응

- 문학 작가들의 융합적 창작은 문학이 고립된 장르가 아니라, 사회 변화와 기술 진보 속에서 유연하게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줌. 이는 예술 전반의 경계가 흐려지는 시대 흐름 속에서 문학이 스스로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하는 능동적 시도로 해석됨.

"문학만 하는 게 아니라 음악도 하고, 사진도 찍고, 영상도 만들어요. 예전엔 오디오북도 여섯 종 정도 제작했었고, 북 트레일러 같은 것도 처음 시도했었어요. 문학이 그냥 텍스트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예술이랑 같이 가는 게 저는 자연스럽다고 느껴져요." (LA043)

"서점에서 책을 주제로 전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글을 미술 작가나 캘리 작가들이 재해석해서 작품을 만들고, 그걸 QR코드로 들을 수 있게 낭독까지 연계했어요. 문학이 다른 예술 장르와 연결되니까 훨씬 더 생동감 있고 재밌었어요." (LA042)

"영상 작업이나 음악이랑 섞어서 글을 보여주는 방식이 요즘은 더 와닿기도 하잖아요. 저도 예전엔 그냥 텍스트만 썼는데, 요즘은 전시할 때 사진이나 사운드랑 같이 구성해서 보여주는 걸 자주 하게 돼요." (LA041)

나. 생태계 이슈

지역 이주 문학 작가의 창작 환경과 생태계 한계

1) 지역 기반 작가의 고립감 및 네트워크 한계

■ 지역 정착 초기에 겪는 고립감과 창작 단절 우려

- 지역으로 이주한 작가들은 정착 초기 물리적·심리적 고립감을 크게 경험함. 기존 창작 인프라와 단절된 상태에서 글쓰기의 흐름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창작 리듬이 흔들리는 경우도 많음. 이는 지속적 창작 활동에 있어 중요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함.

■ 인적 네트워크 부족으로 인한 교류 한계

- 수도권과 달리 지역에는 문학 중심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임. 창작자 간의 정보 교류나 협업 기회가 부족하며, 문학 커뮤니티로 진입하는 경로 또한 명확하지 않음. 이로 인해 작가들은 창작 외에도 관계 형성에 추가적인 에너지를 소모함.

■ 외부 자원과의 연결 구조 미비

- 공모, 지원사업, 출판 등 외부 자원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채널이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폐쇄적임. 지역 단위의 정보 확산 구조가 부족해 작가들이 적절한 기회를 놓치기 쉽고, 이는 결과적으로 창작 활동 지속에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함.

"여기 제주에 처음 내려왔을 때 아는 사람이라고는 딱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출판 편집할 때 작업했던 일러스트레이터 친구. 그러니 얼마나 외로워요, 그렇죠? 사람도 만나고 싶고, 뭔가 같이 하고 싶고...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LA043)

"이주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지역에 어떤 문학 모임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공모 정보 같은 것도 다 서울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참여하기도 쉽지 않았고요. 작가로 활동을 이어가려면 사람도 필요하고 정보도 필요한데, 그게 지역엔 진짜 없더라고요." (LA042)

"저는 이쪽(제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거의 몰랐고, 누가 뭘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혼자 글 쓰다가 서점에서 겨우 누군가랑 연결되면서 좀 시작된 거죠. 그 전에는 완전히 단절된 느낌이었어요." (LA041)

2) 청년 문학 창작자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 존재

■ 청년 창작자의 지역 활동 증가, 제도 기반은 미비

- 지역 내 청년 창작자들이 문학 활동을 자발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함. 문예 창작 교육, 멘토링, 커뮤니티 구축 등 장기적 성장 경로가 부재하며, 대부분의 활동이 일회성 프로젝트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발표 공간 및 창작 발표 기회의 구조적 부족

- 청년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업을 선보일 수 있는 발표 공간이나 프로그램이 현저히 부족함. 지역 내 문학관, 서점, 문화시설 등도 운영 여건이 열악해 지속적인 창작 결과 발표가 어려우며, 이는 창작 동기 저하와 활동 단절로 이어질 수 있음.

■ 정책 수혜에서 배제되는 청년 창작자의 현실

- 청년 창작자들은 기존 문학 지원 제도의 주요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음. 신인 작가, 중견 작가 중심의 지원 체계에서 지역 기반 청년 창작자들은 공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보 접근 자체가 어려워 실질적인 수혜를 받기 어려운 구조임.

"청년 작가들 모아서 프로그램을 했는데, 서귀포에서 오던 친구가 있었어요. 평일 저녁 7시에 하는데도 버스 타고 한 시간 넘게 와서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갈 데가 없대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곳 자체가 없다고요." (LA042)

"지금도 청년 창작자들 가르치고 있거든요. 15명 정도 모아서 시 쓰는 법, 낭독, 책도 같이 만들고요. 그런데 이게 다 제 개인 네트워크로 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시스템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필요해서 만드는 거예요." (LA042)

"창작을 해보겠다는 청년들은 있어요. 근데 어디서 배워야 할지, 누구한테 보여줘야 할지 모르는 거죠. 문학관 같은 데서 뭔가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없고, 지원사업도 기준이 애매하니까 청년들은 그냥 걸러지는 것 같아요." (LA041)

3) 문학 외 생계 활동 병행에 따른 창작 집중도 저하

■ 생계 활동 병행으로 인한 창작 시간 확보의 어려움

- 지역 작가들은 주간 대부분의 시간을 생계를 위한 노동에 투입하고 있어 창작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임. 정기적인 창작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작업의 지속성과 완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문학을 직업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경제적 구조

- 문학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작가들은 문학을 본업이 아닌 부업처럼 다뤄야 하는 상황에 놓임. 이는 문학이 하나의 전문 직업으로 자리 잡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며, 장기적인 창작 활동의 동력을 약화시킴.

■ 창작 활동의 질과 양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제약

- 생계와 창작의 병행은 창작자에게 지속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음. 이는 창작의 양적 축소뿐 아니라 실험적·예술적 시도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 창작 환경 개선 없이는 지역 문학 생태계 전반의 발전이 제한될 수 있음.

"식당도 하고 숙박도 하니까, 솔직히 글 쓸 시간은 새벽밖에 없어요. 그마저도 몸이 너무 피곤하면 그냥 넘기게 되죠. 계속 쓰고는 싶은데 일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버리니까... 글쓰는 루틴 유지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LA041)

"강의, 기획, 책방 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 창작이 항상 뒷순위로 밀려요. 마감이 없는 글은 계속 미뤄지게 되고, 결국에는 한참 동안 아무것도 못 쓰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쓰는 사람이라는 감각도 흐려질 때가 있어요." (LA043)

"문학이 본업이라고 말하기가 민망할 때가 있어요. 수입이 없으니까 결국엔 부업처럼 돼버리는 거죠. 계속 글을 쓰긴 하지만, 어디에도 발표 못 하고, 수입도 없고, 그러면 나중에는 지치게 돼요." (LA042)

4) 독립 서점과 문학 공간의 소멸 위기

■ 독립 서점과 낭독 공간의 운영 불안정

- 지역 문학 생태계의 거점이 되는 독립 서점과 낭독 공간은 운영 비용, 인력 부족, 수익 구조 한계 등으로 인해 장기 지속이 어려운 상황임. 문학 중심 공간이 소멸되면서 작가와 독자가 만날 수 있는 창구가 줄어들고 있음.

■ 발표 기회의 축소와 문학 활동의 위축

- 낭독회, 작품 전시, 북토크 등 작가들의 발표 기회가 공간의 소멸과 함께 감소하고 있음. 이는 창작 동기를 약화시키고, 지역 내 문학 활동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짐. 신진 작가들에게는 더욱 큰 진입 장벽이 됨.

■ 지역 문학 커뮤니티의 기반 약화

- 독립 서점과 소규모 문학 공간은 단순한 장소를 넘어 문학 커뮤니티 형성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음. 해당 공간의 지속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문학을 매개로 한 공동체적 연결 구조가 무너질 위험에 놓여 있으며, 이는 지역 문학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침.

"제가 활동하는 서점도 운영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책만 팔아서 유지가 안 되니까 전시, 낭독회, 워크숍 같은 걸 계속 기획해야 하는데, 그게 다 자비나 열정으로 유지되는 구조라 오래가긴 힘들죠." (LA043)

"예전엔 낭독회나 전시 같은 걸 정기적으로 했었는데, 요즘은 공간이 줄어드니까 그런 기회 자체가 거의 없어졌어요. 청년 작가들이 자기 작업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 (LA042)

"서점이 단순히 책 파는 공간이 아니라, 작가들끼리 만나고 독자들이랑 소통하는 커뮤니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공간들이 하나둘 없어지면 문학이 어디에 머물 수 있을까 싶어요." (LA041)

5) 지역 문학의 중앙 집중적 평가 구조

■ 수도권 중심의 평가 기준이 지역 작가에 불리하게 작용

- 문학상, 공모사업, 예술지원 등 주요 평가 시스템이 수도권 중심의 기준과 경력 중심 잣대에 맞춰 구성되어 있음. 지역 작가의 활동 맥락이나 조건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심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음.

■ 지역 문학의 특수성과 맥락 반영 부족

- 지역 기반 문학은 지역성, 공동체성, 생활밀착성을 기반으로 하며, 수도권의 문학 활동과 다른 흐름을 가짐. 그러나 기존 제도는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거나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 문학 고유의 성취가 제도적 평가에서 소외되고 있음.

■ 지역 작가의 외부 이동 유발 및 활동 위축

- 제도권 평가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되는 경험은 지역 작가들에게 창작 의욕 저하와 박탈감을 안겨줌. 일부 작가들은 기회를 좇아 수도권으로 이주하거나, 창작 활동을 축소하는 선택을 하게 되며, 이는 지역 문학 생태계의 연속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문학상이나 공모 지원 보면 결국 서울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 뭘 했는지는 크게 고려 안 되는 느낌이고, 평가 기준 자체가 지역성이나 맥락을 반영하지 못하죠." (LA043)

"지원사업을 신청하려고 해도 기준이 애매하거나 아예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사람 중심으로 맞춰져 있어요. 제주에서 뭔가 하려고 하면 그게 평가자 입장에서는 낯설고 익숙하지 않아서 불리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느껴요." (LA042)

"공모 몇 번 떨어지다 보면, 아 이건 나 같은 사람은 안 되는구나 싶어져요. 결국엔 다시 서울로 가야 하나 고민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지역에서 문학 활동을 지속할 이유를 잃게 되죠." (LA041)

6) 지역 내 문학 행정 인프라의 미비

■ 지역 문학 중심 공간의 절대적 부족

- 지역 내 문학관, 창작센터, 문학 아카이브 등 문학 전용 공간이 부족하거나, 운영이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이는 작가들이 창작, 전시, 교육, 교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부실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간 접근성의 격차로 이어짐.

■ 개인 의존형 문학 활동의 지속 불안정성

- 지역 문학 활동은 주로 작가 개인의 열정과 자비, 소규모 네트워크에 의존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음. 공공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활동의 지속 가능성이 낮고, 인력 세대교체나 장기적 기획의 어려움도 동반됨. 문학 활동의 불균형성이 커지고 있음.

■ 기록과 연계의 단절이 생태계 취약성으로 이어짐

- 지역 문학의 생산과 축적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아카이빙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지역 문학의 역사성과 맥락이 단절되며, 타 기관과의 연계 가능성도 낮아짐. 이는 지역 문학 생태계의 구조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임.

"문학관이 있긴 하지만,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이 돌아가거나 창작자랑 연결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냥 공간만 있고, 실제로 문학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LA042)

"결국에는 작가 개인이 뭔가 만들어야 돼요. 제가 했던 청년 프로그램도, 낭독 전시도 다 제가 직접 기획해서 꾸민 거였고요. 행정 쪽에서 받는 도움은 거의 없었어요." (LA042)

"지역에서 뭐가 기록으로 남거나 아카이빙 되는 건 거의 없다고 봐요. 활동이 있어도 행사 끝나면 사라지고, 다음 세대에 연결되지 못하니까 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LA043)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지역 문학 창작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도·공간·공공성 기반 강화 방안

1) 지역 기반 창작자 발굴 및 지속적 지원체계 마련

■ 단기 사업 위주의 지원 구조 한계

- 현재의 문학 지원 정책은 대부분 단발성 공모나 일회성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해 작가들은 안정적인 창작 여건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창작의 연속성과 예술적 성장에도 제약을 받고 있음. 장기적 관점의 정책 전환이 필요함.

■ 상주 작가 프로그램 및 연속 지원의 필요성

- 지역 문학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작가가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며 활동할 수 있는 상주 프로그램, 2~3년 단위의 연속 창작 지원사업 등이 요구됨. 이는 지역성과 문학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작가의 지속 가능한 창작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함.

■ 연령대·경력대별 맞춤형 정책 설계 필요

- 청년 작가, 중견 작가, 이주 작가 등 다양한 창작자의 특성과 창작 환경을 고려한 세분화된 정책이 필요함. 생애 주기별 창작 지원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문학 생태계의 다양성과 균형을 확보할 수 있으며, 창작 인력의 이탈도 예방할 수 있음.

"문학 쪽은 대부분 일회성 지원이 많아요. 한 번 선정되면 끝이고, 다음은 또 새롭게 준비해야 하죠. 연속성이 없으니까 작가로서 뭔가를 쌓아가기가 어려워요. 연간 단위나 중장기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요." (LA043)

"상주 작가로 있었을 때, 서점이랑 같이 북클럽 운영하고 프로그램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끝나면 다음이 없어요. 최소한 2년, 3년 정도는 이어질 수 있어야 지역 기반 창작자도 자리를 잡을 수 있을 텐데요." (LA043)

"청년 작가들 따로, 경력 있는 작가들 따로 맞춤형 지원이 있었으면 해요. 지금은 공모 하나로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경력 애매한 사람들은 항상 애매하게 탈락하죠. 이주 작가도 별도로 고려됐으면 좋겠고요." (LA042)

2) 창작과 생활이 공존 가능한 복합 공간 확보

■ 창작과 생활이 공존하는 복합 문화공간의 필요성

- 지역 작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작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주거와 작업이 병행 가능한 복합 문화공간이 필요함. 생활 기반과 창작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현재 구조에서는 창작 지속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창작자에게 현실적 대안이 절실한 상황임.

■ 창작촌 및 레지던시 공간의 지역 분산 구축 필요

- 수도권에 집중된 레지던시와 창작촌을 지역에도 확대해야 하며, 단기 체류형이 아닌 중장기 체류형 모델이 요구됨. 이는 지역 정착을 고려하는 작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 문화 기반과의 접점을 넓히는 데 기여함.

■ 다장르 융합 가능한 창작 환경 조성을 통한 생태계 확장

- 문학을 포함해 시각예술, 음악, 영상 등 타 장르와 협업이 가능한 복합 창작 환경이 조성될 경우, 창작의 폭과 실험성이 확대됨. 이는 문학의 고립을 막고, 지역 예술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지금도 숙소 운영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데, 그게 따로따로 느껴지지 않아요. 이 공간이 제 작업실이기도 하고 누군가한테는 머무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생활이랑 창작이 같이 굴러가는 구조가 돼야 해요." (LA041)

"상주 작가로 뽑혔을 때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애월에서 함덕까지 한 시간 넘게 왔다 갔다 했죠. 제주도에 창작촌 같은 게 지역마다 좀 더 고르게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하나 있으면 다행인 수준이에요." (LA043)

"창작자들이 문학만 하는 게 아니라 사진도 찍고 영상도 만들잖아요. 그런 걸 같이 할 수 있는 복합 공간이 필요해요. 그냥 책상 하나 있는 작업실 말고,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요." (LA042)

3) 지역 문학 활동에 대한 공공의 관심 및 가시성 확대

■ 지역 작가 활동 확산을 위한 홍보·유통 플랫폼 구축 필요

- 지역 문학 활동이 외부로 알려지기 위한 디지털 기반 플랫폼이 부족한 상황임.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고 연계할 수 있는 온라인 매체, 비평 네트워크, 전시 아카이브 등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며, 이는 지역 작가의 활동 확산과 지속성 확보에 기여함.

■ 문학 전시·공연 기획 등 공공 기획력의 강화 필요

- 지역 문학을 다양한 방식으로 선보일 수 있는 전시, 낭독회, 공연 등의 기획이 공공지원을 통해 활성화되어야 함. 관객과의 만남이 잦을수록 작가와 작품의 사회적 파급력도 커지며, 문학의 문화예술 장르로서의 위상도 강화됨.

■ 독립 서점 및 문학 공간에 대한 구조적 지원 확대

- 지역 문학 커뮤니티의 거점이 되는 독립 서점과 문학 공간에 대한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이 공간들은 문학과 독자를 연결하는 주요 접점으로, 지역 문학의 대중화와 문화 생태계 확장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

"여기서 아무리 활동해도 바깥에 알려지기가 힘들어요. 지역에서 뭘 했는지를 소개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으니까 그냥 묻혀버리는 거죠. 작가 개인이 SNS로 알리는 거 외엔 뾰족한 수가 없어요." (LA043)

"예전에 서점들끼리 협력해서 문학 전시를 기획했었어요. 북큐레이션 하고, 그걸 기반으로 사진이나 음악 작업이랑 연계해서 전시도 했죠. 근데 그게 다 작가들 개인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구조라 오래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LA043)

"작은 서점이나 문화 공간이 그냥 책 파는 데가 아니라 커뮤니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운영이 어려워지면 문학을 나눌 수 있는 창구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공간에 대한 공적 지원이 꼭 필요해요." (LA042)

4) 문학 활동의 일상적 회복을 위한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 확대

■ 학교와 연계된 문학 프로그램 확대 필요

- 문학을 일찍이 접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 과정과 연계된 작가 초청 수업, 문예 창작 워크숍 등이 필요함. 이는 문학을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 속 문화로 인식하게 하고, 미래 독자 및 창작자의 저변 확대에도 기여함.

■ 마을 기반 문학 모임을 통한 생활 밀착형 실천

- 동네 책방, 도서관, 문화센터 등을 거점으로 마을 단위 문학 모임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작가와 만나고 글을 쓰거나 함께 낭독하는 경험은 문학에 대한 거리감을 줄이고, 공동체 기반 창작 문화를 촉진함.

■ 시민 참여형 창작 활동으로 문학의 사회적 확장 유도

-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글쓰기 공모, 지역사 기반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등은 문학을 소수의 전유물에서 모두의 실천으로 확장시킴. 이러한 접근은 지역 문학의 사회적 기능을 복원하고, 문학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이 됨.

"동네 도서관이나 책방에서 주민들이랑 낭독 모임 같은 걸 했었어요. 참여자 중에는 글을 처음 써보는 분도 있었고요. 그런 자리에서 문학이 되게 가깝게 느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LA042)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도 했었는데, 시를 같이 읽고 쓰는 시간만으로도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정규 교육 과정에서 그런 게 거의 없으니까 작가가 직접 가서 하는 수업이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LA041)

"마을 단위로 문학 모임이 자주 생기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글을 쓰고 읽는 일상이 생기면, 문학이랑 삶이 멀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LA043)

[그룹 2-1] 작가, 평론가 등 : G3. 아동문학가

1. [그룹 2-1] : G3 참석자 명단

■ [그룹 2-1] 작가, 평론가 등 : G3. 아동문학가 소그룹은 참석자 5인으로 구성하였음

[표 2-7] 참석자 명단 - [그룹 2-1] 작가, 평론가 등 : G3. 아동문학가

구분	참석자 구분	참석자 분류	참석자 코드	성별	연령대	경력
[그룹 2-1] 작가, 평론가 등	연구협의체(n=3)	공공	LA-A	-	-	-
		공공	LA-B	-	-	-
		민간	LA-C	-	-	-
	참석자(n=5)	아동문학가	LA044	여	40대	1년
		아동문학가	LA045	여	60대	30년
		아동문학가	LA046	여	70대	23년
		아동문학가	LA047	여	50대	26년
		아동문학가	LA048	여	60대	36년

2. 주요 논의 사항

■ 창작과 생계를 병행하는 작가 현실

- 문학 창작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작가들이 강연, 교육, 기획 등 부수 활동을 병행하며 정체성을 확장해 나가는 흐름

■ 문학 생태계의 불균형 구조

- 문학상 중심의 편중된 생태계, 위축된 출판 구조, 신진 작가의 진입 장벽 등으로 인해 창작자 간 기회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지역 기반 창작 활동의 중요성

- 지역 문학관, 그림책센터 등 지역 문화 기반과 연계된 창작 활동이 활발해지며, 문학의 지역성 회복과 공간 기반 생태계가 강조됨

■ 문학의 외연 확장과 융복합 경향

- 문학이 공연, 시각예술, 전시 등 타 장르와 결합하며 새로운 창작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음. 다양한 장르 간 협업의 필요성 제기

■ 정책과 지원의 유연성 부족

- 창작자의 개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일률적 지원 방식의 한계가 지적됨. 유연하고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개선 필요

■ 해외 진출 인프라의 미비

- 해외 문학상, 번역, 유통 등 국제 진출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전문 인력과 플랫폼이 부족한 실정임

3.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문학 활동의 다변화와 작가 정체성의 교차적 변화

1) 창작과 병행되는 다양한 활동의 병존 현상

■ 창작만으로 생계유지 어려움, 복합적 직업 정체성 형성

- 문학 창작만으로는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인해, 다수의 작가들이 강연, 교육, 문화기획, 편집 등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고 있음. 이는 단순 생계 차원을 넘어 작가가 콘텐츠 생산자, 예술 기획자, 교육자로서 역할을 분화해 나가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음. 문학 생태계 내에서 작가의 정체성이 다층화되고 있으며, 이에 걸맞은 정책적 인식과 지원 방식의 전환이 필요함.

■ 창작 외 활동에서 발생하는 시간 소진과 창작의 간섭 문제

- 작가들이 강의나 프로젝트 운영, 기획 등 외부 활동에 투입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본연의 창작 시간 확보가 어려워지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음. 경제적 필요에 의해 창작보다 부수 활동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으로는 문학의 질적 저하나 창작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작가의 다중 역할 수행을 고려한 유연한 지원 체계 필요

- 문학 창작자는 이제 단일한 '글쓰기' 직업군이 아니라, 지역 문화활동가, 교육자, 프로그램 기획자 등의 복합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기존의 일률적 창작 지원 방식은 이러한 변화된 작가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창작 외 활동과 병행 가능한 맞춤형 지원, 프로젝트형 기획 지원, 협업 기반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정책 설계가 요구됨.

"문학만 해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강연 다니고 책 쓰고 뭐 교재 만들고.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나아졌죠. 요즘은 도서관 사업도 생기고, 지자체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 예술 교육 사업이 생겨서 그래도 조금은 견딜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LA047)

"지금도 저는 창작도 하지만 연구도 하고, 지역 아카이빙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또 외부에서 요청 들어오는 기획서도 쓰고, 강연도 나가고. 거의 생계의 절반 이상이 창작 외 활동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LA044)

"아무리 예술가라고 해도 결국은 일상을 영위해야 하는데, 그런 일상을 버티기 위한 구조가 없다면 아무리 창작 의지가 있어도 버티기 어렵죠. 그래서 다들 뭔가 하나씩은 하고 있어요. 교육, 강의, 기획 같은 거요." (LA045)

2) 그림책 및 아동문학의 공간 기반 활동 확장

■ 지역 기반 창작 플랫폼의 확대, 문학 활동의 장소성 강화

- 원주시 그림책센터 사례와 같이 지역 내 문화 공간을 기반으로 한 그림책 창작 활동이 전시, 강연,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고 있음. 작가 개인의 창작 공간을 넘어 시민과의 소통, 교육, 커뮤니티 형성까지 포괄하는 창작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음. 문학 활동의 장소성이 강화되며,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과 결합하는 창작 모델이 주목받고 있음.

■ 그림책 분야의 융복합적 확장, 장르 간 경계 허물기

- 그림책 작가는 창작과 동시에 전시기획자, 강연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자 등의 역할을 수행함. 이러한 활동은 시각예술, 교육 콘텐츠,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과 결합되며 문학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음. 특히 그림책은 장르 간 융복합을 실현하는 대표 사례로, 문학을 중심으로 한 복합문화 콘텐츠로의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지역 문화 거점과 문학 생태계의 상호작용 강화 필요

- 지역의 문화거점 공간이 단순한 창작 발표의 장을 넘어, 작가와 시민, 교육자, 행정이 협업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공공지원은 공간 조성에 그치지 않고 프로그램 개발, 운영 인력 양성, 지역 네트워크 형성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원으로 확대되어야 함. 지역 기반 문학 생태계의 자생력을 위한 설계가 필요함.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림책센터도 지역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단순히 창작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 강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아이들이 와서 체험도 해요. 처음엔 그냥 작업실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커뮤니티 역할이 훨씬 커졌죠. 작가로서도 다른 방식으로 사회와 연결되고 있다는 걸 많이 느껴요." (LA044)

"지역에서 이런 그림책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작가들한테는 되게 든든해요. 자기 책을 전시할 수도 있고, 독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생기니까요. 혼자서 글만 쓸 때랑은 또 다른 자극이 있죠." (LA045)

"전시도 하고, 수업도 하고, 아이들이랑도 만나고… 그림책이라는 게 글뿐 아니라 이미지와 이야기가 같이 가니까 다른 장르랑 엮이기도 쉬워요. 그래서 문학이라고 말하지만, 좀 더 넓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LA044)

3) 문학 기반 활동의 지역성과 정체성 강화

■ 지역 정착형 창작자의 증가, 문학의 장소성 강화

- 작가들이 특정 지역에 거주하며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는 단순한 생활 기반의 이동이 아니라, 지역성과 문학적 주제의 밀접한 연관을 만들어내는 흐름으로 볼 수 있음. 지역의 역사, 문화, 공동체와 연결된 서사가 창작의 동력으로 작용하며, 문학의 장소성과 정체성이 동시에 강화되고 있음.

■ 지역 문학관·문화재단과의 협업을 통한 생태계 구축

- 각 지역의 문학관, 문화재단, 공공기관 등이 지역 기반 작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창작 지원 프로그램과 문학 행사를 운영하고 있음. 이를 통해 작가는 창작뿐 아니라 교육, 기획, 지역 주민과의 교류 등 복합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는 지역 문화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함. 공공기관의 지속적 매개자 역할이 중요함.

■ 지역 기반 활동을 위한 중장기적 거점 필요

- 현재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주형 창작 프로그램이나 작가 공간 지원은 대부분 단기성과 일회성에 머무는 경우가 많음. 지역에 실제로 뿌리내리고 지속 가능한 창작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거점 마련과 창작·생활이 결합된 복합 지원이 요구됨. 지역성과 창작 주체의 안정적 결합 구조가 필요함.

"지역에서 계속 작업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역 사람들하고도 엮이게 되고, 강연 요청도 오고, 도서관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책 내용도 점점 더 여기의 정서나 분위기랑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환경이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죠." (LA044)

"저는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강원도로 온 거였는데요, 막상 와 보니까 여기에서도 충분히 창작 활동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히려 여기는 조금 느리게 가니까, 제 창작 리듬하고 더 잘 맞는 면도 있어요." (LA047)

"원주시에서도 그림책 관련 행사들이 자주 열리니까, 작가들도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어요. 문학관이나 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창작 외 활동도 병행하게 되더라고요. 지역 안에서 생태계가 조성되는 느낌이 있어요." (LA045)

4) 문학의 외연 확장과 융복합 흐름 가속화

■ 문학의 융복합화, 장르 간 경계 해체 가속화

- 문학이 더 이상 텍스트에 한정되지 않고, 공연, 전시, 영상 등 다양한 장르와 결합되며 새로운 형태로 재생산되고 있음. 시낭송극, 문학 기반 전시, 인터랙티브 영상 콘텐츠 등 복합 예술 형식이 늘어나고 있으며, 문학의 표현 방식이 다변화되고 있음. 장르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문학의 확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독자와의 새로운 접점 형성, 문학 향유 방식 변화

- 융복합 콘텐츠는 문학을 기존 출판 독자 외의 대중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고 있음. 문학을 직접 '읽는' 방식에서 '보는', '듣는', '참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며, 문학과 관객 간의 상호작용이 강조됨. 이는 문학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기여함.

■ 작가의 역할 변화, 협업 중심 창작 환경 조성

- 타 장르 예술가들과의 협업이 증가하면서, 작가는 더 이상 고립된 창작자가 아니라 공동 기획자, 예술 프로젝트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협업을 통해 새로운 서사 형식을 실험하거나, 자신이 다루는 주제를 시청각적으로 확장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창작자의 역량과 정체성이 재정의되고 있음.

"예전에는 그냥 책으로만 표현됐던 이야기들이 요즘엔 전시나 공연으로도 많이 연결되잖아요. 저도 제 그림책 내용 일부가 시각 예술 작업이랑 엮여서 공간에 설치된 적이 있어요. 그걸 보고 아이들이 반응하는 걸 보니까, 텍스트로만 전할 수 없는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도 전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LA044)

"문학도 결국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느냐에 따라 훨씬 다양한 접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낭독극이나 영상 콘텐츠로 만들어지는 사례도 많고요. 저도 얼마 전에 다른 작가랑 공동 작업으로 소리 기반 작품을 해봤어요." (LA045)

"전에는 혼자 쓰고 혼자 출판하는 게 전부였는데, 요즘은 전시나 행사, 워크숍 같은 데에서 다른 분야 사람들이랑 같이 기획도 하고 작품을 다시 구성하기도 해요. 그게 또 다른 창작의 자극이 되기도 하고요." (LA047)

5) 기성 작가의 역할 전환가 세대 간 연결 필요성

■ 중견·기성 작가의 역할 전환, 생태계 내부 자원화 필요

- 오랜 경력을 가진 작가들이 단순한 창작자에서 벗어나 멘토, 기획자, 정책 자문 등 생태계 내부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음. 이는 작가 개인의 경험이 공동체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자산으로 전환되는 흐름임. 창작 외에도 문학 행사 운영, 심사 활동, 출판 기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음.

■ 세대 간 교류 부재, 창작 경험의 단절 문제

- 신진 작가와 기성 작가 간의 교류 창구가 구조적으로 부족하여, 축적된 창작 지식과 생존 전략이 다음 세대로 전승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작가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문학 생태계의 지속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세대 간 소통과 연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작가 생애 주기별 정책 설계 필요

- 창작자들은 경력 단계에 따라 필요로 하는 지원과 환경이 다름에도, 현행 정책은 주로 '신진' 또는 '기성'이라는 이분법적 기준에 머물러 있음. 중견 작가들이 축적한 경험을 공유하고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애 주기에 맞는 유연한 정책 설계가 요구됨. 작가의 지속 활동과 이탈 방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이제는 단순히 창작만 하는 게 아니라, 후배들 강의도 하고 출판 쪽 기획에도 참여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역할이 바뀌는 거죠. 글만 쓰는 걸로는 생계가 어려우니까, 다른 방식으로도 문학과 연결되고 있어요." (LA047)

"예전에는 선배 작가들이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조언도 해주고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배들도 어디에 물어보거나 배울 데가 없고요." (LA044)

"공공지원도 보면 거의 신진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중간 단계에 있는 작가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버텨야 하는 것 같아요. 일정한 성과가 있다고 해서 다음 단계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LA045)

나. 생태계 이슈

제도 밖 창작자와 문학 생태계 내 보이지 않는 불균형

1) 문학상 중심 생태계 불균형

■ 문학상 수상 구조의 폐쇄성, 기회 접근성의 불균형 초래

- 문학상이 특정 인맥, 평론가 집단, 출판 네트워크와 밀접히 연결되며,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신인 작가나 지역 기반 작가, 제도권 밖 창작자들은 응모 자체를 포기하거나 의욕을 잃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폐쇄성은 문학의 다양성과 창작 동기를 약화시키며, 생태계 전반에 장기적 침체를 유발할 위험이 있음.

■ 문단 중심 시스템의 고착화, 문학계 외연 확장 저해

- 특정 문예지와 심사위원 그룹을 중심으로 문학상 운영이 반복되면서 문학계 내부의 순환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문학계 외부의 실험적 창작, 독립문예 활동 등은 평가받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고 있음. 새로운 독자층과의 접점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창작 방식이 제도 내로 흡수되지 못하고 있음.

■ 신진 작가 등용 경로의 축소, 창작 지속 가능성 위협

- 등단 제도가 약화된 이후 문학상은 신진 작가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등용문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러나 폐쇄적 운영 구조로 인해 실질적인 기회는 제한적이며, 이는 신진 창작자의 창작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함. 창작 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실험과 실패를 허용할 수 있는 진입 구조 마련이 시급함.

"문학상이라는 게 결국은 평가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이미 정해진 사람들 안에서만 반복되면 나 같은 사람은 애초에 도전할 마음도 없어지는 거죠. 문학이 다양성을 얘기하려면 그 안에서의 접근 기회부터 바뀌어야 해요." (LA047)

"이제는 등단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고들 하니까, 신인들이 뭘 목표로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자주 들어요. 결국은 문학상이 하나의 등용문처럼 작동하게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려면 인맥도 필요하고, 감도 맞아야 하고, 운도 따라야 하는 구조라면… 지속하기가 힘들죠." (LA048)

"지역에서 활동하면 더 멀게 느껴지죠. 누구랑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발표할 곳도 한정적이고. 결국 혼자 쓰고 혼자 접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LA044)

2) 출판 생태계의 축소와 작가 노출 기회의 감소

■ 편집자 중심 시스템 약화, 문학의 필터링 기능 저하

- 과거 문학 생태계에서 편집자와 출판사는 작가 발굴, 기획, 원고 수정 등 콘텐츠의 중개자이자 품질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해 왔음. 그러나 최근 독립출판 확대와 디지털 플랫폼 기반 자가출판 증가로 이러한 편집 구조가 약화되면서 문학 콘텐츠의 선별성과 완성도가 저하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문학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구조가 흔들리고 있음.

■ 직접 유통 기반 확대, 문학의 시장 중심 재편 우려

- 작가가 직접 자신의 작품을 유통하고 독자와 연결되는 방식이 보편화되며, 출판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음. 이는 창작의 자유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동시에,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보다는 시장 반응과 수익성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음. 상업성과 인기 중심의 편중이 문학의 다양성을 위협하고 있음.

■ 문학적 실험과 신진 작가 육성 구조의 약화

- 출판 편집자들이 수행해오던 실험적 작가 발굴과 리스크 감수의 기획 기능이 감소하면서, 새로운 문체나 형식에 대한 실험이 위축되고 있음. 작가가 초고 단계에서부터 독자와 직접 만나야 하는 구조는 초기 실험의 여유를 허용하지 않으며, 문학의 실험성과 다양성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함.

"요즘은 출판사 편집자가 아예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작가가 직접 기획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결국 자기가 다 해서 독립출판 형태로 내는 경우가 많아졌죠. 그게 자유롭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완성도나 피드백 면에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LA044)

"신인 작가들이 자기 책을 낸다고 해도, 기존 유통망에 올리기가 어렵고 결국 행사나 SNS를 통해서만 소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끼리 보는 구조가 돼서 확장성이 떨어지죠." (LA045)

"기획 편집자가 끌어주는 시스템이 사라지면서, 실험적인 글쓰기가 갈 곳을 찾지 못하는 느낌이에요. 특히 출판사들이 안정적인 장르에 집중하다 보니까, 실험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LA047)

3) 청년 작가의 지속 가능성 확보 어려움

■ 창작 활동과 생계의 분리 불가능성, 이중 노동 구조 고착

- 청년 작가들이 창작만으로는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구조 속에서, 대부분이 비문학적 아르바이트나 교육 활동 등을 병행하고 있음. 이로인해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있으며, 문학 활동은 '본업'이 아닌 '부업'으로 전락하는 경향이 있음. 창작과 생계를 양립하기 위한 정책적 안전망 마련이 요구됨.

■ 지속 불가능한 창작 환경, 문단 진입 전 이탈 증가

- 작가 지망생이나 초기 창작자들이 공식 등단이나 수상 이전에 창작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는 경제적 불안정성, 발표 기회 부족, 피드백 부재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함. 청년 창작자들이 창작을 지속하며 성장할 수 있는 장기적 경로와 생태계 내 정착 구조 마련이 시급함.

■ 창작 지원의 연령·경력 중심 편중, 청년층 배제 현상

- 현재 운영되는 문학 지원 제도가 경력 작가나 일정 나이 이상의 작가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창작 경력이 짧은 청년 작가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잦음. 창작 초기 단계에 있는 작가들을 위한 실험적, 소규모, 반복 가능한 창작 지원 모델 구축이 필요함.

"저는 솔직히 한동안은 글 쓰는 게 거의 취미처럼 됐었어요. 생계가 안 되니까요. 낮에는 알바하고 밤에 조금씩 쓰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창작이 밀리게 되죠. 뭔가 보여주기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LA048)

"지원사업도 보면 나이 기준이 있거나, 일정 경력 이상이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입 장벽이 느껴지더라고요. 좀 실험적인 시도는 아예 대상에서 빠지는 느낌이었고요." (LA044)

"글을 써도 발표할 곳이 마땅치 않다 보니, 자비 출판하거나 그냥 블로그에 올리고 마는 경우도 많아요. 그걸 계속 이어가는 게 어렵죠." (LA045)

4) 기초지자체의 문화 정책 실효성 문제

■ 공간 조성 위주의 지원 한계, 실효성 있는 운영 구조 필요

- 문화 정책에서 창작 공간 조성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그 공간이 실제 창작자에게 활용되지 않거나 접근성이 낮은 경우가 많음. 물리적 공간이 단순한 시설 제공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창작 활동과 연결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기획, 상주 작가 제도, 커뮤니티 운영 등 운영 모델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창작자 참여 미흡, 정책 수요자와 공급자 간 괴리 존재

- 공간이나 사업을 기획·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제 창작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현장 수요와 맞지 않는 콘텐츠나 일회성 사업이 반복되고 있음. 지원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초기 기획 단계부터 창작자의 참여와 피드백이 제도화되어야 함. 실사용자 중심의 정책 설계가 필요함.

■ 지역 기반 창작 공간의 지속 가능성 부족

-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조성된 창작 공간이 초기 예산 집행 이후 방치되거나, 단기적 운영에 그치는 사례가 빈번함. 공간 유지에 필요한 인력, 예산, 연간 프로그램 등 소프트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창작자 유입과 커뮤니티 형성이 어려운 구조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 된 장기 운영 전략이 요구됨.

"공간이 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운영하는 사람 자체가 문학을 잘 모르거나, 예술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작가들이 이용하기 어렵죠. 그냥 방치되다시피 하는 공간도 있고요." (LA045)

"지자체에서 예산이 남아서 공간은 만들었는데, 정작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하고는 전혀 상의가 안 된 상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참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LA047)

"처음에는 상주 작가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었는데, 해보니까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만두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일회성 프로젝트로 끝나버리고, 다시 연결되기가 쉽지 않아요." (LA044)

5) 해외 진출을 위한 번역·유통 체계의 부족

■ 번역 지원의 일회성 한계, 장기적 유통 전략 부재

- 해외 문학상 진출이나 번역 출판을 위한 제도는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단발성 번역 지원이나 작품 소개에 그치는 구조임. 번역 이후 유통, 현지 출판 계약, 지속적 마케팅 등 실제 진출로 이어지기 위한 연속성이 부족함. 번역을 시작으로 한 장기 유통 전략과 후속 지원 체계가 병행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해외 진출 전문 인력과 플랫폼 부족

- 해외 진출을 돕는 전문 에이전시, 국제 출판 네트워크, 문학 큐레이터 등의 역할이 부재하거나 분절적으로 존재함. 작가와 작품을 연결하는 중개자가 부족해 개별 작가의 역량에 따라 성과가 좌우되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전문 인력 양성과 교류 플랫폼 구축이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

■ 교류 기반의 지속 가능성 확보 필요

- 단기적 교류 프로그램이나 페스티벌 중심의 지원은 상호 호혜적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고, 국내 문학의 해외 내재화에도 한계가 있음. 교류의 지속성과 축적이 가능한 작가 레지던시, 상호 번역 프로젝트, 연속 기획 시리즈 등 장기 호흡의 전략이 필요함. 해외 진출을 '성과'가 아닌 '관계'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 요구됨.

"해외 진출을 해보려면 번역도 필요하고, 어디에 보낼지도 알아야 하는데 그런 걸 도와줄 시스템이 거의 없어요. 번역 한 번 지원받는 걸로는 아무것도 안 되고, 실제로 그다음 단계가 너무 막막하죠." (LA048)

"지금은 거의 작가 개인이 알아서 에이전시를 찾거나, 번역가랑 따로 연결돼서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요." (LA044)

"저는 운 좋게 번역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유통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감이 없었어요. 그냥 소개되고 끝나는 경우도 많고, 현지 독자까지 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LA047)

6) 문학계 내 비가시적 활동의 평가 부재

■ 문학 생태계를 지탱하는 숨은 역할에 대한 저평가 문제

- 편집, 기획, 북큐레이션, 문학 행정 등 창작을 둘러싼 다양한 실무 활동은 문학 생태계의 기반을 형성함에도 불구하고, 공공 지원이나 평가 체계에서는 여전히 주변부로 간주되고 있음. 이들은 작가와 작품을 연결하고 독자와의 접점을 형성하며, 문학 콘텐츠의 유통과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고려에서 배제되어 있음.

■ 비가시적 노동의 제도적 사각지대 존재

- 문학계의 비가시적 활동 종사자들은 대체로 프리랜서나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되며, 안정적인 수입과 사회적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있음. 행사 기획, 콘텐츠 운영, 작가 매니지먼트 등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더라도 이에 대한 명확한 보상 기준이나 지속 가능한 일자리 구조는 미비함. 문화 정책은 창작자 외의 노동도 문학 생태계의 일환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직군을 포괄하는 지원 체계 확대 필요

- 문학 지원 정책이 대부분 '작가'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문학 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역할군은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음. 편집자, 북큐레이터, 콘텐츠 기획자, 문학 행사 운영자 등이 창작자와 협력하며 생태계를 유지하는 구조를 반영해, 이들에 대한 교육, 훈련, 고용 안정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

"작가만 문학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전달하는 데에는 기획자도 있고, 북큐레이터도 있고, 행사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이런 역할들은 대체로 그냥 그림자처럼 존재하고, 지원에서도 빠져 있어요." (LA045)

"저도 한동안 도서관이나 문화재단 쪽이랑 연결해서 문학 프로그램 기획하는 일을 했는데, 계약직이고 프로젝트성 일이다 보니까 안정성은 없어요. 그런데도 그걸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LA044)

"이런 일을 하려면 사실 작가들보다 더 현장을 잘 알아야 하는데, 제도적으로 그런 걸 배우거나 준비할 수 있는 루트가 거의 없어요. 결국은 현장에서 부딪히며 익히는 수밖에 없죠." (LA047)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맞춤형 창작 지원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설계 필요

1) 개별 창작자 중심의 유연한 지원 체계 필요

■ 창작 주기와 작업 방식에 따른 맞춤형 지원 필요

- 작가마다 창작 주기, 작업 방식, 집필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원 제도는 일률적인 금액과 기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음. 장편 소설과 단편 시, 문학 비평과 그림책 등 장르별 요구 조건이 상이하므로, 창작 현실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체계가 요구됨. 창작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함.

■ 창작 시간 확보를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 시급

- 작가들이 생계 활동에 상당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현실에서, 안정적으로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서, 레지던시, 작업 공간 제공, 창작 휴식기 보장 등 시간 기반 제도가 병행되어야 함. 창작 시간은 문학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자원임.

■ 획일적 심사 기준의 한계, 질적 접근으로의 전환 필요

- 정량 중심의 심사 기준은 실험적 창작, 장기적 기획, 복합 장르 작업 등을 포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작가의 창작 의도와 문학적 방향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질적 평가 체계가 필요하며, 장르별 전문가 평가 및 인터뷰 형 심사 등 다양한 방식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함. 유연성과 다양성을 포괄하는 제도 전환이 요구됨.

"지원사업 공고 보면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몇 개월 안에 뭘 제출해야 한다든지. 근데 작업 방식이 느린 작가도 있고, 자료 조사만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게 고려되진 않아요." (LA048)

"그림책 같은 경우는 글만 쓰는 게 아니라 그림 작업이랑 같이 가야 하니까,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지원은 거의 텍스트 중심이라, 형식이 조금만 달라도 불리해지더라고요." (LA044)

"작품을 오래 구상하고 준비해야 할 때도 있는데, 그런 건 지원에서 잘 안 먹혀요. 단기성과가 있어야 되는 분위기라서, 깊이 있는 작업은 오히려 불리할 때가 많아요." (LA047)

2) 출판 편집 시스템 복원 및 연계 전략 약화

■ 독립·지역 출판 기반 강화, 실험적 문학의 토양 조성 필요

- 문학의 실험성과 다양성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대형 출판사 중심 구조를 넘는 독립출판사와 지역 출판 생태계의 재건이 필요함. 이들은 신진 작가의 초기 작품을 수용하고, 지역적 서사를 담아내며 문학 외연 확장에 기여하고 있음. 공공 지원은 단순한 단체 운영비가 아닌, 실질적인 유통과 제작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함.

■ 편집자 중심의 기획형 창작 모델 회복 필요

- 과거 문학계는 편집자가 작가와 함께 작품을 다듬고 기획하는 과정을 통해 문학적 완성도를 높여왔음. 최근 이 구조가 약화되며 작가가 홀로 모든 제작과정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일반화되고 있음. 편집자와 작가가 협업하는 기획형 창작 모델을 다시 활성화함으로써, 창작의 질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 문학 유통 인프라의 다변화와 접근성 확보

- 대형 유통망 위주의 공급 구조는 문학의 다양성을 담아내기 어려우며, 실험적 작품은 독자에게 도달하기 어려운 구조임. 지역서점, 전자출판, 북페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유통 다변화가 필요하며, 공공기관의 기획 연계나 큐레이션 지원 등을 통해 문학 유통 생태계를 보다 접근성 높게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예전에는 출판사에서 원고 받고 편집자랑 여러 번 오가면서 같이 완성해 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줄었어요. 작가가 그냥 다 알아서 하고, 기획도 직접 하고, 홍보까지 하는 경우도 많아요." (LA047)
>
> "저는 독립출판으로 책을 냈는데, 주변 작가들 보니까 지역 기반으로 활동하면서도 유통이 안 되니까 결국 지인들 위주로만 판매되더라고요. 작가가 스스로 유통까지 해야 하니까, 오래 하긴 어렵죠." (LA044)
>
> "대형 서점에 책을 넣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고, 북페어나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마저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구조가 없어요. 좋은 책이 묻히는 경우가 많죠." (LA045)

3) 문학 공간 및 커뮤니티 조성에 대한 중장기 투자

■ 공간 제공 중심 지원의 한계, 자율적 커뮤니티 운영 기반 필요

- 창작 공간을 단순히 제공하는 방식은 작가 간 교류나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를 형성하기에 한계가 있음. 공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주 작가 간 자율적 기획, 프로그램 운영, 공동 창작이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중심의 구조가 필요함. 물리적 공간보다 운영 방식의 설계가 중요해지는 시점임.

■ 커뮤니티 운영 전문 인력의 부재, 운영자 양성 시급

- 문학 공간의 지속성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 관리자가 아닌, 문학 콘텐츠를 이해하고 기획할 수 있는 운영자 양성이 필요함. 현재 대부분의 문학 커뮤니티는 소수 인력에 의존하거나 비전문적 운영에 머무르고 있음. 지역 기반 문학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전문 운영 인력의 교육과 훈련이 병행되어야 함.

■ 창작자 네트워크 기반의 협업 생태계 조성 필요

- 고립된 작가 중심 공간은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을 만들기 어려우며, 작가 간 교류와 협업, 정보 공유가 가능한 네트워크 설계가 병행되어야 함. 이를 통해 공동 프로젝트, 기획 문학 행사, 외부 연계 등이 자연스럽게 확장되며 커뮤니티의 생명력을 높일 수 있음. 창작자 주도의 자생적 생태계 형성이 중요함.

> “문학 공간이 있더라도 그냥 사무실처럼 앉아 있다 나가는 구조면 의미가 없잖아요. 같이 뭔가 만들어가려면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기획도 하고 활동도 해야 하는데, 그런 구조는 잘 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LA045)
>
> “지역에서 문화 공간을 운영하다 보면 프로그램도 그렇고 운영 방식도 외주에 맡기거나 단기 계약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 자체가 계속 이어지기 어렵고, 사람도 자주 바뀌죠.” (LA044)
>
> “저는 지역 작가들끼리 네트워크 만들어서 공동 전시도 하고 프로그램도 같이 한 적 있는데, 그게 훨씬 지속적이더라고요. 누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만드는 구조니까요.” (LA047)

4) 세대 간 교류 및 작가 성장 단계별 지원 필요

■ 창작자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 필요

- 신진, 중견, 기성 작가 등 창작자의 생애 주기에 따라 필요로 하는 자원과 정책 목표가 다름에도, 현재 문학 정책은 획일적인 지원 구조에 머물러 있음. 초기에는 발표 기회와 멘토링, 중견 단계에서는 창작 지속성과 유통, 기성 단계에서는 사회적 환원과 지식 이전이 중요함. 단계별 맞춤형 지원 설계가 필요함.

■ 커리어 전환기 지원 미비, 창작 지속성 단절 위험

- 등단 이후 일정한 성과를 쌓은 작가들이 출판 시장 축소, 기획 부재, 경제적 불안 등으로 창작을 중단하는 경우가 빈번함. 특히 중견 작가의 창작 지속을 위한 기획형 프로젝트, 재교육, 교류 기회 등 커리어 전환기 정책이 부족함. 작가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지속성 기반의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함.

■ 정책 대상의 연령·경력 중심 구분 한계

- 현재 다수의 공공지원 사업은 나이 또는 등단 연차 기준으로 구분되며, 실제 창작 활동 여부나 성과와 무관하게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 유연하고 입체적인 작가 분류 기준과 창작 이력 기반의 평가 체계가 필요함. 생애 주기 중심의 정책 전환은 작가 개인의 경로를 존중하는 기반이 됨.

"작가들이 처음에는 공모전이나 문학상 같은 걸 목표로 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잘 안 보여요. 중간 단계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고, 결국에는 생계 때문에 창작을 접는 사람들도 많죠." (LA048)

"젊은 작가들만을 위한 것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사람들한테도 창작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해요. 지금은 그런 중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요." (LA045)

"예전에는 선배들이 끌어주고 후배들이 배우는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세대 간 연결이 좀 단절된 느낌이에요. 각자 알아서 버티는 구조라고 해야 할까요." (LA044)

5) 해외 진출을 위한 전문 인력 및 플랫폼 육성

■ 해외 진출 실무 인력 부족, 전문 인력 양성 시급

- 번역가, 국제 문학 에이전트, 출판 코디네이터 등 문학의 해외 진출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전문 인력이 매우 제한적임. 현지 출판 시장 이해, 판권 협상, 문화 중개 능력을 갖춘 실무자의 체계적 양성이 필요함. 단기 프로젝트가 아닌 중장기 훈련과 현장 중심 교육 프로그램 도입이 요구됨.

■ 국제 문학 네트워크와 연계된 플랫폼 부재

- 해외 도서전, 문학 페스티벌, 레지던시 등과 연계 가능한 국내 플랫폼이 분산되어 있거나 개별 작가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문학 수출 플랫폼을 마련해, 번역·홍보·유통을 아우르는 종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플랫폼 운영은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함.

■ 번역·유통 과정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구조 필요

- 번역 이후 단순한 결과물 제작에 그치지 않고, 유통 및 독자와의 접점을 형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구조가 필요함. 번역 후 출판 연계, 현지 마케팅, 교류 확대 등 후속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와 인력이 갖춰져야 하며, 이를 통해 한국 문학의 해외 진출이 단발성이 아닌 생태계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음.

"해외 진출을 하려면 번역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유통하고 어떤 식으로 현지 출판사랑 연결할지에 대한 정보나 시스템이 없어요. 작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LA047)

"일회성으로 한두 편 번역된다고 해서 그게 실제 유통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지속적으로 현지랑 연결되는 구조가 없으니까요. 그런 건 기관이 좀 더 전략적으로 해줘야 하는 부분 같아요." (LA044)

"작가 개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일들이 많아요. 번역도 그렇고, 계약도 그렇고, 결국은 중간에서 조율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전문 인력이 거의 없어요." (LA048)

[그룹 2-1] 작가, 평론가 등 : G4. 평론가

1. [그룹 2-1] : G4 참석자 명단

■ [그룹 2-1] 작가, 평론가 등 : G4. 평론가 소그룹은 아래와 같이 참석자 3인으로 구성하였음

[표 2-8] 참석자 명단 - [그룹 2-1] 작가, 평론가 등 : G4. 평론가

구분	참석자 구분	참석자 분류	참석자 코드	성별	연령대	경력
[그룹 2-1] 작가, 평론가 등	연구협의체(n=3)	공공	LA-A	-	-	-
		공공	LA-B	-	-	-
		민간	LA-C	-	-	-
	참석자(n=3)	평론가	LA049	남	40대	11년
		평론가	LA050	남	40대	18년
		평론가	LA051	여	30대	3년

2. 주요 논의 사항

■ 문학평론 등단과 활동 구조
- 문학 평론가의 보수적인 등단 과정, 대학과 대학원을 중심으로 한 평론가 양성의 제도적 특성, 평론 활동의 다중 직업적 현실

■ 문학 평론가의 생계와 직업 안정성
- 평론 활동만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제적 불안정성 문제와 비정규직 강의 등 평론가의 생계유지 현실

■ 평론 생태계의 구조적 한계
- 제한된 독자층과 낮은 대중적 접근성 문제, 문예지 중심의 폐쇄적 제도 운영 및 신진 평론가 진입 장벽 문제

■ 문학평론의 세대 간 소통 단절
- 선배와 후배 평론가 간의 단절과 소통 부족 문제, 평론 담론의 지속성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 문학평론 활성화를 위한 공공 지원
- 평론가의 경제적 안정성을 위한 정부 지원의 확대, 평론 콘텐츠의 다양화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신진 평론가 육성을 위한 멘토링 및 프로그램 도입 필요

3.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문학 평론가의 등단과 활동 현황

1) 등단 방식의 보수성과 제도적 특징

■ 평론 분야의 폐쇄적 등단 구조, 진입 방식의 한계
- 평론 분야는 신춘 문예와 문예지 신인상 등 극히 제한된 공식 경로를 통해서만 등단이 가능함. 이는 다양한 창작 루트가 열려 있는 다른 문학 장르와 달리 평론가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됨.

■ 독자층의 협소함과 제도권 의존성 문제
- 평론은 독자층이 매우 좁아 자가 출판이나 독자적인 방식으로는 사회적 인정을 받기 어려움. 결국 평론가들은 문예지 등 전통적 제도권의 승인을 통해서만 활동 기회를 얻을 수 있음.

■ 평론가 진입 방식 다양화 및 지원 필요
- 평론 분야의 보수적 등단 방식을 개선하여 자가 출판,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독립적인 평론 활동에도 정당한 평가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다양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평론이 근데 다른 분야랑 좀 다르게 시나 소설은 그래도 자가 출판을 한다거나 아니면 메일링을 한다거나 이런 다른 방식의 데뷔가 좀 가능한 편인데 평론은 조금 더 어려운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등단을 하지 않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 장르에 비해서는 되게 소수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신춘문예 신문에서 하는 신춘 문예나 아니면은 이렇게 문학 잡지에서 하는 신인상을 통해서 데뷔하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인 것 같아요." (LA051)

"그러니까 글을 쓰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대체로 진학하는 데가 문창과나 혹은 이제 국문과인데 국문과에서는 제도적으로 애초에 창작 커리큘럼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고 훨씬 더 비평이나 연구 위주의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학부 시절을 지내다 보면 비평적 글을 쓰는 연습이 체화가 되는 거죠." (LA050)

"등단을 이제 문예지 쪽으로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뒤에 비평가로 계속 꾸준히 활동을 하려면 그러니까 글을 계속 써나가려면 학부 수준의 공부로는 좀 힘들겠다라고 해서 저는 나중에 대학원을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LA050)
"지금 평론가 분들이 활동하시는 걸 보면 문예지 중심으로 작품을 발표하거나, 문예지에서 편집 활동을 하시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 자가 매체나 온라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제도권에서 평가받거나 인정받는 구조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LA049)

"결국 등단이라는 것도 하나의 제도이자 구조인데, 그 구조가 너무 오래된 방식으로만 유지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한테는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특히 평론은 그런 점이 더 심한 편이죠." (LA050)

2) 평론가의 다중 직업 현실

■ 평론 활동의 경제적 불안정성

- 대부분의 문학 평론가는 평론만으로는 충분한 소득을 얻기 어려워 대학 강의나 문예지 편집위원, 북토크 진행 등 다양한 외부 활동을 병행할 수밖에 없음. 이는 평론 활동의 경제적 불안정성에서 비롯된 현상임.

■ 평론가의 전업 활동을 위한 경제적 지원 체계 필요

- : 문학 평론가들이 안정적으로 전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선 정부 및 공공 차원의 경제적 지원과 안정적 일자리 제공 등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함

"사실 이제 문학 평론이라는 직함을 달고 활동을 하긴 하지만 글을 쓰는 것 외에 이러저러한 외부 프로그램들 북토크나 아니면 문학평론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또 행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자리에 말로 하는 일종의 글이 아닌 어떤 구술로서의 비평적 작업이라고 할까요? [...] 그리고 문예지에 이제 편집 위원을 몇 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성현아 선생님처럼 정규직은 아니고 비정규로 그 대학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고요." (LA050)

"비평이라고 하는 게 그것만으로 생계 활동이 불가능한 영역이고요. 그러다 보니 비평가로서 활동하기 위해 내가 어떤 적을 두어야 한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 결국은 평론가들도 병행할 수 있는 일들을 찾게 되는 구조죠." (LA050)

"비평 활동을 하면서도 생계를 위해 다른 걸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자리를 잡는 식의 루트를 자연스럽게 고려하게 되더라고요. [...] 문학연구와 병행하는 형태가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로 여겨져요." (LA049)

"창작자에 대한 지원은 지금 꽤 다양하게 있고, 자료 조사나 책 출간을 위한 지원도 마련되어 있지만, 그 이후—글이 나온 다음의 삶이나 활동에 대한 지원은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이 좀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LA049)

3) 학부와 대학원을 통한 제도적 양성

■ 평론가 양성의 대학 중심성, 제도적 교육의 한계
- 평론가 대부분은 국문과나 문창과 등 대학의 제도적 교육을 통해 배출되며, 이러한 구조는 대학 교육에 의존적임을 보여줌. 제도적 교육 외에 현장 기반의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황임.

■ 대학원 과정의 필수화 및 고학력화 경향
- 대학원 교육이 평론가에게 필수적인 과정으로 인식되어, 학부 수준 이상의 전문 지식과 비평 역량을 얻기 위해 대학원 진학이 불가피한 실정임. 이는 진입 장벽을 높이고, 평론 분야의 고학력화를 가속화함.

■ 평론가 양성 경로의 다양화 및 현장 중심 프로그램 필요
- 기존 대학 중심의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현장 중심 프로그램 및 실습 중심의 커리큘럼을 도입하여 평론가 양성 경로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국문과에서는 제도적으로 애초에 창작 커리큘럼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고, 훨씬 더 비평이나 연구 위주의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학부 시절을 지내다 보면 비평적 글을 쓰는 연습이 체화가 되는 거죠." (LA050)

"저는 이제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고, 그 경우에는 평론으로 레포트를 작성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수업마다 논문을 내기도 하지만, 소논문 대신 평론을 작성해서 내기도 했고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글을 쓰다가 투고해서 데뷔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LA051)

"비평 활동을 함에 있어서 학부만 있냐 아니면 석사, 박사 학위가 있냐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문학 연구를 지속하면서 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자리를 잡는 방식이 거의 유일한 진로로 여겨지죠. 그래서 대학원 진학이 사실상 필수처럼 되어 있어요." (LA049)

"비평가로서 증명받는 공식 루트가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 합류하기 위해선 등단 외에도 학문적 자격이나 이력이 필요한 분위기예요. [...] 그러다 보니 학부를 넘어 대학원 과정이 자연스럽게 필수처럼 여겨지고요." (LA050)

"지금은 대학에서 배우는 방식 외에는 평론을 배울 수 있는 실질적인 장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 다양한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실습 기회가 마련되면 진입 장벽을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LA051)

4) 비평가의 사회적 역할 인식

■ 문학 평론가의 사회적 담론 생산자

- 평론가는 단순한 작품 비평을 넘어서 문학을 현실과 연결하며,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함. 문학의 사회적 가치를 드러내고 공적 논의를 이끌어가는 문화적 주체임.

■ 문학과 사회의 가교역할

- 문학 평론가는 작품과 현실 세계를 잇는 매개자로서 작품에 내재된 사회적 맥락과 의미를 독자에게 전달함. 이는 문학의 사회적 소통과 가치를 확산시키는 핵심 역할임.

■ 평론가의 문화적 책임과 사회적 기능 강화 필요

- 평론가가 사회적·문화적 담론 형성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론 활동의 사회적 의미와 책임성을 지원·강화하는 정책과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

"사실 이제 문학 평론이라는 직함을 달고 활동을 하긴 하지만, 글을 쓰는 것 외에 북토크나 문학평론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자리에 말로 하는, 일종의 글이 아닌 어떤 구술로서의 비평적 작업이라고 할까요? [...] 그런 일들을 하며 지내고 있고요." (LA050)

"말로 하는 행사에 참여해서 대중들과 호흡하는 그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요구가 자꾸 오는 거잖아요. [...] 그런 활동들이 오히려 독자 접점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되고 있는 거죠." (LA049)

"문학 출판의 편집자는 작가들과 소통하면서 원고를 잘 만들어내고 책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유튜버나 인플루언서처럼도 행동해야 한다는 기대가 생겨버렸죠. [...] 그런 변화 속에서 평론가 역시 단순히 글을 쓰는 사람을 넘어서, 독자와 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것 같아요." (LA049)

"저는 평론이라는 게 결국은 문학이라는 걸 사회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어떤 맥락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 그래서 단순히 감상문이나 분석을 넘어서, 사회적 이야기로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느껴요." (LA051)

"비평이라는 건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문학 안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장르잖아요. 그런 점에서 평론가가 문화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존재라는 인식이 더 많이 공유되었으면 좋겠어요." (LA050)

나. 생태계 이슈

평론가 직업 환경의 불안정성과 생태계 한계

1) 평론가의 경제적 불안정성

■ 평론가의 경제적 불안정성과 다중 직업 현실

- 문학평론 활동만으로는 안정적인 수입 확보가 불가능하여 평론가들이 대학 강사직이나 기타 직업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임. 이는 평론 활동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것임.

■ 비정규직 강의 의존에 따른 활동 지속성 문제

- 평론가들이 주로 비정규직 형태의 대학 강의를 병행하면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나, 불안정한 직업 환경 때문에 전문적 평론 활동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

■ 전문성 유지와 활동 지속을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 평론가가 경제적 안정 속에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 일자리 제공, 창작 지원금 등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과 공적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함.

"사실 이제 문학 평론이라는 직함을 달고 활동을 하긴 하지만 글을 쓰는 것 외에 이러저러한 외부 프로그램들, 북토크나 아니면 문학평론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더라고요. [...] 저도 이제 ○○○ 선생님처럼 정규직은 아니고 비정규로 그 대학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고요.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LA050)

"비평 활동 한국 문학에서의 한국 문학평론가로서 이걸로만은 지속 가능한 어떤 생계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 결국 문학 연구를 지속하면서 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자리를 잡고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거죠." (LA049)

"지금 단적으로 딱 생각하면은 약간 기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 어쨌든 그마저도 결론적으로 약간 비정규적인 일이고, 온전히 내 생계를 사실상 다 책임져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죠." (LA049)

"창작자를 지원하고 너 열심히 써, 자료 조사할 때 우리가 지원해 줄게, 책 내면 돈 줄게… 이런 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책을 내고 나서, 그다음 단계에 대한 지원은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 이후에 대한 사후적 지원이 더 절실하다고 느껴요." (LA049)

2) 제한적 독자층과 접근성 문제

■ 문학평론의 협소한 독자층과 접근성 문제

- 평론은 독자층이 매우 제한적이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글로 인식되어 있음. 이는 독자들과의 소통 기회를 제한하고, 평론가의 사회적 활동 범위와 영향력 확대에 장애로 작용함.

■ 평론의 대중성 부족과 영향력 약화 현상

- 평론은 일반 독자들에게 어렵고 전문적인 글로 여겨져 널리 읽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평론의 사회적·문화적 영향력이 점점 축소되는 문제를 겪고 있음.

■ 평론 독자층 확대를 위한 매체 다양화와 접근성 제고 필요

- 평론가들의 활동이 대중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평론의 표현 방식 및 유통 경로를 다양화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적극 도입하여 독자층을 넓혀야 함

"평론이라는 장르 자체가 아무래도 독자가 좀 좁다 보니까, 다른 장르보다는 소통이 어렵다고 느끼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을 쓸 때에도 대상이 협소하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게 되고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하고 평론을 매개로 만날 수 있는 방식이 뭘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LA051)

"지금은 글을 쓰는 것 외에 북토크라든가, 문학평론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구술로 이야기하는 자리가 많이 생겼어요. 저는 이런 자리가 평론이라는 걸 조금 더 열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여전히 평론이 어렵다는 인식이 있고, 그게 대중과의 거리감을 만드는 것 같아요." (LA050)

"문학잡지 편집 일을 하다 보면 이 글이 과연 얼마나 많은 독자에게 닿을 수 있을까, 늘 고민하게 됩니다. 유통 구조도 그렇고, 잡지라는 매체 자체가 예전만큼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좀 더 다양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느껴요." (LA049)

"평론이라는 게 결국은 글로만 존재할 게 아니라, 지금의 시대에 맞게 말과 영상, 혹은 다른 표현 방식과 결합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독자와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더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LA050)

"요즘은 단지 문예지에 투고하는 것만으로는 독자층을 확장하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래서 저도 블로그나 팟캐스트 같은 매체도 활용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평론이라는 형식이 갖고 있는 경직성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느껴요." (LA051)

3) 문예지 중심의 문학 제도의 한계

■ 문예지 중심의 평론 생태계, 활동 기회의 제한성

- 현행 문학평론 생태계는 문예지 중심의 등단과 활동에만 집중되어 있어, 신진과 기성 평론가 모두의 활동 범위가 한정됨. 이는 평론가들이 다양한 활동과 담론 형성을 펼칠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옴.

■ 보수적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한 생태계 정체 현상

- 문학평론 분야가 전통적인 문예지 시스템에 의존하며 제도적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새로운 접근법이나 독립적 활동이 어렵고 생태계가 정체되는 문제를 초래함.

■ 평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혁신 필요

- 등단과 활동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평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문예지 외의 온라인 및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활동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지금 저한테는 문학잡지 편집위원 일을 맡고 있는 잡지가 한 5년 6년째 되는데, 그 안에서 문학의 제도—우리가 보통 문단이라고 부르는 시스템—내에서 뭔가 새롭게 바꿔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문예지 중심이다 보니까 활동 방식이 고정적이라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LA049)

"평론이 다른 분야랑 다르게 시나 소설처럼 자가 출판을 하거나 메일링을 한다거나 그런 식의 데뷔 방식은 거의 불가능한 편이에요. 그래서 신춘문예나 문학 잡지에서 하는 신인상을 통해서 등단하는 게 가장 보편적인 경로고요. 이게 활동 방식 자체를 상당히 제한하는 면이 있죠." (LA051)

"글을 쓰겠다는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국문과나 문창과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 국문과에서는 창작 커리큘럼이 거의 없고 비평이나 연구 위주로 짜여 있거든요. 그래서 비평적 글쓰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긴 하는데, 그만큼 제도적으로 정해진 루트에서만 활동이 가능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LA050)

"저도 문예지 평론 부문 신인상으로 등단을 했고요. 그런데 등단 이후에도 활동이 문예지 안에서만 이뤄지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기엔 제도적인 여유나 기회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LA050)

"문예지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 그동안 문학평론 생태계를 지탱해왔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 구조가 너무 정체돼 있고, 새로운 매체나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하다고 느껴요." (LA049)

4) 평론가 간 세대 격차와 소통의 단절

■ 선배와 신진 평론가 간 소통 부족과 단절 현상

- 평론계 내에서 선배와 후배 간의 교류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세대 간의 소통 부재 현상이 두드러짐. 이에 따라 평론 활동과 비평 담론의 연속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함

■ 세대 간 격차로 인한 비평 담론 발전 저해

- 선배 평론가들의 경험과 신진 평론가들의 새로운 시각이 충분히 교류되지 않아 비평 담론이 경직되고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남. 이는 평론 생태계 전반의 다양성과 활력 감소로 이어짐

■ 평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세대 간 교류 촉진 필요

- 평론 분야의 발전과 담론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이나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여 활발한 소통과 지식 전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저는 평론 활동한 지 얼마 안 돼서 다른 선배님들의 의견이 궁금하고요. [...] 평론을 쓰기 시작한 이후에도 선배 평론가분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흐름 안에 있다는 감각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낀 적도 있었고요." (LA051)

"평론가들은 그냥 이 비평계 안에서 어떤 소속감 같은 걸 잘 못 느끼고, 오히려 내가 대학원에서 연구하는 그 라인에서 조금 더 소속감이나 연대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 잡지 편집위원이 된다는 건 그런 면에서 정체성을 조금이나마 갖게 해주는 자리인 것 같긴 한데, 세대 간의 연결까지는 잘 안되는 것 같아요." (LA049)

"문학 출판의 편집자는 작가들과 소통하면서 원고를 잘 만들어내고 책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유튜버나 인플루언서처럼도 행동해야 한다는 기대가 생겨버렸죠. [...] 그러다 보면 후배나 신진 평론가들이 그런 역할 모델을 제대로 보기 어려운 환경이 된 것 같아요." (LA049)

5) 비평 콘텐츠의 제한적 확산

■ 문예지 중심 평론 게재로 인한 콘텐츠 확산 한계

- 문학 평론가의 글이 주로 문예지나 학술지 등 전통적 매체에 게재되어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매체로의 확산이 부족함. 이는 평론이 폭넓은 독자층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됨.

■ 온라인 매체 활용 부족과 평론 영향력 축소 문제

-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 등 새로운 매체 활용이 부족하여 문학평론의 사회적, 문화적 영향력이 제한되고 있음. 이는 평론이 대중적 소통을 이루지 못하고 소수 독자층에만 국한되는 현상을 초래함.

■ 다양한 매체 활용을 위한 지원과 정책 필요

- 평론의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매체, SNS 등을 활용한 평론 콘텐츠의 확산을 적극 지원하고 장려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요구됨.

"지금 우리가 평론을 하거나 비평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예전의 방식대로 하고 있는 건 있는 거죠. 예전에도 그렇게까지 평론이나 비평이 대단한 영향력이 있어서 뭘 했던 건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여전히 문예지 중심으로만 콘텐츠가 유통되다 보니까 다른 플랫폼으로 확산되기는 어려운 구조예요." (LA049)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위치에 평론가가 갈 수는 있지만, 그 위치가 평론가에게 실제로 돌아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문예지에 글을 싣는 방식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온라인 쪽으로의 확장이 필요한데 그런 기회 자체가 많지는 않거든요." (LA049)

"비평이라는 게 책이 나오면 그걸 저서로 인정해주는 건 있어도, 비평 하나하나가 어떤 공식적인 실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아요. [...] 이런 구조가 오히려 평론 콘텐츠가 확산되기보다는 문예지나 학술지 안에만 머무르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LA050)

"요즘에는 글로 쓰는 비평이 아니라, 말로 하는 행사에 참여해서 대중들과 호흡하는 방식이 자꾸 요구되죠. 그게 자발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그런 방식만이 살아남는 구조가 되어서, 기존의 평론 콘텐츠가 확장되기보다 점점 분산된다는 인상도 있어요." (LA049)

"유튜브나 다른 매체들을 활용해보자는 얘기도 있지만, 그런 데서 평론 콘텐츠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거의 없고, 지원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LA049)

6) 신진 평론가의 진입 장벽 문제

■ 전통적 제도의 강력한 작용으로 인한 신진 평론가의 진입 장벽

- 문학 평론계는 기존 문예지 중심의 제도가 강력히 유지되어 신진 평론가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는 신인 평론가들의 활동 기회를 제한하는 주요 원인임.

■ 높은 진입 장벽에 따른 평론계 다양성·활력 감소 문제

- 전통적인 등단 구조로 인해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신진 평론가들이 유입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평론계 전반의 다양성과 역동성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남.

■ 신진 평론가 진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 평론계의 침체를 극복하고 다양한 담론 생산을 위해 신진 평론가의 진입을 지원하는 멘토링, 신인 창작 지원금 등 정책적 지원책과 진입 구조 다양화가 요구됨.

"평론이 근데 다른 분야랑 좀 다르게, 시나 소설은 자가 출판을 한다거나 메일링을 한다거나 이런 다른 방식의 데뷔가 가능한 편인데, 평론은 그런 게 좀 더 어려운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문예지에서 하는 신인상을 통해 데뷔하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인 것 같고요." (LA051)

"문예지 평론 부문 신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도전을 하게 됐죠. [...] 비평가로 증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어쨌든 공식적인 루트로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 합류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등단을 선택했던 거예요. 다른 방식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하거든요." (LA050)

"이 제도라는 게 고정돼 있다 보니까,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어렵고요. [...] 지금도 비평가가 되는 경로는 거의 고정돼 있어서, 신진 평론가가 들어와서 다른 방식으로 활동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구조예요." (LA049)

"특히 평론이라는 장르가 대학원 교육과도 밀접하게 엮여 있어서, 학위나 소속이 없는 경우에는 활동 자체를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게 일종의 진입 장벽처럼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LA051)

"다양한 방식의 활동이 가능해야 새로운 사람도 들어오고 평론계가 좀 살아나는 건데, 지금은 기존의 공식 루트를 통하지 않으면 평론가로 인정받기 힘든 구조라서요. 이 부분은 꼭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LA050)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문학평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혁신과 공공지원 필요성

1) 경제적 안정성을 위한 지원 확대

■ 평론 활동 지속을 위한 경제적 기반 마련 필요

- 문학 평론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꾸준히 글쓰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생계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필수적임. 현재는 활동 지속 여부가 개인의 경제력에 좌우되고 있음.

■ 평론가 대상 창작 지원 및 고용 안정 대책 요구

- 정부 차원의 창작지원금, 평론 전담 레지던시, 연구비 지원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일정 기간 지속 가능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평론가 대상의 일자리 지원 정책이 요구됨.

■ 공공기관 중심의 평론가 활용 구조 마련 필요

- 문화예술기관, 도서관, 문학관 등에서 평론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공 프로젝트나 교육·연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고용 안정성과 사회적 역할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비평 활동 한국 문학에서의 한국 문학 평론가로서 이걸로만은 지속 가능한 어떤 생계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 결국 문학 연구를 지속하면서 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자리를 잡고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거죠." (LA049)

"저희가 어떤 정책적으로 평론가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창작 전에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이 나온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확산할 수 있는 구조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그런 사후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편이에요." (LA049)

"문화예술위원회나 기관들이 창작자 개인에게만 집중된 지원을 하지 말고, 그 이후 단계—그러니까 평론가가 쓴 글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 예를 들어 도서관, 문학관, 학교랑 연계된 프로젝트 같은 거요." (LA049)

"창작 지원금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안정적인 활동 기반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 일정 기간 평론가로 활동할 수 있는 고정된 구조나 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LA051)

2) 독자층 확대를 위한 콘텐츠 확산 지원

■ 문학평론의 대중적 접근성 확보 필요

- 문학평론은 여전히 한정된 매체와 독자층에 머물러 있어, 보다 넓은 독자와의 소통이 어려운 상황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유통 확대가 절실히 요구됨.

■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평론 콘텐츠 확산 전략

- 평론가의 글을 온라인 매체, SNS, 영상 콘텐츠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유통함으로써, 젊은 세대와 비전문 독자층까지 독서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음.

■ 플랫폼 기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 문학평론의 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평론의 사회적 영향력과 독자 접점을 동시에 확대할 수 있음.

"지금도 우리가 평론을 하거나 비평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예전의 방식대로 하고 있는 건 있는 거죠. [...] 그런데 여전히 문예지 중심으로만 콘텐츠가 유통되다 보니까, 다른 플랫폼으로 확산되기는 어려운 구조예요." (LA049)
"말로 하는 행사에 참여해서 대중들과 호흡하는 그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요구가 자꾸 오는 거잖아요. [...] 그런 활동들이 오히려 독자 접점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되고 있는 거죠." (LA049)

"유튜브나 다른 매체들도 활용해보자는 얘기는 있지만, 그런 데서 평론 콘텐츠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아직 거의 없어요. [...] 그런 부분은 제도적 장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LA049)

"예전보다 문예지 지면이 줄고, 글을 쓸 기회도 많이 제한되다 보니까 오히려 단행본 해설이나 행사 패널 같은 활동으로 비평을 대신하는 경향이 커졌어요. 그런데 이건 구조적으로 평론의 역할이 축소된 거지, 독자의 관심이 줄어서만은 아닌 것 같아요." (LA050)

"SNS나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면, 기존 문예지를 접하지 않았던 젊은 독자들과도 접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도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더 많은 실험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LA051)

3) 문예지 제도의 개혁과 다양성 확보

■ 문예지 중심 구조의 폐쇄성, 제도 개편 필요성 대두

- 현재 문예지는 등단과 활동의 중심 무대이지만, 운영 방식이 폐쇄적이고 보수적으로 유지되어 신진 평론가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신진 평론가의 참여 확대를 위한 문예지 운영 혁신 필요

- 문예지의 기획, 투고, 선정 방식 등에 있어 투명성과 개방성을 강화하고, 신인들에게 더 많은 발표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 개편이 요구됨.

■ 문예지 제도의 다변화와 공공적 지원 강화

- 문예지 중심의 생태계를 보다 유연하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평론이 실릴 수 있도록 공공 재정 지원과 제도적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함.

"문학잡지 편집위원으로서, 우리가 보통 문단이라고 부르는 이 시스템 내에서 뭔가 새롭게 바꿔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문예지 중심이다 보니까 활동 방식이 고정적이라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LA049)

"문예지 평론 부문 신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도전하게 됐죠. [...] 비평가로 증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어쨌든 공식적인 루트로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 합류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등단을 선택했던 거예요. 다른 방식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하거든요." (LA050)

"지금은 문예지 지면 자체도 줄어들고 있고, 편집 방향도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글을 투고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예전보다 훨씬 줄었어요. [...] 그런 부분이 신진 평론가들에겐 더 크게 장벽이 되는 것 같아요." (LA051)

"문예지 중심의 생태계를 유지하되, 거기에 더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가 실릴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주제나 형식 면에서도 좀 더 유연하고 열린 기획이 필요하다고 봐요." (LA050)

4) 평론가 간 소통 및 협력 촉진 프로그램 운영

■ 세대 간 교류 부재 해소를 위한 공공 개입 필요

- 신진 평론가와 기성 평론가 사이의 단절은 평론 생태계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됨.

■ 세대 간 소통 기반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 멘토링, 합동 평론 프로젝트, 세대 간 비평 세미나 등 교류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학습과 담론 교환의 장을 확대해야 함.

■ 공공 주도의 협력 플랫폼 구축과 지속적 지원 필요

- 문화예술기관이 중심이 되어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을 정기적이고 구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평론 생태계의 세대 연속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음.

"평론가들은 그냥 이 비평계 안에서 어떤 소속감 같은 걸 잘 못 느끼고, 오히려 내가 대학원에서 연구하는 그 라인에서 조금 더 소속감이나 연대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 잡지 편집위원이 된다는 건 그런 면에서 정체성을 조금이나마 갖게 해주는 자리인 것 같긴 한데, 세대 간의 연결까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LA049)

"지금은 각자 흩어져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세대 간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만한 구조도 부족하거든요. [...] 뭔가 함께 작업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정기적으로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LA051)

"평론이라는 건 결국 담론이 쌓여야 의미가 있는 작업인데, 지금은 그걸 축적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 어떤 주제에 대해 세대 간 관점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훨씬 더 역동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LA050)

"그런 게 기관 중심으로, 예를 들어 문학관이나 문화재단 같은 데서 정기적으로 운영된다면 신진 평론가 입장에서도 참여 동기가 생기고, 기성 평론가 입장에서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 같아요." (LA050)

5) 신진 평론가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도입

■ 신인상 중심 구조의 한계, 진입 경로 다양화 필요

- 현재 신진 평론가의 등단은 주로 신인상 수상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극소수에게만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로 진입 장벽이 높다는 한계를 가짐.

■ 멘토링·워크숍 등 비공식 진입 경로 확대 필요

- 평론가로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멘토링 제도, 집단 창작 워크숍, 합평회 등 실질적인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마련되어야 함.

■ 창작 지원금과 제도적 후속 지원 강화 필요

- 신진 평론가의 초기 창작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창작 지원금, 발표 기회 제공, 활동 기반 연계 등의 공공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평론은 조금 더 어려운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등단을 하지 않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 장르에 비해서는 되게 소수인 것 같고요. [...] 그래서 신춘문예나 문학 잡지에서 하는 신인상을 통해 데뷔하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인 것 같아요." (LA051)

"문예지 평론 부문 신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도전을 하게 됐죠. [...] 이 글이 공식적으로 인준받는 글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등단을 선택했던 거예요. 다른 방식은 거의 없어서요." (LA050)

"이 제도라는 게 고정돼 있다 보니까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어렵고요. [...] 신진 평론가가 다른 방식으로 활동을 시작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구조예요." (LA049)

"대학원 수업에서 평론 형식으로 과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그런 방식으로 글을 써보다가 투고를 하게 됐어요. [...] 그런 과정이 일종의 워크숍처럼 기능했던 것 같아요." (LA051)

"지금은 평론을 써서 발표할 기회도 적고, 발표해도 바로 이어지는 활동이 별로 없거든요. 발표 이후에 연결되는 후속 지원, 예를 들어 소규모 세미나라든가 공동 기획 같은 게 있다면 계속해서 글을 쓸 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LA050)

[그룹 2-2] 활동 조력자

1. [그룹 2-2] 참석자 명단

■ [그룹 2-2] 활동 조력자 그룹은 출판 편집자 및 전문가, 번역가, 기획자 등 12인으로 구성하였음

[표 2-9]참석자 명단 - [그룹 2-2] 활동 조력자

구분	참석자 구분	참석자 분류	참석자 코드	성별	연령대	경력
[그룹 2-2] 활동 조력자	연구협의체(n=3)	공공	LA-A	-	-	-
		공공	LA-B	-	-	-
		민간	LA-C	-	-	-
	참석자(n=3)	출판 편집자 및 전문가	LA052	남	40대	19년
		출판 편집자 및 전문가	LA053	여	40대	18년
		출판 편집자 및 전문가	LA054	남	60대	20년
		번역가	LA055	여	50대	25년
		번역가	LA056	남	30대	10년
		기획자	LA057	남	50대	20년
		기획자	LA058	남	30대	8년
		기획자	LA059	남	40대	21년
		기획자	LA060	여	40대	7년
		기획자	LA061	여	50대	11년
		기자	LA062	남	60대	30년
		기자	LA063	여	30대	6년

2. 주요 논의 사항

■ 문학 창작과 생계 기반
- 창작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레지던시, 보조금 외에 구조적인 생계 지원체계 요구됨.

■ 문학 유통 구조와 독립 서점 위기
- 대형 온라인 서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독립 서점, 지역 서점 등 다양성이 보장되는 유통 생태계 조성이 과제로 대두됨.

■ 문학과 마케팅, 브랜드 전략의 전환
- 전통적인 출판 마케팅에서 벗어나 브랜드 중심의 독자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강조됨. 출판사·작가의 기획력 강화 필요.

■ 문학의 해외 진출과 번역 생태계
- 번역자 매칭, 해외 출판사 연결 등 해외 진출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플랫폼 지원 필요. 개별 네트워크 의존도 낮춰야 함.

■ 문학 생태계 내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과 협력

- 다양한 중간 조직이 활동 중이나 유기적 협력 부족으로 인해 지원체계가 분절됨. 역할 재정립과 협업 구조 개선이 필요함.

■ 장르 경계 변화와 제도 미비

- 문학이 타 장르와 융합되는 현실에 비해, 제도와 지원체계는 여전히 장르 중심으로 고정되어 있어 유연한 전환이 요구됨.

3.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창작-유통 연계 강화를 위한 문학 생태계 구조 진단과 정책 과제"

1) 문학 생태계 내 다양한 중간 지원 조직의 실질적 역할 확장

■ 창작자와 출판사를 잇는 실질적 중개자로서의 기능 확대

- 기존의 중간 지원 조직은 단순한 지원금 집행이나 공모사업 운영에 머물렀으나, 최근에는 북 페스티벌 기획, 해외 진출 매칭, 출판 콘텐츠의 마케팅 등 실질적 실행 주체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소규모 출판사나 독립 작가의 경우 이러한 조직의 기획·홍보 역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창작과 유통을 잇는 플랫폼 기능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사업 기획 및 실행 역량 강화, 공공과 민간의 협업 필요

- 중간 지원 조직이 실제 현장을 연결하는 창구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획력과 실행력이 필수적임. 민간 출판사, 해외 문학 플랫폼, 번역자 커뮤니티 등과의 협업을 통해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조율 능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과 정책적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함. 단순 전달자에서 전략적 설계자로의 역할 전환이 필요함.

■ 작가 발굴과 콘텐츠 확산의 허브, 맞춤형 지원체계 필요

- 다수의 중간 지원 조직이 신진 작가 발굴, 번역 지원, 콘텐츠 마케팅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사업 간 중복과 분절적 접근이 문제로 지적됨. 창작자의 필요에 따라 기획-제작-유통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조직 간 정보 공유, 공동 기획, 사업 연계 등 생태계 중심의 설계가 요구됨.

"예전에는 지역 문화재단이나 공공기관이 그냥 행사 하나 열고 끝내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아예 출판사랑 같이 팀처럼 움직여요. 저희가 했던 사업 중에 번역 출판까지 같이 이어지는 사례도 있었고요. [...] 단순히 돈 주는 역할이 아니라, 기획부터 유통까지 같이 고민하는 파트너로 바뀌고 있다고 봐야 해요." (LA057)

"지금 활동하는 작가들 중에는 출판이나 유통 쪽을 거의 모르고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엔 저희 같은 중간 조직이 출판사 연결해주고, 마케팅도 같이 해줘야 하거든요. [...] 결국은 작가가 계속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핵심이죠." (LA058)

"저희는 소규모 출판사들과 협업할 때, 콘텐츠 기획뿐 아니라 행사도 같이 열고, 북트레일러 제작이나 SNS 홍보까지 다 연계해요.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걸 통해서 책이 유통까지 가게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죠." (LA059)

"지금은 플랫폼처럼 움직여야 해요. 하나의 기관이 모든 걸 다 하긴 어렵고, 번역자 커뮤니티나 해외 네트워크랑 연계해서 흐름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설계 자체가 좀 더 전략적으로 가야 한다고 봐요." (LA062)

2) 문학 유통 구조의 다변화와 마케팅 전략의 변화

■ 온라인 중심 유통 전환, 마케팅 전략의 디지털화 필요

- 전통적인 오프라인 서점 유통은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온라인 서점과 디지털 플랫폼 중심의 유통이 문학 시장의 주요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음. 특히 출판 마케터들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뉴스레터 등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콘텐츠 기반의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독자와의 지속적인 접점을 확보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짐.

■ 서점 MD와 협업 중심의 전략적 노출 구조 강화

- 온라인 서점 내에서의 도서 노출은 서점 MD와의 협업을 통해 기획전, 배너, 추천 도서 코너 등으로 구현되며, 이는 판매량에 직결되는 주요 요소로 작동함. 출판사 마케터는 서점의 큐레이션 전략을 이해하고, 도서별로 타깃 독자에 맞춘 제안서를 기획하는 역량이 요구됨. 오프라인 중심 영업에서 전략형 협업 마케팅으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음.

■ 디지털 매체 기반 브랜딩 강화, 독자 관여도 제고 필요

- 단순 광고를 넘어 작가와 책의 브랜드를 형성하고, 이를 독자와 공유하는 방식의 콘텐츠 마케팅이 주류로 부상하고 있음. 작가 인터뷰 영상, 북토크 클립, 메이킹 콘텐츠 등 디지털 기반의 브랜딩이 책에 대한 몰입과 독자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함. 출판사의 정체성과 콘텐츠 철학을 일관되게 전달하는 미디어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음.

"예전에는 그래도 좋은 책 내면 팔린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 공식이 지금도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책을 내도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 팔릴 수가 없고 [...] 점점 더 마케터의 업무 같은 것도 다양해지고 조금 더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LA059)

"지금은 온라인 서점에서 도서 노출은 MD와 협업이 거의 필수예요. 기획전이나 배너, 추천 도서 코너에 걸리느냐가 판매량에 큰 영향을 주니까, 출판사 내부에서도 MD 제안서를 잘 만드는 사람의 역량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LA059)

"콘텐츠 마케팅을 꾸준히 해나가는 작가나 출판사만 살아남는 구조가 된 것 같아요. 예전처럼 작가가 글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인터뷰든 영상이든 뭔가 계속 만들어내야 독자와 접점이 생기니까요." (LA055)

"요즘 작가님들이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북토크 후기나 책 작업 과정을 직접 올려요. 그게 출판사 마케팅보다 더 반응이 좋은 경우도 많고요." (LA060)

3) 작가의 역할 다변화와 직업 정체성 변화

■ 문학 작가의 복합적 역할 확대, 전방위적 역량 요구

- 문학 작가는 단순히 글을 쓰는 창작자에 그치지 않고, 강연자, 기획자, 인터뷰이, 콘텐츠 출연자 등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활동은 창작 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 선택이며, 그만큼 작가에게 요구되는 역량도 다층화되고 있음. 작가의 직업 정체성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한 시점임.

■ 창작 집중도 저하, 생계 중심의 활동 전환

-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문학 생태계에서 작가들은 교육, 출강, 문화행사 기획 등 비창작 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이로 인해 창작을 위한 몰입 시간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작품의 질과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음. 예술가로서의 정체성과 현실 생계 사이의 균형 문제가 심화 되고 있음.

■ 작가의 사회적 역할 증대, 공공의 인식과 제도 변화 필요

- 문학 작가는 단지 책을 쓰는 존재를 넘어 문화의 전달자, 공공의 해석자,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목소리로서 기능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비해 공적 지원은 여전히 텍스트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변화된 작가상에 걸맞은 정책적 인식과 제도적 설계가 시급함. 작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재조명이 필요함.

"요즘은 작가님들이 단순히 책만 쓰는 게 아니라 북토크, 강연, 행사 등 다양한 역할을 하게 돼요. 출판사가 무조건 한두 번 이상은 행사를 여는 게 기본처럼 되었고, 그걸 위해 마케터가 당번처럼 쳐내듯 준비해야 하니까 점점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에요." (LA059)

"창작 활동 말고도 기획이나 강연, 콘텐츠 출연 등 작가님들이 해야 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본업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 것 같아요. 생계를 위한 활동들이 창작 몰입을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분명 있어요." (LA055)

"행사에서 단순히 책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이야기도 던지게 돼요. 그런 걸 기대받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작가라는 정체성도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LA062)

"이제는 작가가 자기 PR도 해야 하고, 플랫폼마다 소통 방식도 다르니까 글쓰기 외의 역량이 점점 더 요구돼요. 그게 오히려 창작보다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LA056)

나. 생태계 이슈

"창작자·중간조직·유통의 연결을 위한 문학 생태계 재구성 방안

1) 문학 작가와 독자 간 소통 채널 부족

■ 작가 개인의 디지털 역량 의존, 소통 불균형 심화

- 독자와의 접점이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옮겨갔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작가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음. SNS나 유튜브 등의 채널을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작가는 주목받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콘텐츠 확산이 극히 제한됨. 디지털 소통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지만, 이를 보완할 공공 지원은 미비함.

■ 독자 커뮤니티 기반 취약, 장기적 독자층 확보 어려움

- 독자가 자발적으로 문학 콘텐츠를 소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독자 플랫폼이 부족함. 이는 작가와의 지속적 관계 형성을 어렵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특정 작품이나 출판사의 생명력을 단기화시킴. 독서모임, 리뷰 플랫폼, 작가-독자 간 상호작용을 장려하는 구조 마련이 필요함.

■ 문학 콘텐츠의 확산 경로 단순화, 다층적 전략 부재

- 문학 콘텐츠는 영상, 오디오, 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전환될 수 있음에도, 기존 텍스트 중심 유통 외에는 전략적 활용이 부족함. 작가가 이를 직접 제작하거나 외주를 맡기기엔 한계가 있으며, 콘텐츠 전환과 유통을 지원하는 중간조직 또는 협력 구조가 필요함. 디지털 환경에 맞는 복합적 확산 전략이 요구됨.

"SNS에서 모든 게 일어나요. 단순 카드뉴스나 댓글 이벤트뿐 아니라, 작가님들이 개인 SNS 계정을 통해 본인의 책을 홍보해주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 결국 디지털 소통 능력은 작가 개인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는 셈이죠." (LA059)

"작가와 독자가 꾸준히 만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아직 부족한 편이에요. 독자 리뷰나 자발적 확산이 일어나려면, 단발성 행사 외에도 상시적인 플랫폼이나 접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LA059)

"요즘은 리뷰를 남기기보다 그냥 좋아요 누르고 넘기잖아요. 진짜 책을 읽고 피드백을 주는 커뮤니티는 드물어요. 그런 게 있어야 작가들도 독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텐데요." (LA061)

"소통이라고 하면 다 SNS 얘기하는데, 그게 익숙하지 않은 세대 작가들도 많거든요. 결국 그런 분들은 독자한테 닿을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LA053)

2) 문학 유통의 불균형 구조와 독립 서점의 생존 문제

■ 대형 온라인 서점 중심 유통 고착, 진입 장벽 심화

- 현재 문학 유통은 예스24, 알라딘 등 대형 온라인 서점 중심으로 고착되어 있으며, 이들 플랫폼 내 노출 경쟁이 매우 치열함. 독립출판물이나 신진 작가의 작품은 주요 노출 지면에 접근하기 어려워 독자 도달률이 낮음. 문학 콘텐츠의 유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조정이 필요한 시점임.

■ 독립 서점의 운영 위기, 지역 기반 문화 확산에 한계

- 독립 서점은 단순 판매 공간이 아닌 지역 커뮤니티의 문화 중심지로 기능했었으나, 유통 마진과 물류 시스템에서 불리한 구조로 인해 운영 지속이 어려운 상황임. 공공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출판사 등과의 협력 구조를 통해 지역 기반 유통망의 회복이 필요함.

■ 유통의 다양성과 생태계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재설계 필요

- 유통 경로가 온라인 중심으로 단순화되면서 문학 생태계 전반의 다양성이 위축되고 있음. 중소 출판사, 독립 서점, 창작자 간 연대와 상호 거래가 가능한 새로운 유통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며, 단순 판매를 넘어 독자 경험 중심의 생태계 설계가 중요해지고 있음.

"○○○이 문학에 굉장히 큰 강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배들이랑 ○○, ○○, ○○○ 이렇게 담당이 나눠졌고, 내부에서도 온라인 중심의 영업 비중이 점점 커졌어요. 결국은 온라인 서점에서 노출이 핵심이니까, 경쟁도 그만큼 치열해진 거죠." (LA059)

서울 외 지역에서는 독립서점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어요.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문화를 나누는 공간인데도 유지가 안 돼요. 지역 기반 유통망이 진짜 무너지고 있어요." (LA060)

"○○○에서는 독립 출판물만 6천 권 정도 갖고 있어요. 매분기마다 신간을 사들이고, 작가를 초청해서 행사를 열죠. 이런 롱테일 출판물도 유통되려면 공공 차원의 생태계 설계가 꼭 필요해요." (LA059)

"작은 출판사 책은 유통망에 잘 안 잡히다 보니, 독자도 존재를 몰라요. 마케팅 이전에 책이 보일 기회부터 필요한데요." (LA058)

3) 번역과 해외 진출을 위한 체계적 지원의 부재

■ 번역자 인력풀 부족, 비공식 네트워크 의존도 심화

-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우수한 번역자 확보가 핵심이나, 공식적인 매칭 시스템이 부재해 개인적 인맥이나 사적인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로 인해 특정 언어권, 특정 작가에만 기회가 집중되며, 다양한 콘텐츠의 해외 진출 가능성이 제한되고 있음. 번역자 DB 구축과 공식 중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함.

■ 해외 출판사와의 연계 미비, 계약·유통 과정의 어려움

- 국내 작가나 출판사가 직접 해외 출판사와 접촉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높은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작업임. 언어, 법률, 계약 구조, 로열티 문제 등 실무적 장벽이 커 개별 추진이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구조가 되지 못함. 이에 대한 공공 차원의 중개 및 컨설팅 지원 체계가 필요함.

■ 공공기관의 단발성 지원 한계, 지속 가능한 플랫폼 부재

- 현재 존재하는 해외 진출 관련 지원은 대부분 단발성 공모나 번역 지원금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장기적 전략이나 단계별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움. 번역-출간-유통까지 연계된 통합 플랫폼이 부재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투자와 협력 구조 마련이 요구됨. 전 주기적 지원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함.

"해외 진출은 하고 싶은데, 저희가 직접 외국 출판사랑 연결하고 계약까지 추진하는 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죠. 언어 문제도 있고, 계약 구조나 로열티 같은 건 잘 알기 어렵고요. 중간에 도와줄 만한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LA059)

"번역은 진짜 인맥으로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누구랑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식인데, 그러다 보니 늘 특정 작가나 특정 언어권 위주로만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LA059)

"작품 번역을 제안받은 적 있는데, 계약 조건이나 과정이 너무 불투명했어요. 공공이 개입해서 중개나 검토를 해주는 게 없으니, 다 개인 책임이에요." (LA057)

"해외 출판사에 연결될 수 있는 번역자 리스트나 중개 조직이 있다면, 훨씬 시도해보기 수월할 것 같아요." (LA056)

4) 문학 분야 창작자의 불안정한 생계 기반

■ 비정기 수입 구조, 창작 몰입 환경 조성에 한계

- 대부분의 문학 작가는 출판 인세, 원고료, 강연 등 비정기적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창작에만 전념하기 어려운 구조임. 생활비 마련을 위한 병행 활동이 창작 몰입도를 저하시켜 작품 완성도에도 영향을 미침.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본소득 또는 안정적 지원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단기 사업 중심 지원 구조, 창작 지속성 보장 어려움

- 현재 지원체계는 공모, 레지던시 등 단기·단발성 사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기적인 창작 활동을 계획하거나 경력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창작자 개인의 삶과 작업을 포괄하는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 설계가 요구됨.

■ 창작자별 특성 고려한 맞춤형 지원 모델 필요

- 작가마다 활동 유형과 수입 구조, 창작 주기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지원 방식이 적용되고 있음. 창작자 개별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모델과 상담·경력 관리 체계 등이 병행되어야 하며, 생활 안정과 창작 환경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 필요함.

"원래는 소설을 썼었죠. 소설이 잘 안 돼서 그냥 생계 정도만 도움이 되는 아르바이트처럼 출판사 일을 시작했는데, 그게 정규직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창작은 중단됐고, 지금은 본업이 달라졌죠." (LA059)

"지원사업이 대부분 공모 위주라서 장기적으로 작품을 계획하거나 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리긴 어려워요. 단발성 지원으로는 창작 지속성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LA059)

"레지던시나 지원사업이 있어도 생활비랑 별개로 책정되니까 실제론 다른 일도 병행해야 해요. 그런 구조에선 온전히 집중하기가 어렵죠." (LA063)

"창작 주기가 긴 작가일수록 더 어려워요. 몇 년 단위로 작업하는 경우엔, 매년 공모에 지원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무리예요." (LA056)

5) 중간 지원 조직 간의 협력 부족과 분절된 지원체계

■ 중간 지원 조직 간 중복 사업 발생, 자원 분산과 비효율 유발

- 유사한 목적을 가진 여러 조직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작가나 출판사 입장에서는 유사한 지원 사업이 중복되거나 경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발생함. 이는 한정된 예산과 자원의 분산을 초래하고, 정책 효과성도 떨어뜨림. 조직 간 연계 및 협업 기반 마련이 필수적임.

■ 체계적 역할 분담 미비, 작가 혼란과 정보 접근성 저하

- 각 조직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작가들은 어떤 기관의 어떤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임. 지원 시기나 대상 기준도 상이해 정보 접근성과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음. 체계적인 가이드라인과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협업 기반 생태계 설계 필요, 단절된 구조 개선 시급

- 현재 중간 지원 조직 간의 사업 연계나 공동 기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생태계 전반의 흐름 단절로 이어짐. 창작-유통-확산 단계를 연계할 수 있는 공동 플랫폼, 거버넌스 구조 구축이 시급하며, 조직 간 정보 공유와 분업 체계 확립이 필요함.

"여러 기관에서 중복된 사업을 비슷한 시기에 공모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작가 입장에서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할지 혼란스럽고, 비슷한 사업이 경쟁적으로 운영되는 게 비효율적이에요." (LA059)

"지금 국내 북페스티벌은 제가 경험하면서 유기적이지 못해요. 출판사, 공공기관, 운영위 다 각자 방향으로 가다 보니 연계나 협업이 전혀 없어요." (LA059)

"기관마다 신청 기준이 달라서 계획 짜기가 너무 힘들어요. 정보를 한데 모아서 정리해주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자주 해요." (LA055)

"행사성 지원만 쌓여 있고, 정작 장기적인 연계 사업은 없어요. 생태계라고 부르기 어려운 수준이죠." (LA057)

6) 장르 간 경계 모호화에 따른 정체성 혼란

■ 문학과 타 장르의 경계 해체, 창작 형태의 다양화

- 최근 문학은 공연, 시각예술, 디지털 콘텐츠 등 다양한 장르와 융합되며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음. 영상시, 오디오북, 웹 기반 에세이, 퍼포먼스형 문학 등 복합 창작이 활발하지만, 기존 제도는 이 흐름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 새로운 형태의 창작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나타남.

■ 경직된 지원체계, 융복합 창작자 대상 제도 부재

- 문학 지원사업 대부분이 전통적인 '텍스트 중심 창작물'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융복합 작업을 시도하는 작가들은 심사 기준에서 배제되거나 지원 신청조차 어려움. 매체 간 경계를 넘나드는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연한 기준과 범주가 필요함.

■ 창작자 유형 변화에 따른 제도 혁신 요구

- 오늘날 작가는 글쓰기 외에도 연출, 영상 편집, 기획 등 다양한 기술과 역할을 병행하는 '융합형 창작자'로 진화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체계는 여전히 장르별로 분절돼 있어 이들의 정체성과 활동 방식에 맞는 제도 설계가 시급함. 창작자의 실제 활동 양상을 반영한 정책적 유연성이 요구됨.

"요즘은 책이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영상이나 공연, 심지어 팝업 형태로도 변주되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융합 콘텐츠는 기존 문학 지원 제도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아요. 여전히 텍스트 중심이라서." (LA059)

"책을 만든다고 하면, 단순히 원고를 쓰는 게 아니라 영상 기획, 퍼포먼스 구상까지 같이 해야 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심사는 여전히 글 중심이라 다 장르를 넘나드는 작업은 불리해요." (LA059)

"요즘 작가들 보면 글만 쓰는 게 아니라 전시도 하고 영상도 만들고 공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문학 지원 사업에서는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LA056)

"제가 했던 작업은 낭독 퍼포먼스나 음향 중심 문학인데, 그걸 어디다 지원해야 할지 애매하더라고요. 분명 문학인데 음악도 들어가고 공연 요소도 있으니까." (LA052)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문학 생태계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공공지원 체계의 재정비 방안

1) 문학 유통 생태계 전반에 대한 공공의 전략적 개입 필요

■ 지원금 중심 한계 극복, 유통·마케팅 구조 설계자로서의 공공 역할 요구

- 현재 공공의 문학 지원은 대부분 창작자 중심의 직접지원 또는 행사성 사업에 집중되어 있음. 그러나 콘텐츠가 유통되지 않으면 창작물의 사회적 가치는 확산되기 어려움. 유통과 마케팅을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조정하는 정책 주체로서 공공의 역할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온·오프라인 유통망 연계, 구조적 재설계 필요

- 온라인 서점, 독립 서점, 출판사 간 유통 구조는 현재 단절적이고 경쟁적인 형태로 존재함. 공공은 이들을 상호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플랫폼 기반의 공동 마케팅, 공공 입점 기획전, 로컬 연계 유통망 등을 설계함으로써 보다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음.

■ 시장 논리로부터 배제된 콘텐츠의 유통 활성화 필요

- 대형 플랫폼 중심의 시장 구조는 판매 가능성과 확장성 중심으로 콘텐츠를 필터링하고 있어, 실험적이거나 다양성 높은 문학 작품은 유통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음. 공공은 이러한 비가시화된 콘텐츠를 발굴·유통할 수 있도록 공공적 기준을 반영한 유통 시스템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문학 지원사업 대부분이 창작 중심이라 유통은 늘 뒷전이에요. 콘텐츠가 아무리 좋아도 유통이 안 되면 독자한테 닿을 수 없거든요. 공공이 이 부분까지 설계해 줘야 해요." (LA059)

"저희 ○○○는 북클럽, 자체 플랫폼, 동네 서점과의 직거래 등 다양하게 시도해요. 이런 유통 구조를 혼자 하긴 어렵고, 공공이 구조를 잡아주면 지속성 있는 생태계가 될 수 있어요." (LA059)

"○○○에는 독립 출판물이 6천 권 정도 있어요. 롱테일 콘텐츠가 유통되려면 시장 논리로는 한계가 있어서, 공공이 그걸 다리 놓아주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LA059)

"지역 기반 서점이나 작은 출판사는 마케팅 인프라가 부족해요. 공공이 공동 기획전이나 입점 연계 같은 허브 역할을 해준다면 접근성이 확 올라갈 거예요." (LA060)

2) 전문가 네트워크 기반의 번역·해외 진출 매칭 플랫폼 구축

■ 비공식 네트워크 중심 구조, 접근성 격차 심화

- : 현재 문학 해외 진출은 개인 네트워크나 민간 번역자 커뮤니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신진 작가나 중소 출판사는 이 네트워크에 접근조차 어려움. 이로 인해 특정 집단만 반복적으로 기회를 얻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공공이 개입한 공식 플랫폼을 통해 접근성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매칭 중심 플랫폼 부재, 번역-출판 간 연결 단절

- 작가와 번역자, 해외 출판사 간의 연결을 주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며, 번역 수요와 공급이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음. 언어권별 번역자 정보, 번역 경험, 관심 분야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매칭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신뢰도 높은 연결 구조를 만들어야 함.

■ 중재자 역할의 전문 기관 필요, 계약·유통까지 지원

- 번역이 단순 언어 변환을 넘어 창작의 확장인 만큼, 해당 과정에는 법률, 문화 차이, 계약 이슈 등 복합적 요소가 얽혀 있음.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전문 중재자 또는 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며, 번역 이후 출간 및 유통까지 이어질 수 있는 통합적 경로 설계가 필요함.

"해외 진출은 하고 싶은데, 저희가 직접 외국 출판사랑 연결하고 계약까지 추진하는 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죠. 언어 문제도 있고, 계약 구조나 로열티 같은 건 잘 알기 어렵고요. 중간에 도와줄 만한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LA059)

"번역은 진짜 인맥으로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누구랑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식인데, 그러다 보니 늘 특정 작가나 특정 언어권 위주로만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LA059)

"작품 번역을 제안받은 적 있는데, 계약 조건이나 과정이 너무 불투명했어요. 공공이 개입해서 중개나 검토를 해주는 게 없으니, 다 개인 책임이에요." (LA057)

"해외 출판사에 연결될 수 있는 번역자 리스트나 중개 조직이 있다면, 훨씬 시도해보기 수월할 것 같아요." (LA056)

3) 문학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지원 로드맵 수립

■ 단기성 공모 위주 지원 한계, 장기 전략 설계 필요

- 현재 문학 분야 지원은 대부분 단발성 공모나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작가의 지속적인 창작 활동이나 경력 발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창작-출간-유통-확산까지 이어지는 생애 주기를 고려한 중장기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예술 생태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함.

■ 신진 창작자 대상 단계별 성장 지원 체계 구축 필요

- 특히 청년 창작자, 신인 작가, 신진 번역가는 초기 진입 장벽이 높고, 생존 기반이 취약해 중도 이탈이 빈번함. 이들을 위한 등단 이후의 후속 창작 지원, 중견 작가로의 전환을 위한 경력 관리, 네트워크 형성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단기 자원 분배를 넘어 구조적 육성 정책이 요구됨.

■ 창작과 유통을 잇는 통합 기반 조성 필요

- 문학 지원이 창작 단계에만 머무를 경우, 우수한 콘텐츠가 실제로 유통되고 독자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됨. 창작 이후 편집, 마케팅,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적 흐름을 공공이 설계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민관 협력 플랫폼 구축과 유연한 지원 설계가 요구됨.

"지원사업이 대부분 공모 위주라서 장기적으로 작품을 계획하거나 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리긴 어려워요. 단발성 지원으로는 창작 지속성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LA059)

"창작 주기가 긴 작가일수록 더 어려워요. 몇 년 단위로 작업하는 경우엔, 매년 공모에 지원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무리예요." (LA056)

"신인 작가가 등단 이후에 뭘 할 수 있는지가 제일 막막하다고들 해요. 네트워크도 없고, 출판 경험도 없으니까 단기성 지원 외에 단계별 경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LA063)

"책이 잘 만들어져도 유통이나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부족하면 독자에게 닿기 힘들어요. 그 이후 흐름까지 포함된 전 주기적인 설계가 있어야 하죠." (LA060)

4) 창작 외 활동을 고려한 복합형 예술인 지원 제도 마련

■ 작가의 복합적 생계 구조 반영한 제도 설계 필요

- 문학 작가 다수는 창작 외에도 강의, 기획, 자문, 콘텐츠 출연 등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원 제도는 창작 실적 위주로 설계돼 있어 이와 같은 복합적 활동을 공식적인 예술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창작 외 활동을 제도적으로 포괄하는 정책 전환이 요구됨.

■ 경력 관리 공백,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 마련 필요

- 작가의 다양한 활동은 기록되지 않거나 비공식적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 경력 단절이나 인정 불가 상황이 빈번함. 작가 개인의 창작 이력뿐 아니라 교육, 기획, 협업 등 다양한 실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공 경력 관리 시스템이 필요함. 이는 재신청, 평가 등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음.

■ 예술인 복합 직업성 반영한 맞춤형 정책 필요

- 오늘날 문학 작가는 단일한 창작자가 아니라 콘텐츠 생산자이자 교육자, 문화기획자 등 복합적인 직업 정체성을 갖고 있음. 이를 반영한 복수 직군 기반의 예술인 등록 제도, 소득 구조 기반 맞춤형 지원 모델이 요구되며, 일과 창작을 병행하는 작가의 현실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보완해야 함.

"작가님들이 책만 쓰는 게 아니라 강의, 행사, 콘텐츠 출연 같은 걸 병행하잖아요. 근데 이런 활동이 공식적으로 예술 활동으로 인정받진 못해요. 지원 받을 때는 항상 창작 실적만 보거든요." (LA059)

"문학 작가의 활동은 되게 다양해요. 협업 기획, 문화 프로그램 진행 등도 많은데, 이런 건 경력으로 남지 않으니까 지원받을 때마다 처음부터 설명해야 하더라고요." (LA058)

"복수 직업을 가진 예술인이라는 인식이 제도 안에 잘 안 잡혀 있어요. 교육자이기도 하고, 콘텐츠 창작자이기도 한데, 대부분은 여전히 글 쓰는 사람으로만 분류되니까요." (LA063)

"문학 작가도 기획자나 문화활동가로 많이 활동하는데, 공공 시스템에서 그런 건 비공식 이력으로 취급돼요. 일하는 방식은 바뀌었는데 제도는 그대로인 거죠." (LA052)

Ⅲ. 분배

1. 그룹 구성

■ 문학 분야 Ⅲ. 분배 단계에서는 유통·홍보 마케팅 서비스 지원 주체에 대해 의견 수렴을 진행함

■ 인터뷰는 총 12회로 진행되었으며, 16명이 참석하였음

[표 2-10] 그룹 구성 - Ⅲ. 분배

그룹	연번	날짜	장소	참석자
[그룹3] 유통·홍보 마케팅 서비스 지원 주체	1	2024-10-30	패스트파이브 용산점 23C	LA064
	2	2024-11-21	패스트파이브 용산점 23D	LA065
	3	2024-12-17	파주 문학동네 사옥	LA066, LA067
	4	2024-11-26	패스트파이브 용산점 23D	LA068, LA069, LA070
	5	2024-12-19	패스트파이브 용산점 23C	LA071, LA072
	6	2024-09-23	패스트파이브 홍대3호점 5B	LA073
	7	2024-10-17	패스트파이브 용산점 23A	LA074
	8	2024-10-24	패스트파이브 홍대3호점 5A	LA075
	9	2024-10-30	패스트파이브 용산점 23A	LA076
	10	2025-01-17	블러썸 스튜디오	LA077
	11	2025-01-20	카카오 판교아지트	LA078
	12	2024-10-29	패스트파이브 용산점 23C	LA079

[그룹 3] 유통·홍보 마케팅 서비스 지원 주체

1. [그룹 3] 참석자 명단

■ [그룹 3] 유통·홍보 마케팅 서비스 지원 주체에서는 출판사 마케터, 서점 종사자, 도서관 사서, 문학분야 에이전시, 온라인 유통 플랫폼, 온/오프라인 북클럽 관계자 등 참석자 16인으로 구성하였음

[표 2-11] 참석자 명단 - [그룹 3] 유통·홍보 마케팅 서비스 지원 주체

구분	참석자 구분	참석자 분류	참석자 코드	성별	연령대	경력
[그룹3] 유통·홍보 마케팅 서비스 지원 주체	연구협의체(n=3)	공공	LA-A	-	-	-
		공공	LA-B	-	-	-
		민간	LA-C	-	-	-
	참석자(n=16)	출판사 마케터	LA064	여	30대	15년
		출판사 마케터(MD)	LA065	남	40대	15년
		출판사 마케터(수출)	LA066	여	40대	21년
		출판사 마케터(수출)	LA067	여	30대	5년
		서점(협회)	LA068	여	40대	7년
		서점(독립)	LA069	남	40대	13년
		서점(독립)	LA070	여	40대	10년
		도서관 사서	LA071	여	30대	5년
		도서관 사서	LA072	남	30대	7년
		문학분야 에이전시	LA073	여	40대	20년
		문학분야 에이전시	LA074	여	40대	18년
		문학분야 에이전시	LA075	남	50대	29년
		문학분야 에이전시	LA076	남	50대	24년
		문학분야 에이전시	LA077	여	50대	10년
		온라인 유통 플랫폼	LA078	남	40대	15년
		온/오프 북클럽	LA079	여	40대	3년

2. 주요 논의 사항

■ 문학 유통 구조의 변화와 디지털 전환

- 전자책,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 유통의 확산과 이에 따른 창작자·출판사의 대응 과제

■ 전문 인력 부족과 마케팅 체계 미비

- 유통·홍보를 전담할 전문 인력의 부재와 단발성 중심 홍보 방식의 한계

■ 플랫폼 중심 구조와 정보 비대칭 문제

- 대형 플랫폼 집중 현상과 그로 인한 창작자 소외, 소비자 데이터 접근 제한

■ 문학 소비 환경 변화와 독자 접점 약화

- SNS, 영상 중심 콘텐츠 환경 변화에 비해 문학 콘텐츠가 뒤처지는 현실

■ 공공지원의 단편성과 유통 기반 부재

- 공공 유통 정책의 단기성, 민간 중심 구조의 부담, 공공 유통망 필요성 제기

■ 지역·독립 문학의 유통 사각지대 문제

- 수도권 편중 유통 구조 속에서 지역 콘텐츠와 독립출판물이 배제되는 구조적 문제

■ 유통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필요

- 중소 출판사 및 작가 대상의 실무 중심 유통·홍보 교육 및 지원 요구

3.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문학 유통 생태계의 현주소와 과제

1) 디지털 전환에 따른 유통 경로의 다변화

■ 디지털 콘텐츠 유통 환경 확산, 전통 서점 중심 구조 약화

- 전자책, 오디오북, 콘텐츠 구독 플랫폼 등 디지털 기반 문학 유통 경로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존의 오프라인 서점 중심 구조는 점차 약화되고 있음. 독자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문학 콘텐츠를 소비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출판사나 작가에게 유통 전략의 전환을 요구함. 전통적 유통망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는 새로운 독자층과의 접점 확보가 어려운 현실임.

■ 플랫폼 중심 유통 재편, 창작자 전략 변화 요구

- 문학 유통 구조가 대형 온라인 서점, 구독 플랫폼 등 소수의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 이러한 환경에서는 플랫폼에 최적화된 형식과 리듬을 고려한 콘텐츠 전략이 요구되며, 작가와 출판사 모두 변화된 생태계에 맞춘 접근이 필요함. 콘텐츠의 유통과 노출이 알고리즘과 추천 시스템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창작자 또한 플랫폼 이해와 대응 역량을 갖춰야 함.

■ 데이터 기반 마케팅 부상, 유통 방식의 재정립 필요

- 디지털 플랫폼은 소비자의 반응과 구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함. 이에 따라 데이터 기반의 콘텐츠 기획과 마케팅 전략이 문학 유통의 주요 요소로 부상하고 있음. 출판사와 작가는 기존의 감각 위주 유통에서 벗어나 정량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획·홍보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유통 패러다임에 맞는 구조적 전환이 요구됨.

"요즘은 독자들이 처음부터 책을 사서 읽기보다는 유튜브에서 저자 인터뷰를 보거나, 인스타그램에서 책 속 문장을 접한 뒤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이처럼 콘텐츠의 유통 경로가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데, 기존처럼 서점에만 책을 깔아두는 방식으로는 도달이 어려운 시대가 된 거죠." (LA066)

"디지털 기반 플랫폼들이 확산되면서 출판계 전반이 유통 전략을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책을 내는 걸 넘어서, 그 콘텐츠가 어떻게 소비될지, 어느 플랫폼에서 어떤 방식으로 노출될지를 함께 고민해야 해요. 알고리즘 기반 추천이 중요한 환경이니까요." (LA065)

"오디오북, 전자책 같은 디지털 포맷이 확산되면서, 작가들도 처음부터 '이걸 오디오로 들었을 때 어떻게 들릴까?'를 생각하며 글을 쓰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단순히 책의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플랫폼의 문법을 고민하는 단계에 온 거죠." (LA079)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의 반응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감으로 마케팅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봐요. 어떤 표지가 클릭을 많이 유도하는지, 어느 시간대에 노출하면 반응이 오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전략을 세워야 하거든요." (LA077)

"요즘 책은 콘텐츠라기보다 상품에 가까운 취급을 받기도 해요. 플랫폼이 점점 강력해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콘텐츠를 잘 만드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유통과 마케팅까지 통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느껴요." (LA076)

2) 전문 유통·홍보 인력 부재와 체계 미비

■ 문학 유통·홍보 전담 인력의 절대적 부족

- 문학 분야에서 유통과 홍보를 전담하는 인력은 매우 드문 실정이며, 다수의 출판사에서는 편집자나 대표가 이를 병행하고 있음.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부재하다 보니 마케팅 전략 수립이나 소비자 분석 같은 핵심 업무가 소홀해지고 있음. 유통 구조가 복잡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단일 인력이 여러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성이 낮고 효율적인 전략 수립에 한계가 있음.

■ 마케팅 및 홍보 전문성 결여로 전략 부재

- 전문 유통·홍보 인력의 부재는 체계적인 마케팅 기획의 부재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문학 콘텐츠의 확산과 소비자 도달률을 저하시킴. 소비자 분석, 타깃 설정, 효과적인 매체 활용 등 마케팅의 핵심 요소들이 경험과 감각에 의존하게 되며, 장기적인 성장 전략보다는 단기 대응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음. 이는 문학 산업의 확장성과 연결성에 제약을 주고 있음.

■ 인력 양성 시스템 및 고용 환경 미비

- 유통·홍보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거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함. 관련 직무에 대한 교육 기회나 훈련 프로그램이 미흡하며, 출판업계 내 고용 조건 역시 불안정한 경우가 많음. 예산 부족, 단기 계약 중심 구조 등은 전문 인력 유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 지원과 교육 연계 모델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대부분의 작은 출판사에서는 편집자가 홍보도 하고, 유통도 직접 챙겨야 해요. 심지어 SNS 홍보물도 본인이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니까, 전문적인 전략을 세운다기보다는 그냥 손이 닿는 데까지 해보는 수준이죠." (LA073)

"문학 분야에는 콘텐츠를 어떻게 팔아야 할지 전문적으로 고민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유통도, 홍보도 결국 출판사의 대표나 편집자가 감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해서는 확장성 있는 전략을 세우기 어려워요." (LA074)

"출판 현장에서 체계적인 마케팅 교육을 받은 인력을 찾기 어려워요. 대부분 실무에서 부딪히면서 감으로 배우는 식인데, 이러다 보니 플랫폼이 바뀌거나 시장이 빠르게 변할 때 대응이 쉽지 않죠." (LA071)

"전문 유통 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계약직으로 쓰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좋은 인력은 다른 산업으로 빠져나가요. 지속 가능하게 이 일을 하려면 인력 구조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LA072)

"출판사는 기본적으로 영세한 구조이다 보니, 홍보나 마케팅은 가장 나중 순위로 밀려요. 전문 인력이 있어야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되면 하고, 안 되면 말자는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LA069)

3) 플랫폼 중심 구조의 편중과 독립 유통의 한계

■ 플랫폼 중심 유통 구조의 집중 심화

- 문학 콘텐츠 유통이 대형 온라인 서점, 구독형 플랫폼 등 일부 민간 플랫폼에 집중되고 있음. 이로 인해 시장 접근성이 이들 플랫폼에 종속되고 있으며, 유통 주체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콘텐츠 노출의 기회가 플랫폼 알고리즘과 상업적 기준에 좌우되기 때문에, 다양하고 실험적인 콘텐츠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 독립출판물의 유통 접근성 저하

- 중소 출판사와 독립출판물은 플랫폼의 진입 조건, 수수료 부담, 홍보 역량 부족 등의 이유로 유통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음. 플랫폼 내에서의 노출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출판물은 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는 문학 생태계의 다양성을 위협하며, 독립 문학의 생존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함.

■ 대안 유통 채널 및 공공 기반 유통망 필요

- 현행 유통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플랫폼 외 유통 경로의 확장이 필요함. 지역 서점 네트워크, 독립 서점 연합, 도서관 연계 판매망 등 공공 또는 비영리 기반 유통 채널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요구됨. 공공 유통망을 통해 문학 콘텐츠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구조적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요즘 유통은 대부분 대형 플랫폼에서 결정돼요. 무슨 책을 띄울지, 어떤 책을 추천할지 다 알고리즘이 정하니까 작은 출판사 책은 노출되기도 어려워요. 플랫폼 밖에서 뭔가 해보려고 해도 마땅한 채널이 없는 게 현실이죠." (LA078)

"우리가 독립 출판한 책을 유통하려고 해도 수수료가 너무 높고, 초기 진입 장벽이 커서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브랜드 인지도도 약하니까, 검색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이래선 아무리 좋은 책을 만들어도 독자에게 닿기 어려워요." (LA070)

"큰 플랫폼은 효율성과 매출을 우선시하니까, 실험적이거나 비주류 성격의 콘텐츠는 거의 진입이 어렵다고 보면 돼요. 문학 생태계의 다양성을 지키려면, 이런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다른 유통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LA065)

"지역 서점이나 독립 서점 같은 곳을 묶어서 유통할 수 있는 공공 기반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플랫폼 중심이면 결국 비슷한 책만 반복되고, 다양한 콘텐츠는 점점 설 자리를 잃거든요." (LA076)

"사실 플랫폼을 통하지 않으면 유통이 어렵고, 플랫폼을 통하면 수익이 남질 않아요.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 대안이 없다면, 독립 문학은 계속 주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LA079)

4) 유통 주체와 창작자 간 역할 구조의 불균형

■ 플랫폼 및 유통 주체의 영향력 확대

- 문학 유통 구조에서 플랫폼과 유통사의 권한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이들이 콘텐츠의 기획, 배포, 홍보 전반을 주도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는 유통 주체의 이해관계와 운영 방식에 따라 콘텐츠의 노출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을 초래하며, 작가의 창작물 유통에 대한 통제력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 작가의 협상력 약화와 실질적 배제 문제

- 콘텐츠의 창작 주체인 작가가 유통 및 홍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유통 기획, 마케팅 전략, 타깃 설정 등에서 작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참여하는 구조가 일반화되어 있음. 이에 따라 창작자가 자율적으로 유통 전략을 수립하거나 자신의 콘텐츠 가치를 조정하기 어려운 환경이 형성되고 있음.

■ 창작자 중심 유통 구조 재편의 필요성

- 작가의 자율성과 생계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유통 구조 내 창작자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창작자가 유통·홍보 전략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공정한 협업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조정이 요구됨. 이는 창작자 중심의 건강한 문학 생태계 구축에 필수적인 과제임.

"요즘은 유통사나 플랫폼이 어떤 책을 홍보할지, 어디에 배치할지를 결정해요. 작가는 그냥 결과만 통보받는 경우가 많고요. 콘텐츠의 최종 소비 경로가 그들의 손에 달려 있으니, 작가는 유통에 있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죠." (LA077)

"책이 출간되면 작가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시선이 아직도 많아요. 유통과 홍보 과정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는 거의 없고, 마케팅 방향이나 타깃도 출판사와 유통사가 다 결정하죠. 작가는 형식적으로만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LA079)

"저는 유통 기획 회의에 참석한 적도 없고, 제 책이 어떤 방식으로 팔리는지도 거의 몰라요. 참여하고 싶어도 시스템 자체가 없고, 창작자는 그냥 콘텐츠 제공자 정도로만 여겨지는 느낌이에요." (LA068)

"창작자 중심의 유통 구조가 가능하려면, 최소한 마케팅 방향이나 타깃 설정에 대해 작가가 발언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해요. 지금은 단절되어 있고, 유통 쪽에서 작가를 파트너가 아니라 일회성 공급자로 보는 경향이 강하죠." (LA065)

"지금처럼 유통 쪽 권한이 크면, 창작자가 뭘 쓰든 결국 플랫폼에서 선택되지 않으면 독자에게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럼 점점 창작자들이 플랫폼 맞춤형 글을 쓰게 되고, 창작의 자율성도 훼손되는 거죠." (LA076)

5) 유통 구조 내 지역 간 격차 존재

■ 수도권 중심 유통 구조의 고착화

- 문학 유통망이 서울 및 수도권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어, 지역 기반 출판사나 창작자들이 주요 유통 채널에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와 정보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지역 문학 콘텐츠의 유통 기회가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문학 생태계의 지역적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음.

■ 지역 문학의 유통 소외와 확산 저해

- 지역에서 생산된 문학 콘텐츠가 전국 단위로 유통되기 어려워, 지역 독자에게도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로인해 지역 작가의 작품이 독립적인 브랜드로 성장하기 어려우며, 지역 독자와의 연결도 약화됨. 지역 내에서 독자층을 형성하고 문학 활동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촘촘한 유통망이 필요함.

■ 지역 기반 유통망 구축과 공공 협력 필요

- 수도권 중심 유통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서점, 도서관, 문화재단 등과 연계된 공공 중심 유통 통로가 마련되어야 함. 독립 출판사 간의 협업 플랫폼, 지역 큐레이터의 활동 지원 등도 지역 문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지역 문학의 가시성과 유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함.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책을 만들면, 유통 단계에서부터 한계를 느껴요. 물류도 문제지만, 네트워크나 정보 접근이 어려워서 책이 어디에 진열되고 있는지도 파악하기 힘들어요. 자연스럽게 독자 접점도 줄어들고요." (LA071)

"지역에서 책을 내면 서울 서점에는 거의 입고되지 않아요. 반대로 서울에서 나온 책은 전국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고요. 이런 구조에서는 지역 출판사가 콘텐츠를 키워나가기 어렵죠." (LA072)

"작가가 지역에 있으면 출판과 유통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워요. 유통망 자체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지역 작가들은 자신이 쓴 책이 자기 지역에서도 팔리지 않는 아이러니를 겪게 돼요." (LA073)

"지역 서점이나 도서관과 연계한 유통 구조가 좀 더 체계적으로 갖춰졌으면 해요. 지금은 지역 기반 출판사들이 서로 연결되지도 않고, 공공기관의 역할도 아직 부족하다고 느껴요." (LA070)

"지역 안에서 작가, 서점, 독자가 연결되는 구조가 필요해요. 지금은 각각 따로 움직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지역 문학의 생태계도 단절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LA076)

나. 생태계 이슈

플랫폼 중심화, 창작자 소외 등으로 인한 문학 유통 구조의 불균형

1) 홍보·마케팅의 기획력 부재와 단발성 집행 구조

■ 단발성·이벤트 중심 홍보 관행의 고착화

- 문학 출판사와 유통 주체들은 주로 출간 직후에 집중된 이벤트성 홍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함. 장기적 관점에서의 브랜드 구축이나 콘텐츠 라인업 기획보다는 단기 판매 성과에 초점을 맞춘 홍보가 반복되고 있음. 이로 인해 문학 작품이 지속적으로 독자에게 도달하는 구조가 부재하며, 수명 주기가 짧아지는 문제도 발생함.

■ 기획-실행 단절로 전략 부재 초래

- 홍보 활동이 체계적인 기획 없이 개별 행사, 이벤트 중심으로 운영되며, 실행까지의 연계가 부족함. 사전 시장 조사, 타깃 분석, 메시지 설계 등 전략적 접근 없이 감각과 경험에 의존해 집행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구조는 자원을 낭비하고, 콘텐츠의 도달률과 효과성을 낮추는 결과를 낳음.

■ 지속 가능한 마케팅 체계의 미흡

- 문학 콘텐츠에 대한 장기적 브랜딩 전략, 충성 독자층 확보, 미디어 채널 연계 등 지속 가능한 마케팅 체계가 부재함. 특히 플랫폼을 활용한 반복 노출, 연계 콘텐츠 생산, 커뮤니티 기반 확산 전략 등이 부족하여 독자와의 접점이 일시적임. 콘텐츠 가치를 장기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전략적 홍보 모델이 절실함.

"출간되면 보도자료 한두 개 뿌리고, 북토크 한 번 열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이후에 콘텐츠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알릴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고요. 그러다 보니 책의 수명이 짧고, 독자에게 각인되지도 않아요." (LA066)

"출판사 내부에서도 홍보는 이벤트성으로 소비돼요. 뭘 알리겠다는 전략 없이 그냥 시기가 되니까 뭔가를 하자는 식이죠. 타깃이 누구인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이 거의 없어요." (LA074)

"문학 쪽은 장기적인 브랜드 기획 개념이 아직 부족해요. 한 작가의 책이 시리즈처럼 연결되거나, 출판사의 색깔이 드러나는 연속적인 캠페인은 드물고, 대부분 일회성 이슈에 집중해요." (LA077)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독자 확산 전략 같은 건 사실상 부재해요. 꾸준히 콘텐츠를 업데이트하거나 반복 노출하는 방식보다는, 그냥 SNS에 한 번 올리고 끝나는 식이 많죠." (LA068)

"계획 없이 진행되는 이벤트가 많다 보니, 실제로 성과도 명확하지 않고, 다음에 뭐가 이어질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방식으로는 독자와 관계를 쌓는 게 어렵다고 느껴요." (LA076)

2) 유통 과정에서의 작가 소외 현상

■ 유통 구조 내 작가의 주체성 약화

- 문학 유통 및 홍보 과정에서 작가는 창작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유통 전반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대부분의 기획과 결정은 출판사나 플랫폼이 주도하며, 작가는 완성된 결과물만을 제공하는 수동적 위치에 놓이게 됨. 이로 인해 작가의 창작 의도나 독자와의 직접적 소통이 유통 구조 내에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고 있음.

■ 작가의 협상력 부재와 기획 개입 한계

- 출판 계약 및 유통 전략 수립 과정에서 작가는 협상력을 갖기 어려우며, 유통 방향이나 마케팅 전략에 관여할 권한이 거의 없음. 콘텐츠의 소비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플랫폼이나 유통사의 전략에 따라 일방적으로 소비되는 흐름에 놓임. 이는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자기 주도적 창작 환경 구축에 장애가 됨.

■ 수익 구조의 불균형과 작가의 경제적 불이익

- 유통 구조에서의 작가 배제는 수익 분배에도 영향을 미쳐, 실질적인 창작자인 작가가 수익 배분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됨. 플랫폼 수수료, 할인 정책, 마케팅 비용 전가 등으로 인해 작가의 수익률은 더욱 낮아지며, 창작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함. 작가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수익 구조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작가는 책을 쓰는 순간까지만 주체고, 그 이후 유통이나 홍보는 그냥 맡겨지는 구조예요. 제 책이 어떤 방식으로 독자에게 전달되는지 알 길이 없고, 의견을 낼 창구도 없어요." (LA079)

"유통 전략은 대부분 출판사와 플랫폼이 정하고, 작가는 그 안에 맞춰 움직이는 입장이에요. 창작자의 의도나 개성을 담은 기획은 거의 반영되지 않고요. 마케팅 회의에 부르는 경우도 드물죠." (LA065)

"출판 계약할 때도 유통 방식이나 수익 분배에 대해 작가가 협상할 여지는 거의 없어요. 그냥 제시된 조건을 수용하는 구조고, 플랫폼에서 정한 할인이나 수수료 정책에 수익이 깎이는 건 당연한 일처럼 여겨져요." (LA078)

"제가 쓴 책인데도 어떤 식으로 소비되는지는 플랫폼의 방식에 따라 결정돼요. 오히려 독자보다 작가가 더 뒤늦게 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콘텐츠 주체로서 존중받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LA077)

"작가가 유통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순간, 번거롭거나 까다로운 사람으로 인식되기도 해요. 결국 침묵하게 되고, 그러면 불공정한 구조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LA074)

3) 콘텐츠 소비 환경의 변화와 수요자 접점의 약화

■ 디지털 콘텐츠 환경 변화에 대한 문학의 낮은 적응력

- 현대 소비자들은 SNS, 유튜브, 웹툰 등 디지털 채널을 통해 콘텐츠를 접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음. 그러나 문학 콘텐츠는 이러한 채널 특성에 맞는 전달 형식이나 콘텐츠 구성 방식에 대한 대응이 부족함. 디지털 플랫폼에 최적화된 콘텐츠 기획과 포맷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새로운 소비자층의 유입이 제한되고 있음.

■ 젊은 세대와의 소통 방식 부재

- 특히 MZ세대 등 젊은 층은 짧고 직관적인 정보, 시청각 중심 콘텐츠에 익숙한 반면, 문학 콘텐츠는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형식과 유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음. 영상 콘텐츠, 인터랙티브 콘텐츠, 밈 활용 등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미흡하여 세대 간 접점 형성이 어렵고, 콘텐츠 도달력 또한 낮은 상황임.

■ 독자 접점 약화에 따른 소비 기반 축소 우려

- 문학 콘텐츠가 주요 소비자 채널로부터 이탈하면서 독자와의 유의미한 접점이 줄어들고 있음. 이는 중장기적으로 독자층의 축소와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춘 문학 향유 방식의 혁신, 독자 중심 기획, 채널 다변화 전략이 문학 생태계 지속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지금은 독자들이 콘텐츠를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스 같은 짧은 영상으로 먼저 접하고 관심을 갖는 시대인데, 문학은 여전히 책 한 권으로만 소통하려는 방식에 머물러 있어요. 이러면 젊은 세대와의 접점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죠." (LA077)

"MZ세대는 문학을 직접 읽기보다는 누가 큐레이션해서 보여주는 걸 더 선호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책 소개를 긴 텍스트로 풀거나, 작가 인터뷰도 정적인 영상으로 만들고 있으니 도달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LA079)

"문학 콘텐츠도 밈이나 짧은 클립 같은 형식으로 가볍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실험이 거의 없어요. 전통적인 형식에 고정되어 있으니, 새로운 독자층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LA068)

"요즘은 플랫폼에 따라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콘텐츠 방식이 너무 다른데, 문학계는 그걸 맞추지 못하고 있어요. 디지털 채널에 맞춘 문학 포맷이 부재하니까, 아예 독자와의 접점 자체가 안 생기는 거죠." (LA076)

"예전에는 책이 나오면 홍보만 잘하면 독자가 따라왔다면, 지금은 먼저 독자들이 있는 채널로 다가가야 해요. 그런데 문학계는 그걸 잘 못하고 있고, 그래서 소비 기반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고 느껴요." (LA074)

4) 유통 구조에서 공공의 부재와 불균형

■ 유통 지원에서의 공공 개입의 단편성과 일회성

- 현재 문학 분야 유통 관련 공공 지원은 대부분 단발성 공모 사업이나 개별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지속적인 구조 개선보다는 단기 성과에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인 유통 생태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함. 이에 따라 현장의 수요와 정책 방향 간의 간극이 발생하고 있음.

■ 민간 주도 유통 구조의 한계와 공공 역할의 공백

- 유통망 확대나 인프라 구축, 플랫폼 개발 등 구조적 과제는 대부분 민간 출판사나 유통 기업이 부담하고 있음. 공공은 이를 보완할 시스템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장기 전략 없이 개별 사업 중심으로 접근함. 민간의 부담이 과중해지는 반면, 정책적 안전장치는 미흡한 상태임.

■ 공공 유통 정책의 제도화 및 구조적 접근 필요

- 공공이 유통 구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전략과 제도화가 필요함.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기반,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민간과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등이 병행되어야 함. 단기 사업 위주의 접근을 넘어서, 유통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설계가 요구됨.

"공공 지원이라고 해도 대부분 일회성 공모 사업이에요. 유통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장기적 기획은 드물고, 대부분 당장 성과가 보이는 행사나 캠페인 중심이라 아쉬움이 커요." (LA076)

"유통망을 늘리는 것도,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결국 민간이 다 떠안고 있어요. 정부나 공공 기관은 뒤에서 간헐적으로 지원하는 식인데, 이건 구조를 바꾸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LA070)

"민간에서 인프라를 다 구축해야 하니 비용 부담이 크고, 시도 자체를 못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럴 때 공공이 최소한의 기반이라도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은 역할이 거의 비어 있는 상태예요." (LA073)

"정책이 유통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려는 방향이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 하나 돌리고 끝나는 수준이에요. 플랫폼 환경이 계속 바뀌는데 공공 쪽은 그걸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LA065)

"출판이나 유통 관련 공공 사업에 참여해봤지만, 장기적인 계획 없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유통 생태계 전반을 바라보는 전략적 설계가 정말 필요한 시점이에요." (LA071)

5) 장르·출판 유형별 유통 편차와 구조적 사각지대 존재

■ 베스트셀러·문학상 수상작 중심 유통 구조 고착

- 대형 서점과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문학 유통은 여전히 베스트셀러와 문학상 수상작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음. 이 구조는 검증된 상품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시장 논리에 따라 다양한 콘텐츠가 유통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독자의 선택권은 제한되고, 새로운 콘텐츠가 소개될 기회는 줄어들고 있음.

■ 실험적 장르·독립출판물의 진입 장벽

- 장르적 실험성을 가진 작품이나 독립출판물은 대형 유통망에 진입하기 어렵고, 소비자에게 노출될 기회가 현저히 낮음. 특히 플랫폼의 노출 알고리즘, 서점의 진열 기준, 유통 수수료 등은 소규모 출판사와 독립 창작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함. 콘텐츠 다양성 확대를 위한 진입 장벽 완화가 필요한 상황임.

■ 유통 접근성의 불균형이 생태계 다양성 저해

- 특정 장르와 출판 유형만이 유통에서 가시성을 확보하는 구조는 문학 생태계의 생동감을 떨어뜨림. 다양한 관점과 형식을 담은 작품들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면서 독자의 선택 폭도 축소됨. 유통 경로 다변화와 다양한 출판물에 대한 공정한 접근성 확보가 생태계의 건강한 순환을 위해 필요함.

"지금 서점에 가보면 문학상 받은 책이나 이미 유명한 작가의 책만 눈에 띄어요. 실험적인 시도나 새로운 목소리는 어디에 있는지 찾기 어렵죠. 유통 구조가 검증된 콘텐츠만 밀어주는 방식으로 고정된 것 같아요." (LA074)

"우리가 만든 독립출판물이 대형 플랫폼에 입점하려고 해도 수수료나 입점 조건이 까다롭고, 진열 기준도 비공식적이라서 뭐가 기준인지조차 알 수 없어요. 이런 구조에서 살아남기는 정말 어려워요." (LA070)

"플랫폼 알고리즘은 결국 판매량이나 클릭 수에 따라 콘텐츠를 노출하니까, 처음부터 인지도가 없는 작품은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요. 실험적인 콘텐츠는 진입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워요." (LA068)

"장르적으로 좀 다른 시도를 하면 오히려 '이건 팔리기 어렵다'는 말부터 들어요. 결국 다 똑같은 형식, 똑같은 분위기의 책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독자 입장에서도 선택 폭이 좁아지는 거죠." (LA076)

"문학 생태계가 다양해지려면 유통이 다양한 출판물에 기회를 줘야 해요. 근데 지금은 베스트셀러 위주로만 돌아가니까, 새로운 출판이나 콘텐츠는 시장에서 설 자리를 못 찾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LA065)

6) 유통 플랫폼 내 정보 비대칭과 권한 집중

■ 유통 플랫폼의 소비자 데이터 독점 구조

- 주요 유통 플랫폼이 독자 정보와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독점적으로 활용하면서, 출판사와 작가는 실질적인 소비자 분석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음. 플랫폼 내부 분석 도구는 외부에 공유되지 않거나 제한적이어서, 창작자나 유통 기획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략 수립이 어려운 상황임.

■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전략 수립의 제약

- 유통 플랫폼에 집중된 데이터 접근 권한은 창작자 중심의 유통 기획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독자의 반응, 구매 경향, 콘텐츠 선호도에 대한 정보 없이 마케팅이나 기획을 진행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유통 효과가 낮고 반복적인 시행착오가 발생함. 이는 창작의 지속 가능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 플랫폼 권한 집중이 생태계 불균형 심화

- 소비자 접점과 정보가 플랫폼에 집중되면서, 문학 생태계 내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작가와 출판사는 점점 더 플랫폼 중심의 규칙에 종속되며, 자율적인 유통 전략 수립이나 콘텐츠 실험이 어려워지고 있음. 생태계 전반의 건강한 균형을 위해 정보 공유와 구조 개선이 필요함.

"플랫폼에서는 독자가 어떤 책을 클릭했는지,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 같은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데, 출판사나 작가는 그 정보를 전혀 볼 수 없어요. 결국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감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죠." (LA077)

"책이 얼마나 팔렸고, 어떤 연령대가 샀는지조차 플랫폼을 거치면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는 쪽만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 출판사 입장에선 반복적으로 시행착오를 겪게 돼요." (LA076)

"요즘은 데이터가 전략의 핵심인데, 정작 콘텐츠를 만드는 쪽은 정보가 없고 유통하는 플랫폼만 그걸 쥐고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 창작자들은 점점 더 플랫폼의 정책에만 의존하게 돼요." (LA078)

"이런 정보 비대칭이 계속되면 작가나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콘텐츠 방향을 잡기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다들 플랫폼에 맞춰 쓰게 돼요. 생태계 전체가 플랫폼 중심으로 왜곡되는 거죠." (LA065)

"우리가 필요한 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독자와 소통할 수 있는 구조인데, 지금은 플랫폼의 알고리즘만 믿고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라 창작과 유통이 분리된 느낌이에요." (LA079)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문학 유통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조적 전환 필요

1) 중간 유통·홍보 주체에 대한 지원 필요

■ 유통·홍보 중간 매개 주체의 부재

- 현재 문학 유통 구조에서는 작가나 출판사가 직접 유통·홍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작가와 독자를 전문적으로 연결해줄 수 있는 중간 매개자의 역할이 부재함. 이로 인해 기획력 있는 유통 전략 수립이 어렵고, 창작자 본연의 활동과 마케팅 실무가 혼재되어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 전문 기획자와 마케터의 역할 필요

- 문학 콘텐츠에 적합한 독자 타깃 설정, 브랜딩, 큐레이션 등은 전문적인 기획 역량이 필요한 영역임. 하지만 현재 문학계에는 이를 전담할 마케터나 큐레이터 인력이 매우 부족하며, 유입 경로 또한 체계화되어 있지 않음. 기획자와 마케터의 육성과 배치가 유통 전략의 질적 향상에 핵심 요소로 작용함.

■ 공공 지원을 통한 매개 인력 기반 마련 필요

- 유통·홍보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인력 교육, 활동 공간, 프로젝트 연계 등 다각도의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문학 콘텐츠의 유통 품질을 높이고 창작자와 독자 간의 효과적 연결을 촉진할 수 있음.

"지금은 작가가 콘텐츠를 만들고, 출판사가 책을 내면서 동시에 유통과 홍보까지 해야 해요. 중간에서 이걸 전문적으로 조율해줄 사람이나 조직이 없으니까, 다들 과중한 역할을 떠안고 있죠." (LA074)

"문학 콘텐츠는 단순히 팔기 위한 제품이 아니라, 그에 맞는 메시지와 독자층을 고려한 기획이 중요한데, 그걸 맡아줄 전문 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기획자나 마케터가 없다 보니 다 감에 의존하는 상황이에요." (LA077)

"사실 출판사 내에 마케팅 전담 인력이 있는 경우도 드물고, 있어도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런 인력이 있어야 유통 전략이 정교해질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LA073)

"문학 콘텐츠에 맞는 유통 전략을 만들려면, 중간에서 연결해줄 사람이나 조직이 필요해요. 공공에서 이런 인력을 양성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면 훨씬 건강한 구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LA065)

"좋은 콘텐츠가 있다고 해도, 독자에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걸 중간에서 다듬고 전달해주는 기획자나 큐레이터가 필요해요.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을 키우는 일에 공공이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LA070)

2) 공공 플랫폼 및 유통 통로 다변화의 필요성

■ 민간 플랫폼 중심 유통 의존 구조의 한계

- 현재 문학 콘텐츠 유통은 대부분 민간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통 구조의 접근성과 다양성에 제약이 따르고 있음. 알고리즘 중심 노출, 상업적 기준에 따른 운영 방식은 공공성이나 콘텐츠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창작자와 독자 모두에게 제한적인 유통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 공공 기반 유통 통로 마련의 필요성

- 문학 콘텐츠가 안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공공이 일정 부분 유통 인프라를 확보하고 운영하는 구조가 필요함. 지역 서점 네트워크, 공공 디지털 플랫폼, 도서관 유통망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콘텐츠의 가시성과 유통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음. 이는 민간 의존도를 줄이고 생태계의 균형을 도모하는 방식임.

■ 유통 플랫폼의 공정성·다양성 확보 과제

- 공공 유통망은 단순한 보완책이 아니라, 유통 생태계 전반의 공정성과 콘텐츠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임. 다양한 창작물이 소외되지 않고 독자와 만날 수 있는 유통 구조 설계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마련이 시급함.

"민간 플랫폼은 결국 매출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실험적이거나 비주류 문학은 노출 자체가 어렵죠. 그런 구조 속에선 아무리 좋은 콘텐츠여도 독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LA076)

"문학도 일정 부분 공공 유통 구조가 있어야 해요. 지금처럼 민간에만 맡기면 상업적 기준에 따라 유통되고, 다양성은 계속 밀려나죠. 지역 서점이나 도서관이 연계된 구조가 필요해요." (LA071)

"공공 플랫폼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알고리즘보다는 콘텐츠의 가치에 따라 노출될 수 있는 채널이요. 그래야 생태계 전체가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봐요." (LA068)

"출판 생태계 안에서 창작자와 독자를 잇는 유통 통로가 더 많아져야 해요. 그걸 민간에만 맡기지 말고, 공공이 일부라도 기반을 마련해주는 식으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LA070)

"다양한 콘텐츠가 살아남으려면 유통도 다양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두 개의 플랫폼이 전체를 좌우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공공 유통망이 반드시 필요해요." (LA065)

3) 작가와 출판사 대상 유통·홍보 교육 및 컨설팅 확대

■ 실질적 유통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

- 문학 창작자와 출판 관계자들은 유통 및 마케팅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 기회를 갖기 어렵고, 현장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독립출판이나 소규모 출판사에서는 유통 전략 수립과 실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시장 확장에 한계를 겪고 있음. 실효성 있는 교육과 컨설팅 지원이 절실함.

■ 중소 규모 창작 주체의 실무 중심 지원 요구

- 중소 출판사나 1인 창작자들은 인력과 예산의 제약으로 유통과 홍보를 병행 수행해야 하는 구조임. 이들은 콘텐츠 기획에는 능하지만, 유통 경로 확보, 소비자 분석, 마케팅 전략 수립에는 취약함.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사례 기반 컨설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함.

■ 디지털 시대에 맞춘 전문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온라인 유통 전략, SNS 기반 마케팅, 타깃 독자 분석, 데이터 활용 등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교육 콘텐츠가 필요함. 단기 워크숍이 아닌 지속적 역량 강화를 위한 커리큘럼이 마련되어야 하며, 실습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바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함.

"출판사나 작가들이 유통이나 홍보를 배울 기회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그냥 경험으로 때우거나 주변 사례를 보고 흉내 내는 수준이죠. 체계적인 교육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에요." (LA074)

"저희처럼 인력이 적은 출판사는 유통 전략 같은 걸 고민할 여유가 없어요. 콘텐츠는 잘 만들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독자에게 전달할지는 항상 막막해요. 맞춤형 컨설팅이 있다면 도움이 클 것 같아요." (LA073)

"요즘은 SNS 마케팅, 타깃 광고 같은 디지털 전략이 중요한데, 그런 건 어디서 배워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단기 특강 말고 실제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해요." (LA079)

"1인 창작자 입장에서는 출판, 홍보, 유통을 다 혼자 해야 하니까 너무 벅차요. 최소한 어떤 플랫폼에서 어떤 방식으로 콘텐츠를 풀어야 효과가 있는지 알려주는 실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LA070)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론보다 실습이 필요해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SNS 콘텐츠 만들기나, 타깃 분석 같은 실전 중심 프로그램이 있어야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LA077)

4) 지역 기반 유통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필요

■ 수도권 중심 유통 구조의 보완 필요성

- 현재 문학 유통 구조는 서울·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기반 콘텐츠와 창작자가 유통망에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임. 지역 문학의 다양성과 독창성이 유통 구조 내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독자와의 접점 형성 또한 제한적임. 수도권 편중 구조를 보완할 분산형 유통 모델 마련이 시급함.

■ 지역 협업 기반 유통 모델의 구축 필요

- 지역 서점, 출판사, 문화재단 등이 연계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지역 유통망을 구축해야 함.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플랫폼을 함께 활용하여, 지역 작가의 콘텐츠가 지역 내외에서 유통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음. 이는 지역 문학의 가시성을 높이고 자생적 유통 구조를 가능하게 함.

■ 지속 가능한 지역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 지역 기반 유통 모델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지원이 필요함. 운영 주체에 대한 행정적 뒷받침과 안정적 재정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지역 유통망의 자립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음. 지역 문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연계가 요구됨.

"서울 밖에서 출판을 하면 유통 채널이 너무 한정적이에요. 지역 서점이나 도서관에서도 지역 작가의 책이 잘 안 보이고, 수도권에 진출하기도 어려워요. 이 구조가 계속되면 지역 문학은 점점 소외될 수밖에 없죠." (LA071)

"지역 출판사끼리 연결해서 유통하거나 서점과 공동 기획을 해보려고 해도, 이를 지속할 수 있는 구조가 없어요. 그냥 행사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LA072)

"지역 안에서 작가, 서점, 출판사, 문화기관이 협력할 수 있다면 유통도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기획하고 운영할지가 항상 문제죠. 공공이 그런 중간 조정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LA065)

"수도권 중심 유통을 보완하려면 지역에 맞는 유통 구조가 따로 설계돼야 해요. 지금처럼 수도권 기준의 구조를 지역에 억지로 적용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LA070)

"지역 유통망이 유지되려면 최소한의 행정 지원과 재정 기반이 필요해요. 그래야 지역에서 자생적인 문학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고, 작가들도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죠." (LA076)

5) 데이터 기반 유통 인프라 구축과 접근성 개선

■ 문학 유통 전략의 데이터 기반 부족

- 현재 문학 유통 환경은 소비자 행동과 콘텐츠 흐름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출판사나 창작자는 시장 흐름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여 유통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음.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어려워 감각 중심의 마케팅과 비효율적 자원 운용이 반복되고 있음.

■ 통합 유통 데이터 시스템의 구축 필요

- 소비자 성향, 판매 추이, 채널별 성과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통합 유통 인프라가 필요함. 해당 시스템은 민간뿐 아니라 공공 영역에서도 활용 가능해야 하며, 콘텐츠 기획·유통·홍보에 있어 공통의 의사결정 도구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함. 이는 유통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로 이어짐.

■ 데이터 접근성과 활용 역량 강화 지원

- 유통 관련 데이터가 있더라도, 이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창작자와 출판 관계자 대상의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과 실습 기반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하며, 현장 중심의 분석 도구 활용법과 실질적 적용 사례 공유가 필요함. 데이터 기반 유통 전략 수립을 위한 역량 강화가 핵심 과제임.

"우리는 책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팔렸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략을 짜야 하는 시대인데, 아직도 감에 의존해서 유통을 계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LA074)

"통합된 유통 데이터를 모아서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있었으면 해요. 지금은 채널마다 따로 보고, 자료도 표준화돼 있지 않아서 비교나 분석이 어려워요. 정책이나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데도 한계가 많죠." (LA077)

"데이터는 있어도 그걸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출판 쪽은 그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고, 실제로 현장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감이 안 와요." (LA073)

"책 판매나 소비자 반응을 분석해서 다음 기획에 반영하고 싶은데, 그걸 가능하게 해줄 도구나 시스템이 없어요. 이건 단지 민간 문제만은 아니고, 공공 차원에서도 함께 만들어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LA076)

"현장에 맞는 데이터 분석 툴과 교육이 같이 가야 의미가 있어요. 그냥 숫자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걸 활용해서 유통 전략을 세우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 실습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해요." (LA079)

Ⅳ. 소비

1. 그룹 구성

■ 문학 분야 Ⅳ. 소비 단계에서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동호회 참여하는 문학 독자의 의견을 수렴함

■ 인터뷰는 1회 진행되었으며, 2명이 참석하였음

[표 2-12] 그룹 구성 - Ⅳ. 소비

그룹	연번	날짜	장소	참석자
[그룹4] 문학 독자 그룹	1	2024-12-19	패스트파이브 용산점 23A	LA080, LA081

[그룹 4] 문학 독자

1. [그룹 4] 참석자 명단

■ [그룹 4] 문학 독자 그룹에서는 참석자 2인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표 2-13] 참석자 명단 - [그룹 4] 문학 독자

구분	참석자 구분	참석자 분류	참석자 코드	성별	연령대	경력
[그룹4] 문학 독자 그룹	연구협의체(n=3)	공공	LA-A	-	-	-
		공공	LA-B	-	-	-
		민간	LA-C	-	-	-
	참석자(n=2)	문학 독자	LA080	여	40대	20년
		문학 독자	LA081	여	30대	10년

2. 주요 논의 사항

■ 독서 플랫폼과 커뮤니티의 확장
- 온라인 기반 플랫폼의 고도화와 독자 간 자발적 교류 확산

■ 세대별 독서 문화의 양상
- 중장년층 중심 독서 모임의 지속과 청년층 유입의 어려움

■ 공간과 기반 시설의 제약
- 오프라인 모임 공간 부족과 소형 책방, 작은 도서관 운영의 어려움

■ 문학 향유의 사회적 인식과 가치
- 독서 활동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와 공공성 강화 필요

■ 공공지원과 프로그램 설계
- 독립 서점, 도서관 중심의 공공 협력 확대 및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 필요

3.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독서 플랫폼 활용과 독자 커뮤니티의 자발적 성장

1) 다양한 경로를 통한 독서 모임 참여와 확대

■ 독서 모임 탐색 경로의 다변화, 접근성 향상에 기여
- 독서 참여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앱, SNS, 독립서점, 도서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독서 모임 정보를 탐색하고 있음. 이는 기존 지인 기반 또는 폐쇄형 커뮤니티에 비해 접근성을 높이고, 새로운 독자층의 유입 가능성을 확대함. 특히 관심 분야나 거주 지역에 따라 유연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독서 생태계 확장에 기여하고 있음.

■ 모임 운영 방식의 다원화, 독서 주체의 선택지 확대
- 독서 모임은 작가 중심, 주제 중심, 출판사 중심 등 다양한 운영 방식으로 분화되고 있으며, 구성원 성향에 따라 모임의 성격도 달라짐. 이는 독자들이 자신의 취향과 관심에 맞는 모임을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 개별 모임의 특화는 독서 활동의 질적 심화와 장기적인 참여 유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 독서 활동의 확장성 증대, 후속 프로그램 연계 필요
- 단순한 독서 토론을 넘어 서평 작성, 북토크 참여, 온라인 후속 게시물 작성 등 독서 이후의 활동이 다양화되고 있음. 이는 독서 경험의 기록과 공유를 촉진하며, 독서 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함. 체계적인 후속 활동 설계 및 연계 프로그램 마련이 지속적 참여 유도를 위해 필요함.

"그믐은 사실 언제 가입했는지는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거의 초반에 생길 때부터 가입을 했던 거를 제가 기억을 해요. [...] 괜찮아 보이는 책 모임에 클릭해서 들어갔고, 그리고 거기 제일 좋은 시스템이 책 증정 이벤트가 있는데 [...] 작은 출판사들은 홍보력도 조금 미약하고 노출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저도 어쨌든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시간적으로, 절대적인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정보력도 너무 약해서 그런 쪽으로 이런 책들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는데" (LA080)

"서점이나 이런 작은 책방에서 운영하는 그런 독서 모임들도 그런 것도 많이 나가보고, 도서관에서도 또 진행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해보고 그냥 다양하게 다 다녀본 것 같아요" (LA081)

"○○이라는 플랫폼이 있다는 거를 처음 알게 됐고. [...] 다양한 독서 모임이 생겨나는 걸 보고, 그때부터 관심 갖고 조금씩 참여도 하고 제가 직접 열어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오프라인 모임도 가보고, 다양한 펀딩 그런 프로그램도 가보고. [...]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도 글도 남겨보고, 다른 분들이랑 소통도 하면서 [...] 가지처럼 확장되어 있는 무리가 많아서 지금은 되게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081)

"그때는 그냥 책 단순히 읽고 좋은 문장 올리고 그냥 느낌 올리고 [...] 근데 사실 올해 초반부터 거기 작가님들이 많이 활동하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 저도 수동적으로 참여했던 모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고" (LA080)

"사람이 뭔가 책이 닿을 것 같다 싶으면 물어봐서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약간 모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루트로 관심있게 항상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LA081)

2) 연령과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독서 생태계의 양상

■ 중장년 여성 중심의 지역 독서 문화 형성, 생활 기반 커뮤니티로 기능

- 일산 등 특정 지역에서는 중장년층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독서 모임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 이들은 지역 기반의 커뮤니티와 결합되어 독서 외에도 생활정보 교류와 공동체 형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정기적인 만남과 독서 활동을 통해 일상 속 문화 향유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음.

■ 대도시권 독서 모임의 연령별 특화, 세대 분화 양상 드러남

- 서울 등 대도시권에서는 20~30대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각기 다른 독서 모임을 운영하거나 참여하고 있음. 세대 간 가치관과 생활 리듬 차이로 인해 모임의 주제, 운영 방식, 분위기 등에서 뚜렷한 구분이 나타남.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기보다 동질적 구성원 중심의 모임이 선호됨.

■ 리더 연령에 따른 참여자 구성 결정, 모임 성격에 직접 영향

- 독서 모임에서 리더의 연령대가 참여자 연령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모임의 전체 분위기와 운영 방향에도 결정적 역할을 함. 동일 연령대 중심의 모임은 소통의 편안함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쉬운 반면, 세대 다양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음. 세대 간 교류가 가능한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제가 일산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서 되게 신기했던 게 다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50대, 60대 여성분들. [...] 책도 굉장히 진지하게 읽고 오시고, 뭐랄까 그냥 지적인 욕망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약간 그 지역 커뮤니티랑도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들었고요" (LA080)
>
> "서울에서 했던 모임은 확실히 20~30대가 많았고, 분위기도 좀 더 자유롭고 편한 느낌이었어요. 뭔가 막 딱딱하게 토론해야 한다기보다는 서로 이야기 나누는 게 더 중심이 되는? 반면에 중년층이 많은 모임은 좀 더 구조적으로 움직이고 준비도 많이 해오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LA081)
>
> "제가 한 모임은 30대 초반 리더가 운영했는데, 참여자도 자연스럽게 그 또래로 모였거든요. 반대로 나이대가 있는 리더가 있는 곳은 확실히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많았고요. [...] 리더의 연령이나 성향이 모임 분위기를 정하는 게 진짜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LA081)
>
> "모임을 하다 보면 결국엔 관심사나 생활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들이 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다양한 연령이 섞이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대체로 또래끼리 모여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LA080)

3) 독서 활동과 일상의 결합을 통한 생활문화로서의 문학

■ 독서의 일상화, 취미를 넘어선 생활문화로 정착

- 참여자들은 독서를 단순한 여가나 취미 활동이 아닌 일상 속 지속적인 습관으로 인식하고 있음. 이는 일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책을 읽고 모임에 참여하는 생활 리듬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으며, 독서가 정서적 안정과 자아 성찰의 기제로 작용함. 독서는 이제 선택적 활동이 아닌 삶의 일부분임.

■ 가족 단위 독서 문화 확산, 세대 간 영향력 발휘

- 독서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자녀나 배우자에게도 책 읽기를 장려하고 있으며, 가족 단위의 독서 활동으로 확장되는 경향이 나타남. 부모의 독서 습관은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며, 독서가 가정 내 문화로 형성되는 기반이 되고 있음. 이는 독서 문화의 세대 전파에 기여함.

■ 공동체적 실천으로서의 문학 향유, 사회적 의미 부각

- 개인의 독서 경험이 독서 모임을 통해 타인과 공유되고, 대화와 감상의 장으로 확장되면서 문학 향유는 공동체적 실천으로 전환되고 있음. 이는 문학이 사회적 교류와 연대의 매개로 기능하게 하며, 독서가 공공적 가치와 연결되는 기반이 됨. 독서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재조명할 필요 있음.

"저는 책을 읽는 게 그냥 취미라기보다는 생활 습관처럼 된 것 같아요. 매일 잠들기 전에 한 시간은 꼭 책을 읽고, 모임 있는 날은 일정보다 먼저 체크하고요. [...]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는 게 제 생활 리듬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어요" (LA080)

"아이랑 같이 책을 읽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제가 독서 모임 다니면서 책을 자주 접하니까 아이도 자연스럽게 옆에서 같이 보게 되고요. [...] 책을 매개로 대화도 늘고, 뭔가 함께하는 문화가 된 느낌이에요" (LA081)

"모임에서 서로 책 얘기 나누고 좋은 구절 공유하고 그러다 보면, 그냥 혼자 읽을 때랑은 느낌이 달라요. 혼자만의 감상이 아니라 누군가와 연결된다는 기분이 들어서 더 깊게 읽게 되는 것 같아요" (LA080)

"같이 읽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그냥 책 얘기뿐 아니라 서로의 삶에 대해서도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문학이 제 안에서 되게 사회적인 의미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LA081)

나. 생태계 이슈

문학 독서 커뮤니티의 현주소 및 과제

1) 독서 모임의 사교화 경향과 그에 따른 결속력 저하

■ 오프라인 모임의 사교화 경향, 독서 집중도 저하 초래

- 일부 오프라인 독서 모임은 독서보다는 사람 간 친목 형성에 초점을 두며 운영되고 있음. 책 내용보다는 일상 대화와 잡담이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아 독서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모임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경향을 보임. 이는 독서 활동의 내실화를 저해함.

■ 참여 목적의 불일치, 모임 지속성에 부정적 영향

- 독서를 중심으로 모인 구성원과 사교적 만남을 기대하는 참여자 간 목적의 차이가 발생함. 이로 인해 일부 참여자들은 모임에 실망하거나 흥미를 잃고 이탈하게 되며, 모임의 결속력과 지속성이 약화되는 문제로 이어짐. 운영 기준의 명확한 설정이 필요함.

■ 진지한 독서 분위기 유지 어려움, 독서 모임 질적 저하 우려

- 사교 중심의 분위기가 형성되면 책을 성실히 읽어온 참여자들도 점차 독서 의욕을 상실하거나 모임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됨. 이는 독서 토론의 깊이를 떨어뜨리고, 독서 문화 확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모임 목적에 부합하는 참여자 선별과 운영 기준 마련이 필요함.

"제가 한때 나갔던 모임은 처음엔 책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거의 수다 모임처럼 돼 있어서 좀 놀랐어요. [...] 책 이야기는 조금 하고 대부분 일상 얘기나 잡담이 많아서,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LA081)

"책을 진짜 열심히 읽고 간 날에도 정작 그 책 얘기를 거의 안 해서 허탈했던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굳이 열심히 준비할 필요가 있나 싶었고, 결국 나가게 됐죠" (LA080)

"같이 있는 분들 중에는 그냥 새로운 사람들 만나려고 온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책 얘기를 하려고 간 거였는데, 그런 분위기가 반복되다 보니까 기대감이 점점 낮아졌고 자연스럽게 발길이 끊겼어요" (LA081)

"모임에서 깊이 있는 대화를 기대했는데, 대부분 그냥 책 읽었다는 인증만 하고 끝나니까 아쉬움이 남았어요. 계속 참여해야 할 이유가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었죠" (LA080)

2) 책의 유통 구조와 독립출판물의 가시성 문제

■ 대형 출판사 중심 유통 구조, 독립출판물 노출 저해

- 현재 도서 유통 시장은 대형 출판사 중심의 마케팅과 서점 진열 구조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이에 따라 독립출판물이나 소규모 출판사의 도서는 독자에게 노출될 기회가 현저히 낮음. 책의 품질과는 무관하게 유통망의 한계로 가시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지속됨.

■ 독서 선택지의 제한, 문학적 다양성 축소 우려

- 독자가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도서가 주류 출판사의 책에 편중되면서, 다양한 시도와 실험이 담긴 독립출판물은 외면받는 구조임. 이는 독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문학적 감수성과 주제적 폭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음. 독서의 질적 확장을 위해 다양성 확보가 필요함.

■ 문학 생태계의 불균형 심화, 구조 개선 필요성 대두

- 독립출판물이 독자와 연결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작가와 실험적인 콘텐츠의 생존 기반이 약화됨. 이는 문학 생태계 내 세대교체와 장르 다변화를 어렵게 하며 장기적으로 창작 기반을 침식시키는 요인임. 유통 구조의 재설계와 공공적 지원 장치 마련이 요구됨.

"저는 솔직히 ○○ 같은 데에서 독립출판물을 처음 알게 됐어요. 대형 서점에서는 잘 안 보이잖아요. [...] 그런 작은 출판사 책은 알 방법도 별로 없고, 광고도 잘 안 나오고. 그런데 플랫폼에서 어떤 분이 소개해줘서 알게 되고, 그때 처음 읽게 된 책도 있었어요" (LA080)

"출판된 책이라고 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요즘 많이 느껴요. [...] 서점에 가면 거의 베스트셀러 위주로 진열돼 있고, 그런 책이 아닌 건 아예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뭔가 진짜 다양한 책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오히려 모임을 하면서였어요" (LA081)

"작은 출판사들이 책을 얼마나 힘들게 내는지도 알게 되면서, 그 책들이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책이 좋아도 알릴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인 것 같고, 독자 입장에서도 접근이 어렵다는 걸 많이 느껴요" (LA081)

"○○에서 받은 책 중에 제가 진짜 좋았던 책이 있었는데, 검색해보니까 거의 리뷰도 없고 서점에도 안 깔려 있더라고요. [...] 이런 책들이 그냥 사라지는 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LA080)

3) 오프라인 모임 공간 확보의 어려움

■ 독서 모임 공간 확보의 어려움, 비용과 접근성의 이중 부담

- 오프라인 독서 모임은 주로 카페, 도서관, 서점 등에서 진행되나, 공간 확보를 위한 비용 부담이 지속적인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함. 특히 정기적 모임을 위해 회비를 걷는 방식은 일부 참여자에게 부담이 되며, 장소 선택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음.

■ 공공시설 이용의 한계, 시간·인력 자원의 부족

- 도서관 등 공공시설은 예약 시스템, 제한된 운영 시간, 관리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자율적인 모임 운영에 제약이 있음. 공간은 있으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자발적 커뮤니티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체계가 미비한 실정임.

■ 소형 책방의 접근성 문제, 지역 편차에 따른 이용 격차

- 독립 서점이나 작은 책방은 모임 장소로 적합하나 대부분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고, 주거지와 거리가 먼 외곽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음. 그 결과 이용률이 저조하며, 독서 커뮤니티의 지역 간 형평성에도 불균형이 발생함. 교통과 공간을 연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오프라인 모임을 하려면 결국 카페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인원 수가 많아지면 자리가 마땅치 않거나 음료 값도 부담이 되거든요. [...] 회비를 걷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매번 제 돈으로 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장소 찾는 게 제일 스트레스였어요" (LA081)

"도서관 같은 데를 빌릴 수는 있는데, 예약 절차도 까다롭고 시간도 한정돼 있어서 자유롭게 쓰기는 어렵더라고요. [...] 특히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는 거의 예약이 꽉 차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잘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LA080)

"작은 책방에서 모임을 해본 적도 있는데, 위치가 외곽이라 다들 오기 힘들어했고 결국 몇 번 하고 그만뒀어요. 책방 분위기는 참 좋았는데 교통이 안 좋으니까 참여율이 떨어지더라고요" (LA081)

"저희 동네에는 아예 쓸 만한 공간이 없어서, 모임이 열려도 대부분 서울 시내까지 나가야 하거든요. [...] 그렇게 되면 시간과 비용도 들어가고, 자주 모이기도 어렵고요" (LA080)

4) 공공 독서 프로그램의 접근성과 지속성 문제

■ 작은 도서관 운영 축소, 지역 독서 생태계 기반 약화

- 최근 작은 도서관에 대한 예산 삭감과 행정적 지원 축소로 인해 운영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는 지역 주민에게 가까운 독서 접근 공간을 잃게 하며, 일상적인 독서 문화 기반이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함. 특히 아동과 고령층에 미치는 영향이 큼.

■ 지역 독서 프로그램의 지속성 저하, 자발적 참여 위축

-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던 독서 프로그램이 예산 부족으로 폐지되거나 간헐적으로만 운영되면서, 주민의 꾸준한 참여 동력이 약화되고 있음. 프로그램의 불연속성은 독서 공동체 형성과 관계망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 공공 독서 인프라에 대한 정책적 재투자 필요

- 작은 도서관과 지역 독서 프로그램은 독서 인구 저변 확대의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복지 측면에서 작은 도서관의 공공적 역할을 재정립하고, 안정적 예산 확보가 필요함.

"예전에 저희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책 읽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한동안 안 보이더라고요. [...]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산이 끊겨서 중단됐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랑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던 곳이었는데 아쉬웠어요" (LA080)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여했는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거나, 갑자기 안 열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꾸준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끊기니까 흐름을 잇기 어렵더라고요" (LA081)

"지역에서 하는 독서 행사들이 가끔은 있는데,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냥 일회성 이벤트처럼 끝나는 경우가 많고, 그때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는 느낌이죠" (LA081)

"작은 도서관이 가까이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문 닫는 곳도 많아지고, 예전처럼 활발하게 운영되는 느낌이 없어요. 그런 데서 모임도 하고 프로그램도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자취를 감춘 곳도 있어요" (LA080)

5) 참여 독자층의 고령화와 젊은 세대 유입의 어려움

■ 중장년층 중심의 독서 모임 구성, 세대 편중 현상 지속

- 현재 많은 독서 모임은 40~60대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 이는 생활 리듬과 독서 습관이 유사한 구성원 간의 소통에 유리하지만, 특정 세대에 집중된 구성은 장기적인 확장성과 다양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냄. 세대 간 균형 있는 참여 유도가 과제로 부상함.

■ 청년층 유입 저조, 프로그램 설계의 매력 부족

- 20~30대 청년층은 독서 활동에 관심은 있지만 기존 모임의 분위기나 주제가 정서적으로 맞지 않거나 흥미를 끌지 못해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지지 않음. 독서 이외의 활동 요소나 창의적 기획이 부족한 것도 진입 장벽으로 작용함.

■ 청년 세대의 라이프스타일 반영 필요, 맞춤형 기획 요구됨

- 청년층은 비정규 근무, 육아, 이직 등 유동적인 일상 속에서 유연한 참여 방식을 선호함. 정해진 시간에 정기적으로 모이는 기존 방식보다는 자유로운 온라인 참여, 작가 연계형 북토크 등 유연한 콘텐츠 설계가 필요함.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획이 절실함.

"제가 처음 모임 갔을 때 저 혼자만 30대고 나머지는 다 50대 이상이셨어요.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지만, 뭔가 책을 보는 시선이나 관심사가 다르다 보니 이야기가 좀 엇갈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LA081)

"친구들한테도 독서 모임 얘기해보면 관심은 있어 하는데, 막상 참여하고 싶은 생각까진 잘 안 가더라고요. 딱딱할 것 같다는 인식도 있고, 좀 더 캐주얼하고 재밌는 요소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도 있었어요" (LA080)

"요즘 저희 또래는 스케줄이 워낙 유동적이라 주중 저녁이나 주말 고정 모임은 참여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느슨하게 참여하거나, 작가랑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더 흥미를 가질 것 같아요" (LA081)

"정기 모임이 좋긴 한데, 요즘 청년 세대한테는 꼭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모이는 게 큰 부담일 수 있어요.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형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LA080)

6) 독서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 독서의 공공성 인식 부족, 개인 여가로의 한정된 시각

- 책 읽기나 독서 모임 참여가 여전히 개인의 취미 또는 여가 활동으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강함. 이는 독서 활동이 지닌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효과를 간과하게 만들며, 독서를 공공적 가치로 이해하는 데에 제약이 있음.

■ 독서 공동체에 대한 공적 지원 인식 미흡

- 독서 모임은 사회적 교류, 정서적 안정, 문화 향유의 장으로 기능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지원이나 사회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함. 이는 독서 커뮤니티가 자생적 기반에만 의존하게 하며 지속성과 확장에 어려움을 가중시킴.

■ 문화정책 내 독서의 위상 강화 필요

- 공연예술이나 시각예술과 달리 독서 활동은 문화 정책에서 낮은 우선순위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음. 독서의 공공적 의미와 사회적 파급력을 재조명하고, 문화 복지 차원에서 독서 공동체에 대한 제도적 인식 전환이 필요함.

"사실 책 읽는다고 하면 아직도 그냥 혼자 하는 조용한 취미쯤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 근데 저는 모임하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감정도 나누고, 그런 시간이 되게 의미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활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느낌은 별로 없었어요" (LA081)

"독서 모임도 엄연히 문화 활동인데, 공연이나 전시처럼 지원받거나 소개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알아서 하는 취미 활동쯤으로 여겨지는 게 좀 아쉬웠어요" (LA080)

"책을 읽는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은데, 그걸 넘어서서 같이 읽고 나누는 과정이 사회적으로도 가치 있다는 걸 더 많이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관심도 생기고 지원도 생기지 않을까요?" (LA081)

"예산이나 지원 얘기 나오면 항상 책은 뒤로 밀리는 것 같아요. 공연이나 축제는 보이니까 투자도 되는데, 독서 모임은 눈에 잘 안 띄니까 공공에서 별로 손을 안 대는 것 같더라고요" (LA080)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지속 가능한 독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 강화 필요

1) 작은 도서관과 독립 서점 중심의 공공 협력 강화 필요성

■ 독립 서점과 작은 도서관, 지역 독서 생태계의 거점 역할

- 지역 내 독립 서점과 작은 도서관은 단순한 책 유통 공간을 넘어, 독서 모임과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커뮤니티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음. 접근성과 친밀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짐.

■ 운영 주체로서의 자율성 강화, 지속적 활동 기반 마련 필요

- 독립 서점과 도서관이 독자적으로 독서 모임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재정적 한계로 인해 장기적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안정적 활동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과 행정적 지원 체계가 필요함.

■ 공공-민간 연계 정책 설계 필요성 대두

- 지역 밀착형 독서 공동체 육성을 위해서는 공공 부문과 독립서점·작은 도서관 간 협력 구조가 중요함. 공공이 제도적 틀을 제공하고, 민간이 창의적 기획과 실행을 맡는 분담 체계가 필요함. 이를 위한 지역 단위 맞춤형 지원이 요구됨.

"제가 자주 가던 독립서점에서는 그냥 책만 파는 게 아니라, 작가 초청 북토크나 낭독회 같은 걸 자주 열었어요. [...] 동네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참여하고, 그 공간이 그냥 책방이 아니라 커뮤니티처럼 느껴졌어요" (LA081)

"작은 도서관에서 열렸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분위기가 정말 따뜻하고 편했어요. 아이들이랑 어르신들도 같이 와서 책 읽고 이야기 나누고요. 그런데 그런 데가 계속 운영되려면 예산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LA080)

"독립서점 사장님이 직접 모임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사실 혼자 다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어 보여서, 행정적인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느꼈어요" (LA081)

"책방이나 작은 도서관은 지역 사람들하고 진짜 가까운 공간이잖아요. 거기서 시작된 모임들이 많고, 그게 그냥 끝나지 않도록 하려면 공공이랑 연계해서 도와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LA080)

2) 다양한 세대가 참여 가능한 독서 프로그램 설계

■ 청년 세대 대상 독서 프로그램 다양화 필요

- 기존 독서 모임이 중장년층 중심으로 구성된 반면, 20~30대 청년층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기획은 상대적으로 부족함. 청년 세대가 선호하는 북토크, 작가와의 대화, 콘텐츠 기반 모임 등 흥미 중심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 세대별 생활 리듬 반영한 맞춤형 운영 설계 필요

- 청년층은 비정규 근무, 육아, 이동성 등으로 정기적 모임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과 형식이 유연한 프로그램이 필요함. 저녁 시간대, 온라인 참여, 비대면 토론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맞춤 설계가 효과적임.

■ 다양한 세대의 교차 참여 유도, 독서 생태계 확장 기반 마련

- 세대 간 관심사 차이를 고려한 주제 선정과 프로그램 구성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교차 참여가 가능함. 이를 통해 독서 커뮤니티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세대 통합적 독서 문화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제 또래 친구들한테 독서 모임 같이 하자고 하면, 다들 재밌어 보인다고는 하는데, 막상 참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 그냥 토론만 하는 게 아니라 작가랑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거나, 좀 더 콘텐츠 중심으로 흥미를 끌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 참여할 것 같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LA081)
>
> "저는 직장 끝나고 가야 하니까 저녁 시간대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했어요. [...] 주말도 일이 생기면 못 나갈 때가 많고, 매주 같은 시간에 모이는 건 현실적으로 부담스럽더라고요" (LA080)
>
> "연령대가 다른 분들과 같이 읽는 모임도 나가본 적 있는데, 주제나 방식이 잘 맞으면 충분히 소통이 되더라고요. [...] 오히려 세대가 다양하면 시각도 다양해져서 더 재미있는 대화가 가능하다는 걸 느꼈어요" (LA081)
>
> "모임이 한쪽 세대만으로만 구성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만 머무는 경향이 생기는데,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지는 구조가 되면 독서문화도 좀 더 확장성 있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LA080)

3) 공공 주도의 독서 축제 및 북클럽 연계 행사 마련

■ 독서 커뮤니티 연계형 축제 기획 필요

-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북클럽과 독서 모임은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고 있으나, 상호 교류나 정보 공유의 기회는 제한적임.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이들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연계형 축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는 독서 커뮤니티 간의 연결성을 높이는 기반이 됨.

■ 자생적 독서 공동체의 가시화 및 동기 부여 효과

- 독서 축제는 기존 활동을 외부에 드러내고 공유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각 모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기획될 경우 참여자에게 강한 동기 부여를 줄 수 있음. 지역 독서 모임의 지속 가능성 제고에도 기여함.

■ 독서 문화의 다층적 확장, 정책 연계 가능성 제고

- 축제를 통해 다양한 독서 방식과 활동이 소개되면, 문학 향유 방식의 다층성이 드러나고 독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도 높아짐. 이는 독서 관련 정책 개발 및 지원 체계를 설계할 때 실질적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됨.

"책 읽는 모임들이 여기저기 많긴 한데, 서로 연결되는 느낌은 잘 없어요. [...] 그런 모임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축제나 행사 같은 게 있으면, 활동도 더 활발해지고 자극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LA081)

"제가 활동하는 모임도 되게 오래됐고, 나름 꾸준히 해왔는데 밖에 알려질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거나 소개할 수 있는 장이 생긴다면 참여자 입장에서도 동기부여가 확실히 될 것 같아요" (LA080)

"독서 축제가 열린다고 하면 저도 꼭 참여해보고 싶어요. 그냥 책 파는 부스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모임들이 주인공이 되는 방식이면 좋겠어요. [...] 그런 걸 통해 문학 활동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걸 사회적으로도 알릴 수 있지 않을까요?" (LA081)

"이런 행사들이 단순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공공의 정책이나 지원과 연결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모임을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반영되는 기회가 생긴다면, 정말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LA080)

4) 공공기관 중심의 독서 코디네이터 운영 지원

■ 공공시설 내 독서 활동 전담 인력 배치 필요

-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공공시설에 독서 모임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프로그램 기획 및 참여자 지원이 체계화될 수 있음. 단순 공간 제공을 넘어, 콘텐츠 운영과 커뮤니티 관리까지 아우르는 전문 인력의 확보가 요구됨.

■ 거점 공간 중심의 독서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

- 독서 모임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필요함. 전담 인력이 상주하는 거점 공간은 주민들의 자발적 모임 형성과 정기적 활동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공간 운영과 실무 지원 병행 체계 구축 필요

- 단순 장소 제공만으로는 독서 활동의 질적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움. 공간 운영과 더불어 모임 기획, 홍보, 운영 매뉴얼 등 실무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자생적인 독서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음. 공공 주도의 지원 체계 구축이 요구됨.

"도서관 같은 데서 모임을 하려고 해도, 담당자가 따로 없다 보니까 문의할 데도 없고 진행이 어려웠던 적이 많았어요. [...] 그냥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LA081)

"공간만 주어지는 것보다, 거기 상주하는 분이 있어서 모임을 조율하거나 홍보도 같이 해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랑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고요" (LA080)

"모임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어려운 게 홍보랑 진행 방식이었거든요. 그런 걸 누군가 도와줬다면 훨씬 수월했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결국 혼자 다 알아봐야 했어요. [...] 공공 쪽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LA081)

"지역 커뮤니티센터 같은 데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이 열릴 수 있게, 담당 코디네이터가 상주하면서 공간과 사람을 매칭해주는 구조가 되면, 책 읽는 문화가 더 많이 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LA080)

5) 독서 리더 양성과 활동 지원 체계 마련

■ 독서 리더 역할의 중요성 부각, 운영 역량 강화 필요

- 독서 모임의 방향성과 분위기는 리더의 역량에 따라 크게 달라짐. 참여자 간 균형 있는 발언 조율, 토론 주제 선정, 모임 흐름 운영 등에서 리더의 퍼실리테이션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함. 체계적인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함.

■ 리더 대상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 마련 필요

- 독서 리더가 초보 참여자에서 운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운영 노하우, 커뮤니케이션 스킬, 분쟁 조정법 등을 포함한 실무형 교육이 필요함. 온라인 강의, 오프라인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의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 리더 역량이 모임의 지속성과 질적 성장을 좌우함

- 준비된 리더는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신규 회원 유입과 장기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 이는 독서 모임의 자생적 확장과 지역 독서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직접적으로 기여함. 리더 육성은 문화 기반 조성의 핵심 과제임.

"모임을 이끌게 되면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게 많더라고요. 그냥 책만 읽고 오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시작할지, 누가 소외되지 않게 할지 그런 걸 다 고민하게 돼요. [...]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LA080)

"리더 역할을 맡고 나서 제일 어려웠던 건 참여자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었어요. 너무 주도적으로 끌고 가도 안 되고, 그렇다고 방치하면 흐지부지되고. [...] 그런 운영 스킬을 누가 알려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LA081)

"처음엔 그냥 읽고 오는 모임이겠지 했는데, 진행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 잘 준비된 리더가 있으면 참여자들도 더 성실하게 읽고 오고, 모임이 훨씬 더 알차게 굴러가는 것 같아요" (LA080)

"요즘은 온라인으로 리더 교육 같은 게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니까 꼭 오프라인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운영 노하우 같은 걸 익힐 수 있는 콘텐츠가 있으면 좋겠어요" (LA081)

V. 공공 및 민간 지원

1. 그룹 구성

■ 문학 분야 V. 공공 및 민간 지원 단계에서는 예술위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 담당자에 대해 의견 수렴을 진행함

■ 인터뷰는 총 10회로 진행되었으며, 12명이 참석하였음

[표 2-14] 그룹 구성 - V. 공공 및 민간 지원

그룹	연번	날짜	장소	참석자
[그룹5] 예술위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 담당자	1	2024-10-10	대산문화재단	LA082
	2	2024-10-17	패스트파이브 용산점 23C	LA083, LA084
	3	2024-12-12	패스트파이브 용산점 23C	LA085
	4	2024-12-27	온라인 Zoom 회의	LA086
	5	2024-11-14	땅끝순례문학관	LA087
	6	2024-11-14	목포문학관	LA088
	7	2024-12-05	제주문학관	LA089, LA090
	8	2024-12-18	패스트파이브 용산점 23C	LA091
	9	2024-10-10	광화문 교보빌딩	LA092
	10	2024-10-24	패스트파이브 홍대3호점 5A	LA093

[그룹 5] 예술위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 담당자

1. [그룹 5] 참석자 명단

■ [그룹 5] 예술위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 담당자에서는 지역재단(공공) 및 민간재단 종사자, 문학관 종사자, 번역원 관계자 등 참석자 12인으로 구성하였음

[표 2-15] 참석자 명단 - [그룹 5] 예술위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 담당자

구분	참석자 구분	참석자 분류	참석자 코드	성별	연령대	경력
[그룹5] 예술위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 담당자	연구협의체(n=3)	공공	LA-A	-	-	-
		공공	LA-B	-	-	-
		민간	LA-C	-	-	-
	참석자(n=12)	민간재단	LA082	여	50대	26년
		지역재단(공공)	LA083	여	40대	15년
		지역재단(공공)	LA084	여	30대	4년
		민간재단	LA085	남	40대	20년
		지역재단(공공)	LA086	여	40대	23년
		문학관	LA087	여	30대	7년
		문학관	LA088	여	50대	17년
		문학관	LA089	여	70대	36년
		문학관	LA090	여	50대	20년
		문학관	LA091	여	50대	5년
		번역원	LA092	남	50대	32년
		번역원	LA093	여	50대	20년

2. 주요 논의 사항

■ 문학의 해외 진출과 번역 기반 구축
- 번역 지원과 출판 연계 사업을 통한 한국 문학의 국제 수상 사례 증가, 번역 아카데미를 통한 전문 인력 양성 체계 운영

■ 문학 지원 체계의 분절성과 행정 중심 운영
- 기관 간 사업 중복과 비효율, 경직된 정책 설계 및 현장 의견 반영 부족 문제

■ 창작자 환경과 장르 불균형
- 창작자 생계 불안과 복수 직업화, 실험적 장르 및 지역 기반 문학의 소외 문제

■ 성과 중심의 단기 지원 한계
- 정성적 성과 평가 및 지속 가능한 창작 지원 체계 부재, 유연한 사업 설계 필요

■ 통합 거버넌스와 생태계 중심 지원 필요
- 플랫폼 기반 통합 지원 체계, 출판사·기획자 연계 모델, 다장르 실험 지원 확대 필요

3.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문학 국제화 성과와 번역가 양성의 연계 구조

1) 한국 문학의 해외 수상 증가와 연계된 번역 사업의 성과

■ 국제 문학상 수상 사례 증가, 번역·출판 연계 성과로 이어짐
- 한국 문학은 한강의 맨부커상 수상을 기점으로 국제 문학계에서 높은 주목을 받고 있음. 이후 다양한 작가들이 해외 문학상에서 입후보하거나 수상하며, 현재까지 약 97건의 사례가 보고됨. 이는 단순한 창작 성과를 넘어 구조화된 해외 진출 전략의 결실로 평가됨. 문학에 대한 해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창작자와 콘텐츠의 국제적 경쟁력이 입증되고 있음.

■ 번역·출판·교류 연계 지원, 유기적 시스템 성과 도출
- 문학 해외 진출은 번역원 중심의 다층적 지원사업이 유기적으로 작동한 결과임. 번역 지원과 출판 지원이 단절 없이 연계되고, 작가 초청과 현지 교류 행사를 통해 작품의 확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개별 사업이 아닌 통합적 전략이 주요 문학상 수상으로 연결되었으며, 이는 국가 차원의 문학 콘텐츠 확산 모델로 주목받고 있음.

■ 해외 출판사의 관심 증가, 한국 문학 수출 기반 확대 중
- 주요 문학상 수상 이후 해외 출판사들이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수입 출판 계약이 증가하는 추세임. 단일 작가에 대한 관심이 다수의 한국 작가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번역원의 지속적 홍보 및 작가 발굴 사업과 연결되어 있음. 출판 시장 내 한국 문학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수출 기반 확장의 중요한 기점이 되고 있음.

“"한강 작가의 수상 이후에 저희가 가장 크게 체감한 건 해외 출판사에서 먼저 연락이 온다는 점이에요. 예전엔 우리가 샘플 번역을 보내도 반응이 더뎠는데, 지금은 출판사 쪽에서 한국 작가 리스트를 요청하거나 계약 의향을 밝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LA093)

"저희 번역원에서 하는 사업이 단순히 번역비만 주는 게 아니고, 번역이 완료되면 출판까지 연계하고 작가를 현지로 초청해서 문학 행사도 함께 기획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의 작품이 단순히 번역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출판과 독자와의 만남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LA093)

"최근 10년 사이에 저희가 지원한 작품이 90건이 넘는 해외 문학상에 입후보하거나 수상했어요. 부커상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문학상 수상도 점점 늘고 있고요. 이건 한두 명의 작가 성과라기보다는 시스템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LA093)

"이전에는 한국문학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번역된다고 해도 출판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번역과 출판이 동시에 지원되고, 도서전이나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홍보도 병행되니까 출판사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줄어든 거죠." (LA085)

"작가 개인이 혼자 해외 진출을 도모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번역도 지원하고, 출판사와 연결해드리고, 나아가 현지 행사까지 매칭해드리니까, 그런 전체적인 구조가 한국문학의 확산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LA085)

2) 번역 아카데미를 통한 신진 번역가에 양성 체계 운영

■ 체계적 번역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진 인력 양성 기반 마련

- ○○○○은 2008년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번역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체계적인 인력 양성에 힘써 왔음. 2년제 교육 과정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구성되어 있으며, 정규·야간 과정을 통해 다양한 수요층을 포괄하고 있음. 이는 단기적인 결과에 그치지 않고, 문학의 장기적 해외 확산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음.

■ 원어민 대상 번역 교육 강화, 실질적 전문성 확보

- 아카데미는 한국어와 대상 언어에 모두 능통한 원어민을 중심으로 교육생을 선발하고 있음.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등 7개 언어권에서 교육을 제공하며, 연간 120명 규모의 전문 번역 인력을 배출하고 있음. 이는 단순 번역을 넘어 현지 독자와의 소통 가능성을 높이며, 작품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 해외 진출을 위한 번역 생태계 조성, 지속성 확보 필요

- 아카데미 출신 번역가는 이후 번역지원·출판지원 사업과 연계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문학 해외 진출의 실행력 있는 인적 기반을 형성함. 교육→실습→지원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안정적인 번역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으며, 문학 국제화 전략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번역 아카데미는 2008년부터 시작됐고, 지금까지 2년제 정규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언어권별로 주간과 야간 과정을 나눠서 진행하고 있고, 매년 100명 넘는 외국인 수강생들이 이 과정을 통해 배출됩니다. 이들이 나중에 번역가로 데뷔해서 실제로 출판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LA093)

"예전에는 한국문학을 번역하던 분들이 대부분 한국에 오래 거주한 외국인들이었는데, 이제는 원어민 번역가들이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번역 아카데미를 거쳐 데뷔하는 구조로 바뀌었어요. 번역의 질도 확실히 높아졌고, 출판사에서도 선호하죠." (LA093)

"아카데미 수료자들이 단순히 교육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 저희가 운영하는 번역지원 사업이나 출판지원 사업에 참여해서 실제 책을 내는 구조예요. 교육-실습-출판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번역 인력 생태계가 점차 안정되고 있다는 걸 느껴요." (LA085)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총 7개 언어권에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언어권마다 수요도 다르고 교육 방식도 조금씩 달라요. 현지 독자들과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문화적 맥락까지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LA093)

"아무래도 학위 과정은 아니지만, 2년 동안 커리큘럼이 굉장히 빡빡해요. 그걸 마치고 나면 대부분 번역가로서 기본 역량은 충분히 갖추게 돼요. 요즘은 아카데미 졸업자들이 주요 번역 프로젝트에 자연스럽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LA093)

3) 플랫폼 연계와 디지털 기반 지원 시스템 구축

■ 디지털 기반 지원 체계 구축, 접근성과 효율성 동시 확보

-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번역·출판·교류 지원 체계가 마련되며, 신청 절차 간소화와 정보 접근성 향상이라는 이중 효과를 거두고 있음. 신청자는 번역 샘플과 시놉시스를 업로드하고, 심사 및 결과 확인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음. 이는 국내외 창작자와 출판사 모두에게 효율적인 경로로 작용하고 있음.

■ 번역 콘텐츠 유통 연계, 해외 출판 매칭 기능 강화

- 플랫폼은 번역 샘플과 작가 정보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해외 출판사들이 한국문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 분기별 심사와 매칭시스템은 수요자 중심의 선택을 가능하게 하며, 단순한 공모 사업을 넘어선 실질적 교류 창구로 기능하고 있음. 플랫폼이 정보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문학 해외 진출의 기반이 되고 있음.

■ 연속적 사업 구조 지원,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로 정착

- 온라인 플랫폼 운영은 단절 없는 사업 연계를 가능하게 하며, 번역·출판·교류의 선순환 구조를 지원함. 반복되는 수작업과 오프라인 심사 방식의 한계를 해소하고, 자료 아카이브화와 통계 기반 관리가 가능해짐. 이러한 구조는 향후 문학 지원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전략적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기반이 됨.

"○○○○라는 플랫폼을 통해 번역지원이나 출판지원 신청이 가능해졌어요. 예전에는 서류를 우편으로 받거나 이메일로 따로 정리했는데, 지금은 샘플 시놉시스부터 작가 정보까지 전부 온라인으로 받고 있어서 훨씬 간편해졌죠." (LA085)

"해외 출판사 입장에서도 이 플랫폼이 굉장히 유용해요. 관심 있는 언어권이나 주제 키워드로 검색하면, 거기에 맞는 작가나 작품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매칭 속도도 빨라졌고, 문의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LA093)

"이전에는 번역이 끝난 뒤에 출판이나 교류 쪽으로 넘어갈 때 행정적으로 끊기는 지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플랫폼에서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그 덕분에 하나의 작품이 번역되고 출판되고 현지 행사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가능해졌죠." (LA085)

"신청부터 심사, 결과 발표까지 전부 온라인으로 이뤄지다 보니, 내부에서도 행정 처리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심사위원에게도 디지털 자료를 바로 공유할 수 있어서 심사 효율이 높아졌고,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LA093)

"사업별로 신청 양식이나 운영 방식이 제각각이었는데, 플랫폼이 생기면서 통일성도 생겼고, 연간 통계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언어권에서 어떤 작품이 많이 들어오는지도 데이터로 관리되고 있어요." (LA093)

4) 문학 기관의 전문성 확대와 역할 다변화 요구

■ 문학 지원기관의 기능 전환 필요, 기획 중심 구조로의 이행 요구

- 기존 문학 지원기관은 사업 집행 중심의 행정 운영에 집중해왔으나, 변화하는 문학 환경에 따라 역할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음. 단순한 지원금 배분을 넘어 기획력과 방향성을 갖춘 운영이 필요하며, 이는 창작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구조적 변화가 요구됨.

■ 융복합적 역할 수행을 위한 조직 전문화 필요

- 문학 지원기관은 국제 교류, 장르 간 연계, 콘텐츠 확산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이를 위해 조직 내 역할을 세분화하고, 분야별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기획, 운영, 홍보, 연구 등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문학적 감수성 기반의 사업 기획 역량 강화 필요

- 문학 고유의 맥락을 이해하고 창작자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획 역량이 필수적임. 행정 논리보다 문학적 관점에서의 기획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현장성과 창작 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갖춘 기획자 양성이 병행되어야 함. 이는 지원사업의 질적 수준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

"문학 기관이 단순히 공모를 열고 지원금을 집행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창작자와 동행하는 기획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내부에서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LA087)

"지원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술적 감각보다 행정 효율이 우선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문학은 그 특성상 맥락과 감수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획 단계부터 문학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함께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요." (LA091)

"요즘은 국제 교류나 디지털 기반 사업도 병행해야 하니까, 단일한 행정 인력으로는 감당이 어렵죠. 기획, 운영, 홍보, 국제 업무 등 각 기능별로 전문성이 분화될 필요가 있고, 그런 체계 정비가 조직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봐요." (LA092)

"단순히 행사 몇 개 열고 보고서 쓰는 방식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출판이나 유통과 연결되거나, 독자와 접점을 넓힐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고, 그게 되려면 기관 내부의 기획 역량 자체가 달라져야 해요." (LA088)

"지원사업은 결국 창작자가 중심이어야 하는데, 현장과 소통이 부족하면 방향이 어긋나기 쉬워요. 그래서 창작자 입장에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획자, 즉 문학적인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정책 설계에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LA087)

5) 출판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 필요성

■ 급변하는 출판 환경에 대한 문학계의 대응 부족

- 디지털 플랫폼과 전자출판의 보편화로 출판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 분야는 여전히 전통적 인쇄 중심 유통 구조에 머무르고 있음. 이는 독자와의 접점을 제한하며, 젊은 세대와의 거리감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새로운 환경에 대한 구조적 대응이 시급함.

■ 창작-출판 간 연계 전략 부재, 확산력 약화로 이어짐

- 디지털 환경에 맞춘 창작-출판 연계 전략이 부족하여, 문학 콘텐츠의 유통과 확산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창작 이후의 유통 경로가 한정적이며,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실험적 유통이 미비함. 창작물의 도달 범위를 넓히기 위한 전략적 연계 모델 마련이 필요함.

■ 새로운 독자층 확보를 위한 플랫폼 기반 창작 실험 필요

- 웹 문학, 오디오북, SNS 기반 연재 등 새로운 매체에 익숙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 창작 실험이 요구됨. 디지털 미디어에 적합한 서사 형식과 유통 방식 개발이 병행되어야 하며, 문학의 형식적 확장과 산업적 연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

"요즘 독자들은 책방에서 책을 고르기보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웹소설 플랫폼에서 문학을 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종이책 중심으로만 유통 전략이 짜여 있다 보니, 젊은 독자들과의 접점이 계속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LA088)

"창작자 입장에서도 단행본 출간 외에는 유통 방식이 마땅치 않아서, 완성된 원고를 어디에 어떻게 소개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아요. 디지털 기반 플랫폼이나 실험적인 연재 시스템 같은 걸 기관에서 좀 더 연계해줄 필요가 있어요." (LA087)

"플랫폼 기반 창작을 단순히 상업성 있는 웹소설로만 인식할 게 아니라, 다양한 서사 실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디오북이나 짧은 형식의 연재 콘텐츠도 문학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적 감각이 필요해요." (LA084)

"출판 환경이 많이 변했는데도 정책이나 지원 구조는 그대로인 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 전자책 제작이나 유통을 지원하는 사업은 아직도 극히 일부고, 종이책 출간을 전제로만 기획되다 보니까 실험적인 작업이 묻히는 경우가 많아요." (LA091)

"기획자나 출판사들도 새로운 유통 방식에 적응하고 있지만, 이걸 제도권과 연결해주는 다리가 부족해요. 독립출판, 디지털 연재, 해외 플랫폼과 연계한 사례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이 절실하다고 봐요." (LA086)

나. 생태계 이슈

지원사업 간 분절과 중복, 실행력 저하 문제

1) 기관 간 역할 혼재로 인한 사업 중복과 지원 비효율

■ 문학 지원사업의 분절 운영, 기관 간 역할 중복 문제 발생

- 문학 관련 공공기관들이 각기 유사한 사업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면서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고 있음. 국제 교류, 창작 지원, 출판 지원 등 유사 목적의 사업이 분산 추진됨에 따라 자원의 비효율성과 정책 목표 간 충돌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명확한 기능 재정립이 요구됨.

■ 지원사업 간 연계 부재, 통합적 전략 추진 어려움

- 기관 간 연계나 협업 없이 각 사업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창작자 입장에서는 일관된 창작 흐름을 유지하기 어려움. 사업 간 연속성이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정책적 파급력도 약화됨. 통합적인 문학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함.

■ 수혜자 혼란 가중, 행정 부담 및 접근성 저하

- 중복된 사업 구조는 창작자와 출판사 등 수혜자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함. 정보 탐색, 신청 절차, 결과 확인 등이 기관마다 달라 접근성과 효율성이 낮아짐. 사용자의 관점에서 설계된 단일 창구 중심의 지원 시스템 마련이 시급함.

"국제 교류든 번역 지원이든 각 기관이 비슷한 사업을 따로따로 운영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이게 어디에서 하는 일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사업 간에 연계가 없고, 유사한 프로그램이 겹쳐서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LA092)

"지원받으려면 여러 기관을 각각 알아봐야 하고, 심사 기준이나 신청 양식도 다 달라요. 결과적으로 행정 부담이 크고, 작가나 출판사가 사업 하나 신청하는 데도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하는 구조예요." (LA088)

"기관 간 협력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기획사업을 진행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그와 겹치는 사업을 별도로 공모하더라고요. 정책 목표는 비슷한데 접근이 분절돼 있어서 실제로 창작자 입장에서는 일관된 창작 흐름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LA091)
"창작자는 지원을 받는 데 집중하고 싶은데, 현실은 여러 기관의 정보를 일일이 비교하고 정리해야 해요. 단일 포털이 있으면 훨씬 나을 텐데, 지금은 지원 사업 찾는 것만으로도 큰 노동이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LA087)

"기관마다 사업 목적이 비슷한데도 정리된 정보가 부족하니까, 같은 작가가 비슷한 주제의 지원을 중복해서 받기도 하고, 반대로 좋은 기회를 놓치기도 해요. 이런 구조는 장기적으로는 자원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LA084)

2) 지원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성과 측정 및 환류 부족

■ 실질적 성과 분석 미흡, 양적 확대에 머무는 지원 구조

- 문학 지원사업은 양적으로는 확대되고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성과 분석 체계는 부족한 상황임. 단순한 사업 실적이나 수혜 건수 중심의 평가에 머무르며, 실제로 창작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입체적으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음. 질적 성과 중심의 분석 체계가 요구됨.

■ 창작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성적 평가 부재

- 창작자의 지속 활동 여부, 창작 역량 성장, 생계 기반 강화 등과 같은 정성적 성과는 현행 평가 지표에서 다뤄지지 않음. 지원이 창작자의 삶과 작업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부족하며, 이로 인해 지원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환류 기반의 개선 체계 미흡, 반복적 구조 고착

- 성과에 대한 분석이 후속 기획이나 제도 개선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으면서, 동일한 사업 구조가 반복되고 있음. 수혜자 피드백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방향을 조정하는 체계가 필요함. 지속 가능한 문학 정책 수립을 위해 환류 구조 강화가 필수적임.

"지원사업이 많아진 건 체감돼요. 그런데 정작 그 지원이 작가 개인이나 현장에 어떤 변화를 줬는지 돌아보는 작업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지원 건수는 많은데, 그 이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까요." (LA091)

"작가가 한 작품을 완성하고 나서도 그 이후 활동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왜 그런지를 분석해서 다음 사업에 반영해야 하는데, 그냥 건수나 결과물 숫자로만 평가되고 끝나는 일이 많죠." (LA088)

"지원받고 나면 결과보고서 작성은 하는데, 그게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어떤 작가에게 효과적이었는지, 어떤 방식이 창작을 지속하게 했는지 그런 데이터가 쌓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LA084)

"창작 역량이 성장했는지, 생계에 도움이 됐는지 같은 정성적인 부분은 빠져 있어요. 그런 걸 확인하고 다음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가 있으면 훨씬 지속적인 창작 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LA086)

"해마다 비슷한 사업이 반복되는데, 현장의 이야기가 정책에 반영된다는 인상은 약해요. 지원을 받은 창작자나 기획자의 피드백이 수렴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고요. 환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할 것 같아요." (LA087)

3) 정책 기획 및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경직성

■ 경직된 기획 구조, 수요 반영 어려운 사업 설계 문제

- 문학 지원사업은 사전에 고정된 기획과 연간 단위 운영 방식에 따라 유연성이 부족함. 창작 현장의 급변하는 수요나 트렌드를 반영하기 어렵고, 정책 설계가 실제 필요와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함. 수요 기반의 탄력적 기획 체계가 필요함.

■ 예산 집행 방식의 경직성, 창작 현장 대응력 저하

- 문학 지원 예산은 연도별 집행 원칙과 관행적 편성 방식에 의해 조정이 어려움. 창작자나 단체가 갑작스럽게 마주하는 기획 수요, 협업 기회 등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사업의 실효성과 현장 성과가 저하됨.

■ 현장 변화 대응력 부족, 긴급 수요 반영 체계 미비

- 창작자들이 예기치 않게 마주하는 현장 변화나 창작 기회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임. 신속 대응형 공모나 긴급 지원 체계가 부재해, 일회성 제안이나 외부 협업에 기민하게 움직이기 어려움. 유연한 전환 가능성을 내포한 사업 설계가 필요함.

"사업이 연 단위로 기획되고 예산도 고정돼 있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좋은 기획이 생겨도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현장에서는 유연하게 대응하고 싶은데, 제도는 따라오질 못하니까 답답하죠." (LA088)

"지원사업이 현실보다 한 발 느리다는 느낌이 들어요. 요즘은 창작도 빠르게 변화하는데, 제도는 1년 전에 기획된 방식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창작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작업 흐름과 맞추기가 어렵죠." (LA087)

"갑자기 해외에서 공동작업 제안이 왔다든지, 지역에서 창작 공간을 함께 쓰자는 제안이 왔을 때, 그런 긴급한 기획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일회성 기회가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LA092)

"예산이 딱 정해져 있고 쓰임새도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 창작 환경에 맞게 조정하는 게 어렵잖아요. 소규모 창작 프로젝트나 실험적인 시도는 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고요." (LA091)

"정책 기획 단계에서부터 유연성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연도별 공모 말고도 수시로 제안을 받고, 필요에 따라 바로 기획 전환이 가능하게 만드는 게 현장에서는 훨씬 현실적인 방식일 거예요." (LA084)

4) 현장 전문가의 참여 부족과 행정 중심 평가 체계

■ 현장 전문가 참여 부족, 평가의 현장 정합성 저하

- 문학 지원사업의 설계와 심사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나 실무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평가 위주의 행정 중심 구조가 지속되며, 창작 현장의 실제 맥락이나 창작자의 기획 의도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 행정적 기준 중심의 심사, 창작성과의 괴리 발생

- 사업 심사는 정량적 수치, 서류 완결성 등 행정적 기준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함. 이로 인해 문학적 창의성, 실험성, 사회적 파급력과 같은 정성적 요소가 평가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질적 창작 성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심사 방식 개선이 필요함.

■ 문학 생태계의 다양성 저해, 실험적 시도 위축 초래

- 획일화된 평가 기준은 장르 간 균형과 창작 실험의 기회를 제한하며, 문학 생태계 전반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저해함. 특히 신진 작가나 새로운 서사 형식을 시도하는 창작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음. 평가 기준 다변화가 요구됨.

"심사 기준이 너무 형식적이에요. 서류가 깔끔하게 정리돼 있고, 예산 항목이 정확하면 높은 점수를 받는 반면, 창작 내용이 실험적이거나 독특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LA086)

"실제로 창작 현장을 아는 사람이 심사에 들어가야 기획 의도나 맥락을 제대로 읽어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배제되고 행정 중심으로만 평가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정작 의미 있는 작업이 떨어지는 사례도 있어요." (LA087)

"기획서를 쓰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창작자가 어떤 문제의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지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양식이 잘 갖춰졌는지가 더 중요하게 평가되는 구조인 것 같아요." (LA091)

"다양한 장르나 형식을 시도하는 작업은 평가 기준에 잘 안 맞아요. 예산 규모가 작고 완성 형태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고, 결국 정해진 기준 안에만 머물게 되는 거죠." (LA088)

"현장의 감각을 갖춘 실무자나 예술가가 설계부터 평가까지 참여할 수 있어야 해요. 지금처럼 행정 논리만 앞세우면 문학의 다양성과 실험성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LA084)

5) 문학 장르 간 불균형과 특정 유형 집중 현상

■ 문학 장르 간 지원 편중, 특정 유형 집중 구조 고착

- 문학 지원사업이 소설, 에세이 등 대중성과 시장성이 높은 장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이에 비해 시, 희곡, 실험문학 등은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과 자원을 배분받고 있음. 이러한 편중 구조는 장르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며, 지원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 비주류 문학에 대한 구조적 소외, 창작 다양성 위축

- 제도권 내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장르들은 실험성과 표현의 폭을 확장하려는 창작 시도를 지속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음. 특히 형식적 실험이나 정치·사회적 메시지를 포함한 작품들은 평가 기준과 부합하지 않아 공모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음.

■ 생태계 균형성 저해, 창작 흐름의 단절 초래

- 특정 문학 유형에 대한 집중 지원은 문학 생태계 전반의 건강한 흐름을 저해함. 신진 시인, 극작가, 장르문학 창작자들이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구조는 문학계의 다양성과 세대교체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함. 균형 잡힌 장르별 지원 설계가 필요함.

"공모사업 결과를 보면 늘 비슷한 장르, 비슷한 형식의 작품이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소설이나 에세이는 꾸준히 지원받는데, 시나 희곡, 실험적인 형식은 여전히 소외돼 있다는 인상을 받아요." (LA087)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은 작품, 혹은 형식 실험이 강한 작업은 심사 기준에 잘 안 맞는다는 이유로 배제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시도 자체를 주저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LA091)

"시 쓰는 작가들은 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지원사업에서도 시는 늘 후 순위로 밀리는 분위기고, 공모 자체도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 꾸준히 활동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LA089)

"극작, SF, 장르문학 쪽 작가들은 자신들의 작업이 제도권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다고 느껴요. 특정 문학만이 '문학'으로 인정받는 듯한 분위기가 생태계 전체를 위축시키는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LA090)

"지금은 창작 방식도, 독자층도 다양해졌는데 지원 체계는 여전히 고전적인 기준에 머물러 있어요. 균형 잡힌 지원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특정 장르만 살아남는 결과로 이어질 것 같아요." (LA088)

6) 창작자의 경제적 기반 취약과 복수 직업화 문제

■ 문학인의 경제적 불안정 지속, 본업 집중 어려운 구조

- 문학 창작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이 지속되며, 많은 작가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강연, 교육, 번역 등의 부수 활동에 의존하고 있음. 이는 창작에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분산시키며, 결과적으로 작품의 질적 완성도와 창작 지속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다중 직업화 심화, 창작 환경의 구조적 취약성 드러남

- 문학인의 수입 구조는 일정하지 않고 불안정하여,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직업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 일반화되고 있음. 이러한 구조는 특히 신진 작가나 실험적 작품 활동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창작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임.

■ 지속 가능한 창작 기반 마련 시급, 제도적 지원 필요

- 문학인을 위한 기본 창작 수당, 프로젝트 기반 지원, 장기 레지던시 등 실질적 생활 기반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요구됨. 창작을 중심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문학 생태계의 다양성과 질적 성장이 가능함.

"창작만으로는 도저히 생계가 안 돼서 강의, 글쓰기 교실, 번역 일을 병행하고 있어요.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획이 있어도 실행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LA090)

"문학은 꾸준히 쓰고 고민할 시간이 필요한 작업인데, 지금은 대부분의 작가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 겨우 글을 쓰는 구조예요. 그렇게 해선 깊이 있는 창작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LA089)

"신인 작가일수록 복수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상금이나 단편 게재료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거든요. 생계를 꾸리면서도 창작을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가 절실해요." (LA088)

"문학 수당이나 장기 레지던시 같은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작가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지금처럼 단기 공모만으로는 안정적인 창작 기반을 마련하기 힘들어요." (LA087)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불안정한 소득 구조 때문에 늘 병행 작업을 고민해야 해요. 창작이 중심이 되는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봐요." (LA084)

7) 지원사업의 수도권 집중과 편중 현장

■ 수도권 중심 문학 지원 기획, 지역 접근성의 구조적 한계

- 문학 지원사업 대부분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획·운영되며, 지역 기반 작가들은 정보 접근, 사업 참여, 성과 공유 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음. 이는 창작 기회의 지역 편중을 초래하며, 전국 단위의 균형 있는 문학 생태계 조성에 장애가 됨.

■ 지역문학 활성화 기반 미비, 공동체 중심 생태계 약화

- 지역에는 활발한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 작가와 문학 공동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공간, 네트워크, 중간 지원조직 등의 인프라가 부족하여 지역 문학의 유통과 성장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음.

■ 지역 맞춤형 분권 전략 필요, 균형 있는 지원 구조 마련

- 중앙 집중형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과 창작 생태를 반영한 분권형 전략 수립이 필요함. 지역 중간 지원조직과 협력해 현장 중심의 기획을 유도하고, 창작자 네트워크와 공동 창작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문학의 자생력을 높여야 함.

"공모 사업이 대부분 수도권에서 열리고, 설명회나 워크숍도 서울 중심이에요. 지역에선 정보를 접하기도 어렵고, 참여하려면 교통비나 숙박비까지 부담해야 해서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LA089)

"지역에도 훌륭한 작가들이 많고 공동체도 있어요. 문제는 그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나 네트워크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혼자 버티기엔 한계가 많죠." (LA090)

"수도권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은 서로 협업도 잘하고 정보도 빠른데, 지역은 그런 연결망이 잘 안 돼요. 그걸 중간 지원조직이 해줘야 하는데, 역할이 미비하거나 아예 없는 곳도 많아요." (LA091)

"지역 문학을 균형 있게 육성하려면, 일률적인 공모보다는 지역 상황에 맞춘 맞춤형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역 작가들이 직접 기획할 수 있는 자율성과 예산이 주어져야 한다고 봐요." (LA087)

"지역 기반 활동을 지원하는 공모가 있어도 대부분 일회성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문학 생태계를 키우려는 방향은 부족해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LA088)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통합적 거버넌스와 생태계 중심 지원 체계 구축 필요

1) 기관 간 협업을 통한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 필요성

■ 중복 지원사업 통합 필요, 기관 간 역할 재정립 시급

- 문학 분야에서는 유사한 목적의 지원사업이 다양한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자원 낭비와 정책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각 기관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사업 간 조정을 통해 중복을 최소화하는 구조 개편이 필요함. 통합적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한 협력 체계 구축이 요구됨.

■ 통합 플랫폼 기반 운영, 수혜자 중심 접근 구조 마련

-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지원사업 신청, 심사, 결과 발표, 성과 관리까지 연계되는 시스템이 필요함. 이는 창작자와 출판사 등 수혜자 입장에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사업을 한눈에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참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행정 절차 간소화, 사업 운영 효율성 제고

- 단일 창구 운영은 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심사 기준의 일관성과 성과관리 체계를 통일하는 데에도 효과적임. 반복적 행정 절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운영 주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자원을 실질적 창작 지원에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지원사업이 기관마다 따로따로 운영되다 보니까, 작가 입장에서는 어디에 뭘 신청해야 할지부터가 너무 복잡해요. 공통된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현장에서도 자주 해요." (LA087)

"심사 기준이나 제출 서류도 기관마다 다 달라서 하나하나 새로 준비해야 해요.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써야 하고, 중복 지원 여부 확인도 수기로 해야 하니까 비효율적이에요." (LA084)

"각 기관이 하고 있는 일의 목적은 비슷한데 방식이 달라요. 이걸 하나의 시스템 안에 넣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사업 간 중복도 줄이고 예산도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LA091)

"플랫폼 하나에서 사업 신청부터 결과 발표, 나중에 성과관리까지 연계되면 창작자도 편하고 행정도 수월해질 것 같아요. 특히 지역 작가들한테는 접근성 면에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LA088)

"중복 지원이 의도치 않게 발생하거나, 특정 사업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통합 플랫폼이 생기면 그런 문제가 줄어들고, 전체 문학 생태계의 자원 순환도 더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LA092)

2) 현장 기반 성과 평가 체계의 도입 및 환류 강화

■ 정성적 성과 반영을 위한 다층적 평가 체계 필요

- 기존 문학 지원사업 평가는 주로 정량 지표에 의존하며, 창작 과정의 질적 변화나 문화적 파급력 등 정성적 성과는 간과되고 있음. 창작의 본질과 맥락을 반영할 수 있는 다층적 평가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이는 사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는 핵심 기반임.

■ 현장 참여형 평가 도입, 실효성 중심 구조로 전환

- 평가 과정에 창작자, 기획자,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음. 다양한 관점의 피드백을 반영함으로써 실제 창작 환경에 맞는 성과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의 수용성과 정책 개선 가능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음.

■ 환류 체계 강화 통한 정책 조정 가능성 확보

- 평가 결과가 단순 보고에 그치지 않고, 차기 사업 기획 및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는 환류 체계가 필요함. 이는 반복되는 문제를 예방하고, 사업 운영의 지속 가능성과 현장 성과를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으로 작용함.

"지원사업 결과보고서를 내긴 하지만, 그게 다음 사업 기획에 실제로 반영된다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현장에서 느낀 성과는 기록되지 않는 경우도 많죠." (LA086)

"책이 한 권 나오느냐보다, 그 작업이 작가에게 어떤 변화나 다음 기회를 만들어줬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질적인 성과를 확인하거나 공유하는 구조가 거의 없어요." (LA087)

"정성적인 평가가 반영되려면 결국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심사와 검토 과정에 함께 들어와야 해요. 창작자나 기획자, 실무자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현장에 맞는 평가 기준이 생기죠." (LA088)

"성과가 쌓여도 그게 환류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번 사업에서 잘 된 부분이나 부족했던 점을 다음 사업 설계에 반영하는 체계가 있어야, 매년 똑같은 사업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어요." (LA091)

"기존에는 그냥 몇 명이 수혜를 받았고, 책이 몇 권 나왔는지가 전부였는데, 앞으로는 작품이 사회적으로 어떤 반향을 일으켰는지, 창작자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도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LA084)

3) 유연한 예산 구조 및 장작 중심 정책 설계 강화

■ 정책 기획 단계부터 현장 의견 반영 구조 마련 필요

- 문학 지원사업은 초기 기획 단계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함. 창작자, 기획자, 출판사 등 실제 수요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 목적과 방향성을 설계함으로써, 현장과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유연한 예산 구조, 창작 기획 다양성 보장하는 기반 마련

- 연간 고정 예산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긴급 대응형 예산과 자율 기획형 예산 항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창작자나 단체가 시의성 있는 기획을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유연한 집행 체계를 마련해야 함.

■ 변화 대응형 문학 지원 체계로의 전환 필요

- 디지털 환경 변화, 플랫폼 기반 유통 확대 등 창작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설계와 실행 과정 전반에 탄력성을 부여해야 하며, 변화에 열려 있는 지원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구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창작자나 기획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필요를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진짜 도움이 되는 지원이 가능하죠." (LA091)

"지금처럼 매년 고정된 방식으로만 예산을 집행하면, 갑자기 떠오른 기획이나 긴급한 협업 기회를 살리기 어려워요. 일정 비율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LA087)

"요즘 창작 환경이 디지털 기반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지원사업은 여전히 출판 중심, 연간 단위에 머물러 있어요. 예산도 그렇게 편성되다 보니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LA088)

"작가 입장에선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금은 사업 공모 시기를 기다려야만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자율 기획형 예산이나 수시 대응형 사업이 있다면 훨씬 창작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을 거예요." (LA086)

"정책이 유연해지려면 기획부터 예산 집행까지 전반적인 구조가 바뀌어야 해요. 지금은 행정이 앞서고 창작은 그 뒤를 따르는 구조인데, 이걸 창작 중심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어요." (LA084)

4) 출판사 및 기획자 중심의 협력 모델 구축 필요

■ 창작자 단독 지원 한계, 협력 기반 지원 모델 필요

- 현재 문학 지원은 주로 작가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실제 창작물이 독자에게 도달하기까지는 다양한 주체의 협력이 필요함. 출판사, 기획자, 편집자 등과의 연계가 중요한 만큼, 이들을 포괄하는 지원 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됨.

■ 출판사·기획자의 역할 재조명, 유통 기반 확대 가능

- 출판사와 기획자는 작품의 기획, 편집, 유통, 독자 연결에 있어 핵심 역할을 수행함. 이들을 단순 실행 주체가 아닌 창작 과정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작품의 확산력과 생명력을 함께 설계하는 협력 구조가 마련되어야 함.

■ 연계형 지원사업 도입, 문학 생태계 통합 운영 기반 마련

- 작가-출판사-기획자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공모나 프로젝트형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함. 이는 작품 완성도와 유통 가능성을 동시에 높이며, 창작자 개인의 부담을 줄이고 생태계 내 자원 순환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작가 혼자 글을 써서 끝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해요. 기획자, 편집자, 출판사가 함께 협업하지 않으면 책 한 권이 세상에 나가기 어렵고, 독자와도 연결되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원은 작가 개인에게만 집중돼 있어요." (LA084)
> "실제로 작품을 유통시키고 독자에게 도달하게 만드는 건 출판사나 기획자의 역할인데, 이들을 단순한 수행 주체로만 보는 시선이 여전해요. 동등한 협력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해요." (LA087)
>
> "기획자와 출판사까지 포함해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연계형 지원사업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작가도 혼자 준비하는 부담이 줄고, 결과물의 완성도나 파급력도 훨씬 좋아질 수 있다고 봐요." (LA091)
>
> "작가 개인이 혼자 모든 걸 다 하기는 너무 벅차요. 작품은 좋은데 유통 경로가 없어서 사장되는 경우도 많고요. 기획과 유통까지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구조가 바뀌어야 해요." (LA088)
>
> "생태계라는 건 결국 다양한 역할이 함께 순환돼야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은 각자 따로 움직이니까 힘이 분산되고,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구조예요. 협업 기반이 마련돼야 해요." (LA092)

5) 다장르 창작 지원과 새로운 형식 실험 유도

■ 장르 중심 지원의 한계, 형식 다양성 수용 필요

- 기존 문학 지원은 특정 장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시, 산문, 혼합 장르 등 실험적 형식은 제도권 지원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음. 문학 형식의 변화와 실험을 포용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이는 창작 자유도를 확대하는 기반이 됨.

■ 뉴미디어 기반 문학 형식 등장, 새로운 수요 반영 필요

- 웹 문학, 오디오북, 디지털 연재 콘텐츠 등은 기존 문학 유통 방식과는 다른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음.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춘 형식별 맞춤 지원이 필요함. 독자와의 접점을 넓히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됨.

■ 창작 방식의 진화 유도, 독자층 확대와 연결 가능

- 다양한 형식의 실험을 지원하는 정책은 새로운 독자층의 유입과 문학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음. 특히 시각·청각 중심의 콘텐츠는 접근성을 높이며, 이는 문학 향유의 확장으로 이어짐. 장르와 매체를 넘나드는 창작을 장려하는 정책적 기반이 필요함.

"지금도 지원사업을 보면 소설이나 에세이 중심이에요. 그 외 형식, 특히 시나 장르 혼합형 작품은 여전히 평가에서 불리하거나 공모 자체가 없어서 시도조차 하기 어려워요." (LA087)

"웹소설이나 오디오북 같은 새로운 형식을 무조건 상업적이라고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도 충분히 문학적인 실험이 가능하고, 새로운 독자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LA084)

"형식적인 실험을 해보고 싶어도, 발표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땅치 않아요. 결국 기존 방식에 맞춰야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현실이 계속 창작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요." (LA088)

"요즘 독자들은 책이 아니더라도 문학적인 콘텐츠를 다양하게 즐기잖아요. 그런데 정책은 여전히 인쇄 중심이에요. 매체가 다양해진 만큼, 지원도 그에 맞게 다변화되어야 한다고 봐요." (LA086)

"장르를 넘나들거나 비문자적인 요소를 포함한 실험은 여전히 변방으로 밀려 있어요. 제도권 안에서 그런 시도들을 받아들이고 독려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창작도 더 활발해질 수 있을 거예요." (LA091)


한국문화예술위원회